네 사람의 서명

The Sign of the Four

아서 코난 도일 (1859–1930)

1890년 발표 · 한국어 번역 · 2026-10-09

vLLM Gemma 4 26B-A4B AI 번역

책 정보

원전

Arthur Conan Doyle, "The Sign of the Four" (Lippincott's Monthly Magazine 1890)

저자

아서 코난 도일 (Sir Arthur Conan Doyle, 1859–1930)

원전 출처

Project Gutenberg #2097 (퍼블릭 도메인)

번역

vLLM Gemma 4 26B-A4B FP8 (GB10 로컬)

발행

sosig.shop/book · 2026-10-09

번역 정책

> 가독성을 우선해 옮기되 빅토리아 시대 추리소설 특유의 격조와 긴장을 살렸습니다. 고유명사·핵심 표현은 작품 내내 일관되게

> 옮겼습니다. AI 번역의 한계상 어조 흔들림·세부 오역 가능성이 있으니, 정식 번역본의 대체가 아닌 "쉽게 읽는 한 편"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1장 연역의 과학

셜록 홈즈는 벽난로 선반 구석에서 병을 꺼내고, 깔끔한 모로코 가죽 케이스에서 주사기를 꺼냈다. 그는 길고 창백하며 초조해 보이는 손가락으로 섬세한 바늘을 조절한 뒤, 왼쪽 셔츠 소매를 걷어 올렸다. 홈즈는 수많은 주삿바늘 자국으로 점철된, 근육질의 팔뚝과 손목을 한동안 생각에 잠긴 듯 응시했다. 마침내 그는 날카로운 바늘을 살 속으로 깊숙이 찔러 넣고 작은 피스톤을 눌렀다. 그러고는 만족스러운 듯 긴 한숨을 내쉬며 벨벳 안감이 깔린 안락의자에 몸을 깊숙이 파묻었다.

수개월 동안 하루 세 번씩 이 광경을 지켜보았지만, 익숙해진다고 해서 마음이 편해지지는 않았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그 모습을 보는 것이 괴로워졌고, 항의할 용기조차 내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밤마다 나를 괴롭혔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 반드시 한마디 하겠다고 몇 번이고 다짐했다. 하지만 동료인 홈즈의 저 차갑고 무심한 태도를 보고 있노라면, 그에게 어떤 말이라도 건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 홈즈의 탁월한 능력과 능수능란한 태도, 그리고 그가 가진 수

많은 비범한 면모를 경험해 온 나로서는 그에게 맞서는 일이 무척이나 어렵고 망설여졌다.

하지만 그날 오후, 점심때 마신 본 와인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홈즈가 지나치게 느긋하게 행동하는 바람에 짜증이 머리끝까지 치밀었기 때문인지 모르겠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오늘은 무엇인가?" 내가 물었다. "모르핀인가, 아니면 코카인인가?"

홈즈는 펼쳐 놓은 낡은 고서에서 나른하게 눈을 들어 올렸다.

"코카인이라네." 홈즈가 말했다. "7퍼센트 농도의 용액이지. 자네도 한번 시도해 보겠나?"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내가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제 몸 상태가 아직 아프가니스탄 원정의 여파를 다 떨쳐내지 못했거든요. 몸에 무리를 줄 수는 없습니다."

내 격앙된 반응에 그는 미소를 지었다. "자네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군, 왓슨." 홈즈가 말했다. "그것이 신체에 해로운 영향을 끼친다는 점은 인정하네. 하지만 내게는 정신을 고양하고 명료하게 해주는 자극이 워낙 탁월해서, 그로 인한 부작용 따위는 그리 대수롭지 않게 느껴지거든."

"하지만 제발 생각 좀 해보게!" 내가 간곡하게 말했다. "대가가 얼마나 클지 따져보란 말이야! 자네 말대로 두뇌가 깨어나고 흥분될 수는

있겠지. 하지만 그건 병적이고 비정상적인 과정이라네. 조직의 변화를 가속해 결국엔 영구적인 쇠약함을 남길 수도 있어. 게다가 그 뒤에 찾아올 무력감이 얼마나 처참한지도 자네도 잘 알지 않는가. 고작 그 정도 즐거움을 위해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는 건 정말이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야. 왜 고작 스쳐 지나가는 쾌락 때문에 자네가 타고난 그 위대한 능력들을 잃을 위험을 무릅쓰려 하는 건가? 내 말을 명심하게. 나는 지금 동료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네의 건강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의사로서 충고하는 것이라네."

그는 기분 나빠하는 기색이 아니었다. 오히려 대화를 즐기는 사람처럼, 손가락 끝을 맞대고 의자 팔걸이에 팔꿈치를 기댔다.

"내 정신은 정체되어 있는 꼴을 못 견뎌." 홈즈가 말했다. "복잡한 문제를 던져주거나, 할 일을 주거나, 아주 난해한 암호나 까다로운 분석 과제를 준다면 나는 비로소 내게 딱 맞는 환경에 놓인 기분이 들지. 그럴 때는 인위적인 자극제 따위는 없어도 괜찮아. 하지만 난 지루하게 반복되는 일상을 혐오하네. 정신적인 고양감을 갈망하지. 내가 이 특별한 직업을 선택한 이유도 바로 그것이라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내가 이 직업을 만들었다고 해야겠군.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은 단 한 명뿐이니까."

"비공식 탐정이라니요?" 나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되물었다.

"비공식적인 유일한 자문 탐정이지." 홈즈가 대답했다. "나는 수사 분야에서 마지막이자 최고 권위를 가진 상소 법원 같은 존재라네. 그렉슨이나 레스트레이드, 혹은 애슬니 존스 경위가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을

만났을 때—참고로 그들에게 그런 상황은 일상이나 다름없지만—그 사건들은 나에게 맡겨지게 되지. 나는 전문가로서 자료를 검토하고 전문적인 소견을 내놓는다네. 이런 경우 나는 공을 내세우지 않아. 신문에 내 이름이 실리는 일도 없지. 내게 가장 큰 보상은 일 그 자체, 그리고 내 특수한 능력을 발휘할 분야를 찾아내는 즐거움이라네. 하지만 자네는 제퍼슨 호프 사건을 통해 내 작업 방식이 어떤지 이미 경험해 보지 않았나."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진심을 담아 대답했다. "살면서 그토록 강렬한 인상을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 사건을 바탕으로 '주홍색 연구'라는 다소 환상적인 제목의 작은 소책자까지 펴냈을 정도니까요."

그는 슬픈 기색으로 고개를 저었다. "대충 훑어보긴 했네." 그가 말했다. "솔직히 말해서, 자네의 글을 축하해주기는 어렵겠군. 탐정 업무는 정밀한 과학이거나, 적어도 과학이어야만 하네. 그렇기에 냉철하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태도로 다뤄야 하지. 그런데 자네는 여기에 낭만주의라는 색채를 입히려 했어. 이건 마치 유클리드의 제5명제에 연애소설이나 야반도주 이야기를 억지로 끼워 넣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짓이라네."

"하지만 거기엔 낭만적인 요소가 있었단 말입니다." 내가 반박했다. "사실을 왜곡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떤 사실들은 굳이 밝힐 필요가 없으며, 적어도 사실을 다룰 때는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언급할 가치가 있는 유일

한 대목은, 결과로부터 원인을 찾아내는 기묘한 분석적 추론을 통해 제가 사건을 해결해 냈다는 점뿐입니다."

그를 기쁘게 하려고 특별히 공들여 쓴 글인데, 그런 비판을 받으니 짜증이 났다. 게다가 내 소책자의 모든 문장이 오로지 그의 업적을 기리는 데에만 쓰여야 한다는 듯한 그의 자기중심적인 태도에도 화가 났다. 베이커가에서 그와 함께 지낸 수년 동안, 나는 동료의 차분하고 가르치려 드는 태도 밑바닥에 작은 허영심이 깔려 있다는 사실을 몇 번이고 눈치챘었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다친 다리를 어루만지며 앉아 있을 뿐이었다. 얼마 전 제자일 총탄에 맞은 다리는 걷는 데 지장은 없었으나, 날씨가 바뀔 때마다 욱신거리며 기분 나쁜 통증을 불러일으켰다.

"요즘은 유럽 대륙까지 진료 범위를 넓히고 있네."

잠시 후, 홈즈가 오래된 브라이어 파이프에 담뱃가루를 채워 넣으며 말했다.

"지난주에는 프랑수아 르 빌라르라는 사람에게 자문을 해줬지. 자네도 알겠지만, 그는 최근 프랑스 수사국에서 꽤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인물이라네. 그는 켈트족 특유의 빠른 직관력을 모두 갖추고 있지만, 수사의 고차원적인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광범위하고 정확한 지식은 다소 부족하더군. 이번 사건은 유언장과 관련된 것이었는데, 꽤 흥미로운 구석이 있었네. 내가 1857년 리가에서 일어난 사건과 1871년 세인트루이스에서 있었던 유사한 두 사건을 참고하라고 알려

줬더니, 그제야 그는 진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더군. 여기 내 도움에 감사를 표하며 오늘 아침에 보내온 편지가 있네."

말을 마친 홈즈가 구겨진 외국산 편지 한 장을 툭 던졌다. 나는 편지를 훑어보았다. 그 안에는 프랑스인이 보낸 열렬한 찬사가 가득했다. 여기저기 'magnifiques(훌륭하다)', 'coup-de-maîtres(신의 한 수)', 'tours-de-force(묘책)' 같은 감탄사들이 흩어져 있었다.

"마치 제자가 스승에게 말하는 것 같군요." 내가 말했다.

"오, 그 친구가 제 도움을 너무 높게 평가하는군요." 셜록 홈즈가 가볍게 말했다. "그 친구도 상당한 재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상적인 탐정에게 필요한 세 가지 자질 중 두 가지를 이미 갖췄거든요. 바로 관찰력과 연역 능력입니다. 지식만 조금 더 보태면 됩니다. 지식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쌓일 테니까요. 지금은 제 짧은 저작들을 프랑스어로 번역하고 있답니다."

"당신의 저작물 말입니까?"

"오, 모르셨습니까?" 그가 웃음을 터뜨리며 외쳤다. "네, 제가 논문을 몇 편 쓴 적이 있습니다. 전부 전문적인 주제들이지요. 여기 예를 들어 하나를 보여드리죠. '다양한 담배 재의 차이점에 대하여'라는 논문입니다. 이 안에는 시가, 담배, 파이프용 담배를 통틀어 140가지 종류로 분류해 두었고, 재의 차이를 보여주는 채색 도판도 실었습니다. 이 문제는 형사 재판에서 끊임없이 등장하는 쟁점이며, 때로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살인 사건이 인도산 룬카 담배

를 피우던 사람에 의해 저질러졌다고 확정할 수만 있다면, 수사 범위를 명확히 좁힐 수 있으니까요. 훈련된 눈에는 트리치노폴리 담배의 검은 재와 버즈아이 담배의 하얀 재가 확연히 다르게 보입니다. 마치 양배추와 감자를 구분하는 것만큼이나 말입니다."

"자네는 정말 사소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는 비범한 재능을 가졌군." 내가 말했다.

"그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발자국을 추적하는 법에 대해 정리한 제 논문이 있습니다. 석고를 이용해 발자국 흔적을 보존하는 방법도 몇 가지 덧붙여 두었지요. 여기 또 흥미로운 소책자가 하나 있는데, 직업이 손의 형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입니다. 지붕을 얹는 인부나 선원, 코르크 절단공, 식자공, 직공, 그리고 다이아몬드 연마공의 손 모양을 석판화로 실어 두었습니다. 과학 수사를 하는 탐정에게는 매우 실용적이고 유용한 지식이지요. 특히 주인을 알 수 없는 시신을 확인하거나 범죄자의 과거를 밝혀낼 때 말입니다. 하지만 제 취미 생활 이야기로 당신을 지치게 했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간곡하게 대답했다. "오히려 아주 흥미롭습니다. 특히 홈즈가 그 방법을 실제로 적용하는 모습을 직접 지켜볼 기회가 생긴 이후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금 관찰과 추론에 대해 말씀하셨지요? 분명 관찰이 이루어져야 추론도 가능한 법 아니겠습니까."

"그럴 리가요, 전혀 아닙니다."

그는 안락의자에 몸을 깊숙이 파묻고는 파이프에서 굵직한 푸른 연기 고리를 내뿜으며 대답했다.

"예를 들어보죠. 관찰 결과 당신은 오늘 아침 위그모어 가 우체국에 다녀온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추론을 해보니, 당신은 그곳에서 전보를 보냈군요."

"맞아요!" 내가 말했다. "두 가지 모두 정확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알아내셨는지는 솔직히 모르겠군요. 그건 제 갑작스러운 충동이었을 뿐이고,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거든요."

"아주 간단한 일이라네." 내 놀란 기색을 보며 홈즈가 낄낄거리며 말했다. "너무나 단순해서 굳이 설명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지.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관찰과 추론의 경계가 무엇인지 보여줄 수는 있을 것 같군. 우선 관찰한 결과부터 말하자면, 자네 발등에 붉은빛이 도는 흙이 조금 묻어 있네. 위그모어 가에 있는 사무실 맞은편에서 보도블록을 들어내고 흙을 쌓아두었는데, 그 위치가 입구로 들어설 때 밟지 않고 지나치기가 아주 어렵더군. 그 흙은 아주 특이한 붉은색을 띠고 있는데, 내가 알기로 이 근처에서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색이지. 여기까지가 관찰이라네. 나머지는 추론이고."

"그렇다면, 제가 전보를 보냈다는 건 어떻게 추리하신 겁니까?"

"당연히 당신이 편지를 쓰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소. 아침 내내 당신 맞은편에 앉아 있었으니까 말이오. 게다가 열려 있는 책상 위를 보니 우표 한 장과 두툼한 엽서 뭉치도 보이더군. 그렇다면 우체국에 가

서 전보를 보내는 것 말고 다른 일을 할 이유가 있겠소? 다른 모든 가능성을 제외하고 남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진실이라오."

"이번 사건은 확실히 그렇군요." 잠시 생각에 잠겼던 내가 대답했다. "하지만 당신 말대로, 문제는 아주 단순해 보입니다.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당신의 가설을 좀 더 엄격하게 검증해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오히려 코카인을 두 번째로 투여하는 걸 막아줄 테니까요. 당신이 가져오는 문제라면 무엇이든 기꺼이 조사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건에는 저마다의 개성이 묻어나기 마련이고, 훈련된 관찰자라면 그 흔적을 읽어낼 수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지요. 마침 제게 최근에 들어온 시계가 하나 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이 시계의 전 주인이 어떤 성격이었고 어떤 습관을 지녔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겠습니까?"

나는 약간의 즐거움을 느끼며 그에게 시계를 건네주었다. 내가 보기에 그 시험은 불가능한 것이었기에, 가끔 홈즈가 보여주는 그 독단적인 태도를 고쳐주려는 의도도 있었다. 홈즈는 손바닥 위에 시계를 올려놓고 수평을 맞추더니, 시계판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그러고는 시계 뒷면을 열어 내부 부속품들을 살피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맨눈으로 보더니, 이내 강력한 볼록 렌즈를 꺼내 들었다. 마침내 홈즈가 시계 케이스를 탁 소리 나게 닫으며 내게 돌려주었을 때, 그의 낙담한 표정을 보고 나는 웃음을 참기가 무척 힘들었다.

"단서가 거의 없군." 홈즈가 말했다. "시계를 최근에 깨끗이 닦아버렸어. 덕분에 가장 결정적인 단서들을 놓치게 생겼군."

"맞아요." 내가 대답했다. "제게 오기 전에 이미 닦였더군요." 마음속으로 나는 동료를 비난했다. 자신의 실패를 덮으려고 말도 안 되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고 말이다. 닦여버린 시계에서 대체 무슨 단서를 찾아내길 바란단 말인가?

"비록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지만, 내 연구가 완전히 헛수고였던 건 아니네."

그는 몽롱하고 생기 없는 눈으로 천장을 응시하며 말했다.

"자네가 바로잡아 주길 바라네만, 내 판단으로는 그 시계는 자네의 형님이 소유했던 것이고, 원래는 자네 아버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 보네."

"뒷면에 적힌 H. W.라는 글자를 보고 그렇게 짐작하신 모양이군요?"

"맞습니다. 'W'라는 이니셜은 당신의 이름을 암시하고 있군요. 회중시계의 제작 연도를 보니 거의 50년 전의 것입니다. 이니셜 역시 시계만큼이나 오래되었고요. 즉, 이전 세대를 위해 만들어진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보석류는 장남에게 물려주기 마련이고, 장남은 아버지와 같은 이름을 쓰는 경우가 많지요. 제 기억이 맞다면 당신의 아버지는 돌아가신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계는 당신의 형님이 오랫동안 간직해 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군요." 내가 말했다. "그 밖에 더 있습니까?"

"그는 생활 습관이 매우 불결하고 부주의한 사람이었습니다. 앞날이 유망한 처지였음에도 스스로 기회를 발로 차버렸지요. 한동안 가난하게 살다가도 이따금 돈이 생기기도 했지만, 결국 술에 손을 대면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파악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마음속에는 걷잡을 수 없는 울분이 치밀어 올랐고, 나는 절뚝거리는 다리로 방 안을 초조하게 서성거렸다.

"홈즈, 이건 당신답지 않은 행동입니다." 내가 말했다. "당신이 이런 식으로까지 내려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당신은 내 불행한 형의 과거를 이미 조사해 놓고는, 이제 와서 마치 기발한 추리력을 발휘한 것처럼 꾸미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낡은 회중시계만 보고 이 모든 걸 알아냈다는 말을 내가 믿을 리 없습니다! 이건 너무 무례한 처사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사기꾼의 수작처럼 느껴질 정도라고요."

"친애하는 박사님," 그가 다정하게 말했다. "부디 사과를 받아주십시오. 저는 이 문제를 그저 추상적인 문제로만 바라보느라, 이것이 박사님께 얼마나 개인적이고 고통스러운 일일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박사님이 시계를 건네주시기 전까지는 박사님께 형제가 있다는 사실조차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대체 도대체 어떤 수단으로 이런 사실들을 알아내신 겁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틀림없는 사실들입니다."

"아, 운이 좋았군요. 저는 그저 확률상 어느 쪽이 더 가능성이 높은지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맞힐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저 짐작으로 하신 건 아니겠지요?"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저는 결코 추측하지 않습니다. 추측은 논리적 사고력을 망가뜨리는 아주 나쁜 습관이니까요. 당신에게는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건 단지 당신이 제 사고 과정을 따라오지 못했거나, 거대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작은 사실들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저는 당신의 형님이 부주의하다는 말부터 시작했습니다. 시계 케이스의 아랫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단순히 두 군데가 움푹 들어간 것뿐만 아니라 표면 전체에 흠집과 자국이 가득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동전이나 열쇠 같은 딱딱한 물건들을 같은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습관 때문에 생긴 자국들이죠. 50기니나 하는 시계를 이토록 함부로 다루는 사람이라면 부주의한 사람이라고 단정 짓는 게 그리 대단한 일입니까? 또한, 그렇게 귀한 물건을 상속받은 사람이라면 다른 생활 형편도 꽤 넉넉할 것이라는 추론 역시 전혀 억지스럽지 않습니다."

나는 그의 논리를 잘 따라가고 있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영국 전당포에서는 시계를 맡길 때 시계 케이스 안쪽에 핀 끝으로 전표 번호를 새겨두는 것이 관례입니다. 라벨을 붙이는 것보다 훨씬 편

리하죠. 번호가 떨어져 나갈 염려도 없고, 숫자가 뒤바뀔 위험도 없으니까요. 제 돋보기로 이 케이스 안쪽을 보니 그런 번호가 적어도 네 개는 보입니다.

첫 번째 추론은 이렇습니다. 귀하의 형님은 평소 형편이 매우 어려웠을 겁니다. 두 번째 추론은, 그가 가끔씩 큰돈을 만질 때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맡겼던 시계를 다시 찾아올 수 없었을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열쇠 구멍이 있는 안쪽 판을 좀 보십시오. 구멍 주변에 수천 개의 긁힌 자국이 보이지 않습니까? 열쇠를 돌리다 미끄러지면서 생긴 흔적들입니다. 제정신인 사람의 열쇠가 어떻게 이런 홈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술꾼의 시계에서는 이런 흔적을 아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밤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손으로 시계 태엽을 감다 보니 이런 흔적이 남는 것이죠. 이 모든 사실에 대체 무슨 신비로운 점이 있다는 말입니까?"

"대낮처럼 명백합니다." 내가 대답했다. "제가 당신에게 불공평하게 굴었던 점,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신의 그 경이로운 능력에 좀 더 믿음을 가졌어야 했는데 말입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지금 진행 중인 의뢰가 있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네. 그래서 코카인을 하는 거야. 난 두뇌를 쓰지 않고는 못 배기거든. 머리를 쓰지 않고 살아서 무엇하겠나? 여기 창가로 와서 좀 보게. 세상이 이토록 지루하고, 음울하고, 무익할 수 있나? 저 노란 안개가 거리 아래로 소용돌이치며 칙칙한 색의 집들 사이로 흘러가는

걸 보게나. 이보다 더 절망적일 만큼 평범하고 세속적인 풍경이 또 어디 있겠나? 박사, 능력이 있어 봐야 무슨 소용인가? 그 능력을 발휘할 무대조차 없는데 말이야. 범죄도, 삶도, 그저 흔해 빠진 것들뿐이라네. 세상에는 그저 흔해 빠진 자질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쓸모가 없군."

내가 이 비난 섞인 말을 받아치려고 입을 열었을 때였다. 그때 문을 똑똑 두드리는 명쾌한 소리와 함께 집주인 아주머니가 들어왔다. 아주머니의 손에는 놋쇠 쟁반 위에 놓인 명함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손님을 찾아온 젊은 숙녀분이 계십니다." 허드슨 부인이 내 동료를 향해 말했다.

"메리 모스턴 양이라." 그가 읽어 내려갔다. "흠!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군. 허드슨 부인, 저 아가씨를 이쪽으로 모셔 오게. 박사, 가지 말게나. 자네가 여기 같이 있어 주면 좋겠군."

제2장 사건의 경위

제2장 사건의 경위

모스턴 양은 단호한 발걸음으로, 겉으로는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며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금발의 젊은 여성이었다. 체구는 작고 아담했으며, 장갑을 정갈하게 끼고 아주 세련된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옷차림이 지나치게 수수하고 단순해서,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않음을 짐작게 했다. 드레스는 장식이나 자수가 없는 어두운 회갈색이었고, 머리에 쓴 작은 터번 역시 같은 색조의 칙칙한 빛깔이었는데, 옆에 꽂은 하얀 깃털만이 겨우 생기를 더해주고 있었다. 이목구비가 뚜렷하거나 피부가 아름다운 편은 아니었으나, 표정만큼은 상냥하고 다정했다. 특히 커다란 푸른 눈동자는 유달리 영적이고 공감 능력이 있어 보였다. 여러 나라와 세 대륙을 거치며 수많은 여성을 겪어온 내 경험에 비추어 보아도, 이토록 고결하고 섬세한 성품을 예감케 하는 얼굴은 본 적이 없었다. 셜록 홈즈가 권하는 자리에 앉을 때, 그녀의 입술이 떨리고 손이 가늘게 흔들리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내면이 몹시 요동치고 있음을 온몸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홈즈 씨, 당신을 찾아온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예전에 당신께서 제 고용인이신 세실 포레스터 부인의 사소한 가정 문제를 해결해 주신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인께서는 당신의 친절함과 탁월한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으셨거든요."

"세실 포레스터 부인이라." 그가 생각에 잠긴 듯 말을 되풀이했다. "그분께 아주 작은 도움이라도 드렸던 것 같군요. 하지만 제가 기억하기로 그 사건은 아주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적어도 제 상황에 대해서는 당신도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제가 처한 이 상황보다 더 기이하고, 도저히 설명할 길 없는 일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니까요."

홈즈는 두 손을 비비더니 눈을 반짝였다. 그는 의자 깊숙이 몸을 기울였다. 매와 같이 날카로운 이목구비에는 유례없이 강렬한 집중력이 서려 있었다.

"사건을 말씀해 보시오."

홈즈가 활기차고 사무적인 어조로 말했다.

내 처지가 참으로 난처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의자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부디 너그러이 이해해 주게."

깜짝 놀랍게도, 젊은 여성은 장갑을 낀 손을 들어 나를 멈춰 세웠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그녀가 말했다. "친구분께서 잠시만 멈춰 주신다면, 제게 헤아릴 수 없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의자에 몸을 깊숙이 파묻었다.

"요점만 말씀드리자면," 그녀가 말을 이었다. "사정은 이렇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인도 연대의 장교셨는데, 제가 아주 어릴 때 저를 영국으로 보내셨어요. 어머니는 돌아가신 상태였고, 영국에는 연고가 전혀 없었죠. 하지만 에든버러에 있는 안락한 기숙 학교에 맡겨졌고, 열일곱 살이 될 때까지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다 1878년, 연대의 선임 대위였던 아버지가 12개월간의 휴가를 얻어 영국으로 돌아오셨어요. 아버지는 런던에 무사히 도착했다는 전보를 보내시며, 랭엄 호텔로 즉시 오라고 하셨죠. 제 기억에 그 메시지에는 다정함과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런던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랭엄 호텔로 향했습니다. 모스턴 대위님이 그곳에 머물고 계시지만, 어젯밤 외출하신 뒤 아직 돌아오지 않으셨다는 답변을 들었죠. 하루 종일 기다렸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지배인의 권유로 경찰에 연락했고, 다음 날 아침에는 모든 신문에 실종 광고를 냈습니다. 하지만 수색은 아무런 성과가 없었어요. 그날 이후 지금까지, 불행한 아버지에 대한 소식은 단 한 마디도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평온과 안식을 찾겠다는 희망에 부풀어 고국으로 돌아오셨는데, 정작 마주한 것은—" 그녀는 목에 손을 얹었다. 울컥 치밀어 오르는 흐느낌에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날짜는?" 홈즈가 수첩을 펼치며 물었다.

"그는 1878년 12월 3일에 사라졌습니다. 거의 10년 전의 일이지요."

"그의 짐은요?"

"호텔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단서라고 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옷가지와 책 몇 권, 그리고 안다만 제도에서 가져온 온갖 진기한 골동품들이 꽤 많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죄수들을 감시하던 관리관 중 한 명이었습니다."

"런던에 친구라도 있었습니까?"

"우리가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뿐입니다. 아버지와 같은 연대인 제34 봄베이 보병 연대 소속이었던 솔토 소령이지요. 소령은 얼마 전 전역해서 어퍼 노우드에 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연락을 취해 보았습니다만, 그는 자신의 동료 장교가 영국에 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기묘한 사건이군." 홈즈가 말했다.

"가장 기묘한 부분은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정확히 6년 전인 1882년 5월 4일이었죠. 《타임스》 지에 광고 하나가 실렸어요. 메리 모스턴 양의 주소를 찾는다는 내용이었는데, 그녀가 직접 나서서 연락을 취하는 게 좋을 거라는 말도 덧붙여져 있었죠. 하지만 발신인의 이름이나 주소는 적혀 있지 않았어요.

당시 저는 세실 포레스터 부인 댁의 가정교사로 막 일을 시작한 참이었어요. 부인의 조언에 따라 광고의 연락처란에 제 주소를 적어 넣었죠. 그런데 그날 바로 우편함에 제 이름이 적힌 작은 상자 하나가 도착했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아주 크고 윤기가 흐르는 진주가 들어 있더군요. 편지 한 장 없었고요.

그날 이후로 매년 같은 날짜만 되면 비슷한 상자가 배달돼요. 안에는 늘 똑같은 진주가 들어 있지만,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는 전혀 알 길이 없죠. 전문가의 말로는 아주 희귀한 종류에 값어치도 상당하다고 해요. 직접 보시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실 거예요."

그녀는 말을 하며 납작한 상자를 열어 보였다. 그 안에는 내가 평생 본 것 중 가장 훌륭한 진주 여섯 알이 들어 있었다.

"당신의 진술은 아주 흥미롭군요." 셜록 홈즈가 말했다. "그 외에 더 떠오르는 건 없습니까?"

"네, 그것도 바로 오늘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당신을 찾아온 것이고요. 오늘 아침에 이 편지를 받았는데, 직접 읽어보시는 게 좋겠군요."

"고맙습니다." 홈즈가 말했다. "봉투도 같이 주십시오. 소인은 런던 S.W. 지역, 날짜는 7월 7일. 흠, 모서리에 찍힌 건 사람의 엄지 지문이군요. 아마 우체부겠지요. 종이 질이 아주 좋습니다. 봉투 한 꾸러미에 6펜스나 하는 고급지군요. 문구류 하나에도 신경을 쓰는 사람입니다. 주소는 없군요. '오늘 저녁 7시, 라이시엄 극장 밖 왼쪽에서 세 번째 기둥 앞으로 오십시오. 의심스럽다면 친구 두 명을 데려와도 좋습니다. 당신은 억울한 일을 당한 여인이니, 반드시 정의를 실현해 드리겠습니다. 경찰은 데려오지 마십시오. 만약 경찰을 데려온다면 모든 일은 수포로 돌아갈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 모를 친구로부터.' 허, 이거 정말 근사하고 흥미로운 수수께끼군요. 모스턴 양,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그게 바로 제가 당신에게 묻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가야지요. 당신과 나, 그리고—아, 맞다. 왓슨 박사가 제격이겠군요. 편지를 보낸 사람이 친구 두 명이라고 했으니 말입니다. 그와 나는 전에도 함께 일한 적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분이 정말 오실까요?" 그녀가 간절함이 담긴 목소리와 표정으로 물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제게는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자 기쁨일 것입니다." 내가 간절하게 말했다.

"두 분 다 정말 친절하시네요." 그녀가 대답했다. "저는 사람들과 떨어져 조용히 지내온 터라, 도움을 청할 만한 친구가 한 명도 없답니다. 그럼, 여섯 시까지 이곳으로 오면 될까요?"

"늦어서는 안 되네." 홈즈가 말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확인할 게 있네. 이 필체가 진주 상자에 적힌 주소의 필체와 같은가?"

"여기 있어요." 그녀는 종이 여섯 장을 꺼내 보이며 대답했다.

"참으로 모범적인 의뢰인이십니다. 직감이 아주 정확하시군요. 자, 어디 봅시다." 홈즈는 탁자 위에 서류들을 펼쳐 놓고는, 서류 하나하나를 날카로운 눈빛으로 훑어 내려갔다. "편지를 제외하면 모두 필체를 위장한 것이군요." 잠시 후 그가 말했다. "하지만 누가 썼는지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여기 보세요. 억누르려 해도 튀어나오는 그리스어식 'e'의 필체와, 마지막 's'를 휘둘러 쓴 모양을 보십시오. 이건 분명

한 사람이 쓴 겁니다. 모스턴 양, 섣부른 희망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이 글씨체가 당신 부친의 필체와 닮은 구석이 있습니까?"

"그보다 더 상반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럼 여섯 시에 뵙도록 하죠. 실례가 안 된다면 서류는 제가 보관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사건을 미리 좀 살펴볼 수도 있으니까요. 아직 세 시 반밖에 안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다음에 뵙기를."

방문객은 우리 둘을 번갈아 보며 밝고 친절한 눈빛을 건넸다. 그러고는 진주 상자를 품속에 갈무리한 채 서둘러 떠나갔다. 나는 창가에 서서 그녀가 거리를 활기차게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회색 터번과 흰 깃털이 어두운 인파 속에서 한 점 점처럼 보일 때까지 그녀는 계속 걸어갔다.

"정말 매력적인 여성분이군요!" 나는 동행인에게 몸을 돌리며 외쳤다.

그는 다시 파이프에 불을 붙이고는 눈꺼풀을 늘어뜨린 채 몸을 뒤로 기댔다. "그렇단 말인가?" 그가 나른하게 말했다. "미처 몰랐군."

"당신은 정말이지 자동인형 같군. 마치 계산기 같아!" 내가 외쳤다. "가끔은 사람 같지 않은 면이 있어."

그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개인적인 성격 때문에 판단이 흐려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홈즈가 말했다. “나에게 의뢰인이란 그저 하나의 단위이자,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요소일 뿐입니다. 감정적인 요소는 명료한 추론을 방해하니까요. 장담컨대, 내가 아는 사람 중 가장 매력적이었던 여인은 보험금을 노리고 어린아이 셋을 독살한 죄로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반대로 내가 아는 사람 중 가장 불쾌한 남자는 런던의 빈민들을 위해 25만 파운드 가까운 돈을 쏟아부은 자선사업가였지요.”

“하지만 이번 사건은 다릅니다—”

“난 예외를 두지 않네. 예외가 생기는 순간 규칙은 무너지는 법이니까. 자네, 필적을 통해 사람의 성격을 분석해 본 적이 있나? 이 친구의 휘갈겨 쓴 글씨를 보니 어떤 것 같나?”

“글씨는 알아보기 쉽고 정갈합니다.” 내가 대답했다. “업무에 익숙하고 성격도 꽤 강단 있는 사람 같군요.”

홈즈가 고개를 저었다. “이 사람의 긴 글자들을 보게.” 홈즈가 말했다. “평범한 무리에서 거의 벗어나질 못하는군. 저 ‘d’는 ‘a’일 수도 있고, 저 ‘l’은 ‘e’일 수도 있네. 인격이 뚜렷한 사람들은 글씨를 아무리 알아보기 힘들게 쓰더라도 긴 글자에서 자신만의 특징을 드러내기 마련이지. 이 사람의 소문자 ‘k’에는 망설임이 서려 있고, 대문자에는 자부심이 느껴지네. 나는 이제 좀 나가봐야겠어. 몇 군데 확인해 볼 곳이 있거든. 가는 길에 이 책을 한 권 추천하지. 지금까지 쓰인 책 중 가장

놀라운 작품 중 하나라네. 윈우드 리드의 '인류의 순교(Martyrdom of Man)'라는 책이지. 한 시간 뒤에 돌아오겠네."

나는 책 한 권을 손에 든 채 창가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내 생각은 작가가 늘어놓은 대담한 추측 따위에는 전혀 가닿지 않았다. 내 마음은 방금 떠난 그 여인에게 머물러 있었다. 그녀의 미소, 깊고 풍부한 목소리 톤, 그리고 그녀의 삶을 짓누르던 기묘한 미스터리까지. 아버지가 실종되었을 때 그녀가 열일곱 살이었다면, 지금은 스물일곱 살쯤 되었을 것이다. 청춘의 서투른 자의식이 사라지고 경험을 통해 조금은 차분해지는, 참으로 아름다운 나이다.

나는 그렇게 멍하니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러다 문득 위험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쳤고, 나는 서둘러 책상으로 달려가 최근에 나온 병리학 논문을 미친 듯이 파고들었다. 다리도 불편하고 통장 잔고도 빈약한 군의관인 내가, 감히 그런 생각을 품어도 되는 것일까? 그녀는 그저 하나의 사례이자 사건의 요소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만약 내 앞날이 암담하다면, 헛된 상상으로 희망을 꾸며내기보다는 차라리 사내답게 그 현실을 직시하는 편이 나을 터였다.

제3장 해결을 향한 탐색

제3장 해결을 향한 탐색

홈즈가 돌아온 것은 다섯 시 반이 넘어서였다. 그는 생기가 넘쳤고 의욕적이었으며 기분도 아주 좋아 보였다. 홈즈에게 이런 모습은 극심한 우울감에 빠져드는 순간과 번갈아 나타나곤 했다.

"이 일에 대단한 미스터리는 없네."

그는 내가 따라 준 찻잔을 건네받으며 말했다.

"사실들을 따져보면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뿐인 것 같군."

"뭐라고요! 벌써 다 풀어내셨단 말입니까?"

"글쎄요, 그렇게 말하기엔 너무 거창하군요. 그저 시사하는 바가 큰 사실을 하나 발견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아주, 아주 중요한 사실이지요.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더 확인해야 합니다. 방금 《타임스》지의 과거 기록을 찾아봤는데, 어퍼 노우드의 숄토 소령이 1882년 4월 28일

에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는 예전에 제34 봄베이 보병 연대에 복무했었지요."

"홈즈, 내가 아주 둔한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도무지 모르겠군."

"아니라고요? 의외군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보십시오. 모스턴 대위가 사라졌습니다. 그가 런던에서 만날 수 있었던 유일한 인물은 숄토 소령뿐이었죠. 그런데 숄토 소령은 모스턴 대위가 런던에 왔다는 소식조차 듣지 못했다고 잡아뗍니다. 그러다 4년 뒤 숄토 소령이 사망합니다. 소령이 죽고 나서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모스턴 대위의 딸에게 값비싼 선물이 배달되기 시작합니다. 이 선물은 매년 반복해서 도착하더니, 이제는 그녀를 '억울한 처지에 놓인 여인'이라고 묘사하는 편지까지 곁들여졌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이 상실 말고 그녀가 겪은 또 다른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숄토 소령의 상속인이 이 미스터리에 대해 무언가 알고 있어서 보상해주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왜 하필 소령이 죽자마자 선물이 시작된 것이겠습니까? 이 사실들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이론이라도 있습니까?"

"하지만 이 얼마나 기묘한 보상입니까! 게다가 그 방식 또한 너무나 이상하군요. 왜 하필 6년 전이 아니라 지금에 와서 편지를 쓴 걸까요? 게다가 편지에는 그녀에게 정의를 실현해 주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대체 그녀가 어떤 정의를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녀의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다고 가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아는 바로는, 그녀의 사연에서 이 외에 다른 불의란 없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긴 하군요.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셜록 홈즈가 생각에 잠긴 듯 말했다. "하지만 오늘 밤 우리의 조사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겁니다. 아, 저기 사륜마차가 오고 있군요. 메리 모스턴 양이 타고 있습니다. 모두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이제 내려가도록 하죠. 약속한 시간이 조금 지났으니까요."

나는 모자와 가장 튼튼한 지팡이를 집어 들었다. 그사이 홈즈가 서랍에서 리볼버를 꺼내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오늘 밤 우리가 맡을 일이 꽤나 심각한 사건이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분명하게 들었다.

모스턴 양은 어두운 망토를 두르고 있었다. 예민한 안색은 차분해 보였으나 창백했다. 우리가 시작하려는 이 기묘한 일에 대해 그녀가 불안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면, 그녀는 분명 평범한 여인 그 이상일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완벽하게 평정심을 유지했고, 셜록 홈즈가 던지는 몇 가지 추가 질문에도 막힘없이 대답했다.

"숄토 소령님은 아버지의 아주 각별한 친구셨어요." 그녀가 말했다. "아버지의 편지들을 보면 소령님에 대한 암시가 가득했죠. 두 분은 안다만 제도에서 함께 군대를 지휘하셨기에, 함께 보내는 시간이 아주 많으셨거든요. 아, 참, 아버지의 책상에서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기묘한 종이 한 장이 발견되었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물건일 것 같긴 하지만, 혹시 모르니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가져왔어요. 여기 있어요."

홈즈는 종이를 조심스럽게 펼쳐 무릎 위에 평평하게 펴 놓았다. 그러고는 돋보기를 들고 종이 구석구석을 아주 체계적으로 살피기 시작했다.

"인도 현지에서 만든 종이군요." 홈즈가 말했다. "언젠가 게시판 같은 곳에 핀으로 고정해 두었던 모양입니다. 종이에 그려진 도표는 수많은 홀과 복도, 통로로 이루어진 커다란 건물의 일부를 그린 평면도 같습니다. 어느 한 지점에는 붉은 잉크로 작은 십자가가 그려져 있고, 그 위에는 빛바랜 연필 글씨로 '왼쪽에서 3.37'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왼쪽 모서리에는 네 개의 십자가가 서로 팔을 맞댄 채 일렬로 늘어선 기묘한 상형문자가 보입니다. 그 옆에는 아주 거칠고 투박한 글씨로 '네 사람의 서명—조너선 스몰, 마호메트 싱, 압둘라 칸, 도스트 아크바르'라고 쓰여 있군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이 내용이 이번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 중요한 문서임은 틀림없습니다. 한쪽 면이 다른 쪽만큼이나 깨끗한 걸 보니, 수첩 속에 아주 소중히 보관해 온 모양입니다."

"우리가 그걸 발견한 곳도 바로 아버지의 수첩 안이었어요."

"그럼 잘 보관해 두세요, 모스턴 양. 분명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사건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한 속사정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드는군요. 기존의 판단을 다시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홈즈는 마차 좌석에 몸을 기댔다. 잔뜩 찌푸린 미간과 초점 없는 눈동자를 보니 그가 무언가에 깊이 몰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

다. 모스턴 양과 나는 이번 조사의 내용과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동행한 홈즈는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좀처럼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다.

9월의 어느 저녁이었다. 아직 일곱 시도 되지 않았지만, 하루 종일 날씨가 음산하더니 거대한 도시 위로 짙은 이슬비와 안개가 낮게 깔려 있었다. 진흙 빛깔의 구름은 진흙탕이 된 거리 위로 쓸쓸하게 드리워져 있었다. 스트랜드 거리를 따라 늘어선 가로등은 희뿌연 빛 덩어리에 불과했다. 그 빛은 미끈거리는 보도 위로 힘없는 원형의 광채를 겨우 비추고 있었다. 상점 유리창에서 흘러나오는 노란 불빛은 증기가 가득한 공기 속으로 번져 나갔고, 사람들로 북적이는 대로 위로 어둡고 일렁이는 빛을 뿌렸다. 좁은 빛의 줄기 사이로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얼굴은 내 눈에 마치 유령처럼 기괴하게 보였다. 슬픈 얼굴과 기쁜 얼굴, 초췌한 얼굴과 즐거운 얼굴이 끝없이 이어졌다. 모든 인간이 그렇듯, 그들은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타났다가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나는 평소 감상에 잘 젖는 편이 아니지만, 이 지루하고 무거운 저녁 분위기와 우리가 맡은 기묘한 사건이 맞물려 나를 초조하고 우울하게 만들었다. 모스턴 양의 태도를 보니 그녀 역시 나와 같은 기분을 느끼고 있는 듯했다. 오직 홈즈만이 이런 사소한 영향력에 휘둘리지 않고 의연했다. 그는 무릎 위에 펼쳐진 수첩을 올려둔 채, 휴대용 랜턴 불빛에 의지해 이따금 숫자와 메모를 적어 내려갔다.

라이시엄 극장의 측면 입구에는 이미 인파가 북적이고 있었다. 정면에서는 한섬(hansom)과 사륜마차가 끊임없이 달려들며, 빳빳한 셔츠를 차려입은 신사들과 화려한 숄을 두르고 보석을 치장한 여인들을 쉴

새 없이 내려놓았다. 우리가 만나기로 한 장소인 세 번째 기둥에 겨우 도착했을 무렵, 마부 차림을 한 작고 검은 체구의 활기찬 사내가 우리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메리 모스턴 양과 함께 오신 분들이 맞습니까?” 그가 물었다.

“저는 모스턴 양입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은 제 친구들이고요.” 그녀가 말했다.

그는 놀라울 정도로 예리하고 탐구적인 눈빛을 우리에게 고정하며 몸을 기울였다. "실례하겠습니다, 아가씨." 그가 다소 완강한 태도로 말했다. "하지만 동행하신 두 분 중 어느 누구도 경찰관이 아니라는 약속을 꼭 받아야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 명예를 걸고 약속하죠.” 그녀가 대답했다.

그가 날카로운 휘파람을 불자, 거리의 부랑아 한 명이 사륜마차를 끌고 와 문을 열었다. 우리에게 말을 걸었던 남자는 마차 앞좌석에 올라탔고, 우리는 마차 안으로 자리를 잡았다. 자리에 앉기가 무섭게 마부는 채찍을 휘둘러 말을 몰았다. 마차는 안개 자욱한 거리를 뚫고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기 시작했다.

상황은 기묘했다. 우리는 목적지도, 용건도 모른 채 차를 타고 달리고 있었다. 이번 만남이 완전히 속임수일 가능성도 있었으나, 그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가설이었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여정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달려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모스턴 양의 태도는 평소처럼 단호하고 침착했다. 나는 아프가니스탄에서 겪었던 모험담을 들려주며 그녀의 기운을 북돋우고 지루함을 달래려 애썼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나 역시 이 상황에 흥분한 데다 목적지가 어디인지 몹시 궁금했기에 이야기가 다소 횡설수설했다. 지금까지도 그녀는 내가 한 가지 아주 극적인 일화를 들려주었다고 말하곤 한다. 한밤중에 머스킷 총 한 자루가 내 텐트 안을 들여다봤고, 내가 그것을 향해 쌍열식 새끼 호랑이를 쏘았다는 이야기 말이다.

처음에는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대강 짐작이 갔다. 하지만 곧 빠른 속도와 자욱한 안개, 그리고 런던 지리에 어두운 내 한계 때문에 방향 감각을 잃고 말았다. 그저 우리가 아주 먼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 외에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셜록 홈즈는 결코 길을 잃는 법이 없었다. 마차가 광장을 가로지르고 구불구불한 골목길을 들락날락할 때마다, 홈즈는 나직하게 지명들을 읊조렸다.

"로체스터 로우를 지났군." 그가 말했다. "다음은 빈센트 스퀘어. 이제 벡스홀 브리지 로드로 접어들었어. 보아하니 서리 쪽으로 가고 있군. 그래, 내 생각이 맞았어. 이제 다리 위야. 강물이 언뜻언뜻 보이지?"

우리는 넓고 고요한 템스강 위로 가로등 불빛이 일렁이는 모습을 아주 잠깐 보았다. 하지만 마차는 멈추지 않고 질주했고, 이내 강 건너편의 미로 같은 골목길 사이로 빠져들었다.

"워즈워스 로드, 프라이어 로드, 라크 홀 레인, 스톡웰 플레이스, 로버트 스트리트, 콜드 하버 레인이라." 내 동행인이 말했다. "우리의 탐색은 그리 세련된 동네로 이어지지는 않을 모양이군."

우리는 참으로 의심스럽고도 을씨년스러운 동네에 들어서고 있었다. 칙칙한 벽돌집들이 길게 늘어선 풍경 속에서, 모퉁이에 자리 잡은 술집들의 거칠고 번지르르한 불빛만이 간신히 눈을 떼게 할 뿐이었다. 이어 작은 정원을 앞에 둔 2층짜리 빌라들이 줄지어 나타나더니, 다시 끝도 없이 새로운 벽돌 건물들이 이어졌다. 마치 거대한 도시가 시골 쪽으로 뻗어 나가는 괴물 같은 촉수 같았다.

마침내 마차가 새로 지은 연립주택의 세 번째 집 앞에 멈춰 섰다. 주변의 다른 집들은 모두 비어 있었고, 우리가 멈춘 집 역시 주방 창문에서 새어 나오는 희미한 불빛 하나를 제외하면 이웃집들처럼 어둡기만 했다. 하지만 우리가 문을 두드리자마자, 노란 터번을 쓰고 헐렁한 흰 옷에 노란 허리띠를 두른 힌두인 하인이 즉시 문을 열어젖혔다. 변변치 않은 교외 주택의 평범한 문틈 사이로 나타난 이 이국적인 모습은 무언가 기묘할 정도로 어울리지 않았다.

"주인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가 말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안쪽 방에서 날카롭고 높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키트무트가르, 그들을 내게 안내해라!" 그 목소리가 외쳤다. "곧장 내게로 안내해!"

제4장 대머리 사내의 이야기

제4장 대머리 사내의 이야기

우리는 그 인도인을 따라 지저분하고 평범한 통로를 내려갔다. 조명은 어두웠고 가구들은 형편없었다. 통로 끝에서 그가 오른편에 있는 문 하나를 거칠게 열어젖혔다. 문이 열리자 눈부신 노란 빛이 우리 쪽으로 쏟아져 나왔다. 그 강렬한 빛의 한가운데에 작은 체구의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머리 윗부분이 아주 높았는데, 이마를 따라 붉은 머리카락이 뻣뻣하게 돋아나 있었고, 그 사이로 대머리인 정수리가 번들거렸다. 마치 전나무 사이로 솟아오른 산봉우리 같은 모습이었다. 그는 서 있는 내내 손을 꼼지락거렸고, 얼굴 근육은 쉴 새 없이 움찔거렸다. 웃다가도 금세 험악한 표정을 지었으며, 단 한 순간도 표정이 평온한 법이 없었다. 그는 아래로 처진 입술을 가졌는데, 그 사이로 누렇고 고르지 않은 치아가 너무 훤히 들여다보였다. 그는 손으로 얼굴 아랫부분을 끊임없이 가리며 그 치아를 숨기려 애썼다. 눈에 띄는 대머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젊어 보이는 인상이었다. 사실 그는 이제 막 서른 살이 된 참이었다.

"모스턴 양, 당신의 하인입니다." 그는 가늘고 높은 목소리로 계속해서 말을 되풀이했다. "신사 여러분, 당신들의 하인입니다. 부디 제 작은 은신처로 들어오시지요. 아가씨, 비록 좁은 곳이지만 제 취향대로 꾸며두었습니다. 남런던이라는 거친 사막 속에 자리 잡은 예술의 오아시스 같은 곳이지요."

그가 우리를 안내한 방의 모습에 우리는 모두 깜짝 놀랐다. 초라한 집의 외관과는 달리, 그 방은 마치 놋쇠 받침 위에 놓인 최상급 다이아몬드처럼 전혀 어울리지 않을 만큼 화려했다. 벽면에는 가장 고급스럽고 윤기가 흐르는 커튼과 태피스트리가 드리워져 있었는데, 곳곳에 커튼을 걷어 올려 화려한 액자 속 그림이나 동양식 도자기가 드러나게 해두었다. 바닥에는 호박색과 검은색이 섞인 카펫이 깔려 있었는데, 마치 이끼 침대처럼 발이 기분 좋게 푹 파묻힐 정도로 부드럽고 두툼했다. 카펫 위에는 커다란 호랑이 가죽 두 장이 가로질러 놓여 있어 동양적인 사치스러움을 더했고, 구석진 곳 매트 위에는 거대한 물담배가 놓여 있었다. 방 중앙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 금색 줄에 은빛 비둘기 모양의 등불이 매달려 있었다. 등불이 타오를 때마다 방 안에는 은은하고 향긋한 냄새가 가득 퍼졌다.

"새디어스 숄토라고 합니다." 작은 체구의 남자가 여전히 몸을 움찔거리며 미소를 지은 채 말했다. "제 이름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모스턴 양이시군요. 그리고 이 신사분들은—"

"이쪽은 셜록 홈즈 씨이고, 이쪽은 왓슨 박사입니다."

"의사라고요?" 그가 흥분한 기색으로 외쳤다. "청진기는 가져오셨습니까? 실례가 안 된다면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제 승모판 상태가 무척 걱정되는데, 괜찮으시다면 한 번 봐주셨으면 합니다. 대동맥 쪽은 믿을 만하지만, 승모판에 대해서는 당신의 의견을 꼭 듣고 싶군요."

요청하신 대로 그의 심장 소리를 들었으나, 별다른 이상은 발견할 수 없었다. 다만 그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떨고 있는 것을 보니, 공포에 질려 극도의 흥분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만 알 수 있었다.

"정상인 것 같습니다." 내가 말했다. "불안해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모스턴 양, 제가 너무 안달복달하는 것처럼 보였다면 용서하십시오." 그가 가볍게 말을 이었다. "저는 늘 병으로 크게 고생하는 사람이라, 그 판막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의심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소식을 들으니 정말 다행이군요. 모스턴 양, 만약 당신의 아버님께서 심장에 무리가 가는 일을 피하셨더라면, 아마 지금쯤 살아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그토록 섬세한 사안을 무심하고도 막무가내로 언급하는 태도에 나는 너무도 화가 치밀어, 당장이라도 그자의 뺨을 후려치고 싶은 심정이었다. 메리 모스턴 양은 자리에 주저앉았고, 그녀의 얼굴은 입술까지 하얗게 질려갔다.

"그가 죽었다는 걸 마음속 깊이 알고 있었어요." 그녀가 말했다.

"제가 모든 정보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게다가 여러분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해 드릴 수도 있죠. 바살러뮤 형님이 뭐라고 하시든 저는 반드시 그렇게 할 겁니다. 당신의 친구분들이 이곳에 와 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당신을 보호해 줄 호위병 역할뿐만 아니라, 제가 앞으로 무엇을 하고 어떤 말을 할지 지켜봐 줄 증인이 되어 주실 테니까요. 우리 세 사람이 힘을 합치면 바살러뮤 형님 앞에서도 당당히 맞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외부인은 절대 들이지 맙시다. 경찰이나 관리들도 말입니다. 누구의 간섭도 없이 우리끼리만 충분히 만족스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살러뮤 형님은 일이 밖으로 알려지는 것을 무엇보다 싫어하실 테니까요." 그는 낮은 소파에 앉으며, 힘없고 흐릿한 푸른 눈으로 우리를 살피듯 깜빡거렸다.

"제 입장에서는," 홈즈가 말했다. "당신이 무엇을 말하든, 이 방 밖으로 새어 나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나는 동의한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가 말했다. "모스턴 양, 키안티 와인 한 잔 어떠십니까? 아니면 토카이 와인은요? 집에 다른 술은 따로 두지 않아서 말입니다. 한 병 따 드릴까요? 아니라고요? 그럼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동양 담배 특유의 은은한 향이 좀 날 겁니다. 제가 지금 신경이 좀 예민한 상태라, 이 물담배가 마음을 진정시키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는 가느다란 심지로 커다란 담배통에 불을 붙였고, 장미수 사이로 연기가 경쾌하게 보글거리며 피어올랐다. 우리 세 사람은 몸을 앞으로

기울인 채 턱을 괴고 반원형으로 둘러앉았다. 그 사이에는 머리가 매끈하고 반짝이는 기이하고도 경망스러운 사내가 앉아, 불안한 기색으로 연기를 뿜어대고 있었다.

"처음 당신에게 연락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그가 말했다. "제 주소를 알려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제 요청을 무시하고 불쾌한 사람들을 데려올까 봐 두려웠지요. 그래서 제 수하인 윌리엄스가 당신을 먼저 만날 수 있도록 임의로 약속을 잡아두었습니다. 저는 그를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만약 그가 상황이 마땅치 않다고 판단하면, 더 이상 일을 진행하지 말라는 명령도 내려두었고요. 이런 조치를 취한 점은 양해해 주십시오. 저는 성격이 다소 내성적이고, 어쩌면 취향이 아주 세련되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 눈에는 경찰만큼 미적 감각을 해치는 존재도 없거든요. 저는 거친 물질주의적 성향을 본능적으로 멀리합니다. 거친 부류의 사람들과는 거의 접촉하지 않지요. 보시다시피 저는 어느 정도 우아한 분위기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예술의 후원자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지요. 그게 제 약점입니다. 저 풍경화는 진품 코로의 작품입니다. 저 살바토르 로사의 그림은 감식가라면 의구심을 품을 수도 있겠지만, 뷔게로의 작품만큼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현대 프랑스 화파를 선호하거든요."

"숄토 씨, 결례를 범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만," 모스턴 양이 말했다. "제가 이곳에 온 것은 당신의 요청에 따라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입니다. 시간이 이미 너무 늦었으니, 면담은 가급적 짧게 끝냈으면 합니다."

"아무리 잘 풀려도 시간이 좀 걸릴 걸세." 그가 대답했다. "노우드로 가서 바살러뮤 형님을 직접 만나봐야 하니까 말이야. 우리 모두 함께 가서, 바살러뮤 형님을 이겨낼 수 있을지 시도해 보세나. 내가 내 판단에 따라 행동한 것에 대해 형님은 나에게 몹시 화가 나 있거든. 어젯밤에는 그와 아주 격렬하게 언쟁을 벌였네. 형님이 화가 나면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람인지 자네는 상상도 못 할 거야."

"노우드로 가야 한다면, 지금 바로 출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그는 귀가 발갛게 달아오를 정도로 웃음을 터뜨렸다. "그건 안 될 말이지." 그가 외쳤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당신을 데려가면 그분이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군. 아니, 우선 우리가 서로 어떤 관계인지 설명해서 당신이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게 해야겠어. 무엇보다 먼저 말해두겠는데, 이 이야기에는 나조차도 모르는 부분이 몇 군데 있네.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사실만을 당신 앞에 펼쳐 놓을 수 있을 뿐이라네."

"짐작하셨겠지만, 저희 아버지는 인도군 장교였던 존 쇨토 소령님이셨습니다. 약 11년 전쯤 은퇴하신 뒤에는 어퍼 노우드의 폰디체리 로지로 거처를 옮기셨지요. 아버지는 인도에서 큰 성공을 거두셨습니다. 덕분에 막대한 자금과 귀한 골동품 수집품, 그리고 인도에서 데려온 하인들까지 거느리고 돌아오셨지요. 그 재력을 바탕으로 집을 사서 아주 호화롭게 생활하셨습니다. 저와 쌍둥이 형제인 바살러뮤, 이렇게 둘뿐인 자식이었고요."

"모스턴 대위가 사라졌을 때의 그 충격은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신문에 실린 상세한 기사들을 읽으며, 그분이 저희 아버지의 친구였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아버지 앞에서 이 사건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곤 했지요. 아버지께서도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저희와 함께 추측에 동참하시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그 모든 비밀을 가슴 깊이 숨기고 계셨으리라고는, 단 한 순간도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 중에서 오직 아버지만이 아서 모스턴의 운명을 알고 계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버님을 둘러싼 어떤 미스터리, 아니 분명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혼자 외출하는 것을 몹시 두려워하셨고, 폰디체리 로지의 짐꾼으로 항상 권투 선수 출신 두 명을 고용하셨지요. 오늘 밤 당신을 태워다 준 윌리엄스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한때 영국의 라이트급 챔피언이었죠. 아버님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저희에게 결코 말씀해 주지 않으셨지만, 의족을 한 사람을 보면 유독 강한 거부감을 보이셨습니다. 한번은 주문을 받으러 돌아다니던 무해한 상인을 의족을 한 사람으로 착각해, 아버님이 실제로 권총을 발사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 일을 조용히 덮으려 거액을 지불해야 했지요. 저와 형은 그저 아버님의 변덕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만, 이후 벌어진 일들을 보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1882년 초, 아버지는 인도에서 온 편지 한 통을 받고 큰 충격에 빠지셨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그 편지를 펼쳐 보시던 아버지는 거의 기절할 뻔하셨고, 그날 이후 병세가 악화되어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편지에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는 끝내 알 길이 없지만, 아버지

가 편지를 들고 계실 때 곁에서 지켜본 바로는 내용은 짧았고 글씨는 휘갈겨 쓴 듯했습니다. 아버지는 오랫동안 비장 비대증을 앓아 오셨으나, 그날 이후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4월 말 무렵에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고, 아버지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길 말을 전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의 방에 들어갔을 때, 그는 베개에 몸을 기댄 채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문을 잠그고 침대 양옆으로 와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고는 우리의 손을 움켜쥐더니, 고통 때문인지 격한 감정 때문인지 갈라진 목소리로 놀라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가 했던 말을 최대한 그대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 중대한 순간에 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이 딱 하나 있네." 그가 말했다. "그건 불쌍한 모스턴의 고아를 대하는 내 태도라네. 평생 나를 괴롭혀 온 저주스러운 탐욕 때문에, 그녀가 마땅히 받아야 할 보물의 절반을 가로막고 말았어. 하지만 정작 나는 그 보물을 단 한 번도 쓰지 못했네. 탐욕이란 이토록 눈멀고 어리석은 것이더군. 그저 내 소유라는 느낌 그 자체가 너무나 소중해서, 차마 다른 이와 나눌 수가 없었네. 여기 퀴닌 병 옆에 진주를 박아 만든 화관이 보이지? 그녀에게 보내주려고 꺼내 두었음에도, 나는 그 화관조차 차마 손에서 놓지 못했네. 아들들아, 너희는 그녀에게 아그라 보물의 정당한 몫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 하지만 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보내지 마라. 그 화관조차도 말이다. 결국, 사람들은 이보다 더 악한 짓을 저지르고도 다시 회복되곤 하니까."

"모스턴이 어떻게 죽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다. "그는 수년간 심장이 약해 고생해 왔지만, 누구에게도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오직 저만이 알고 있었지요. 인도에 있을 때, 기묘한 사건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그와 저는 막대한 보물을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보물을 영국으로 가져왔고, 모스턴이 도착하던 날 밤 그는 자신의 몫을 요구하러 곧장 이곳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역에서부터 걸어왔고, 지금은 죽은 나의 충직한 옛 하인 랄 초다르가 그를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보물을 어떻게 나눌지를 두고 모스턴과 제 의견이 갈렸고, 우리는 격렬한 언쟁을 벌였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른 모스턴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는 순간, 갑자기 옆구리를 움켜쥐더군요.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검푸르게 변하더니 뒤로 넘어갔고, 보물 상자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에게 다가가 확인했을 때, 그는 이미 숨져 있었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리고 말았습니다."

"한동안 나는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했다. 처음에는 당연히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다. 하지만 도움을 요청했다가는 내가 그를 살해했다는 의심을 살 게 뻔했다. 다투던 중에 그가 죽었다는 사실과 그의 머리에 난 상처는 나에게 매우 불리한 증거가 될 터였다. 게다가 공식적인 조사가 시작되면 보물에 관한 사실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나는 그 사실을 철저히 비밀로 지키고 싶었다. 그는 세상 그 누구도 자신이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내게 말했었다. 그리고 굳이 누군가가 그 사실을 알 필요도 없었다."

"그 문제에 대해 한참 고민하던 중, 문득 고개를 들었더니 하인 랄 초다르가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살금살금 안으로 들어오더니 뒤로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주인님." 그가 말했습니다. "주인님께서 그를 죽였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시체를 숨겨버립시다. 그러면 누가 알겠습니까?"

"내가 죽인 게 아니야." 내가 말했습니다.

랄 초다르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전부 들었습니다, 주인님." 그가 말했습니다. "주인님께서 다투시는 소리도 들었고, 타격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입은 무겁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모두 잠들었습니다. 자, 어서 함께 치워버립시다."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내 하인조차 나의 결백을 믿지 못하는데, 배심원석에 앉은 열두 명의 어리석은 상인들에게 어떻게 결백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날 밤 랄 초다르와 나는 시체를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런던 신문들은 모스턴 대위의 의문의 실종 사건으로 도배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이 일에 대해 저를 탓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되실 겁니다. 제 잘못은 시체뿐만 아니라 보물까지 숨겼다는 사실, 그리고 제 몫뿐만 아니라 모스턴의 몫까지 챙겼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보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제 입 가까이 귀를 대보십시오. 보물은 바로——"

그 순간, 그의 표정이 무섭게 변했다. 눈은 광기에 어린 듯 부릅떴고, 입은 떡 벌어졌다. 그는 평생 잊지 못할 비명 섞인 목소리로 울부짖었다. "그놈을 들여보내지 마! 제발, 제발 그놈을 들여보내지 마!"

우리 둘은 그가 응시하고 있는 등 뒤의 창문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얼굴이 창 너머로 우리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코가 유리창에 눌려 하얗게 변한 것까지 보일 정도였다. 수염이 덥수룩하고 털이 많은 얼굴이었으며, 눈빛은 잔인하게 번뜩였고 표정에는 악의가 가득했다.

형과 나는 창문을 향해 달려갔지만, 그 남자는 이미 사라진 뒤였다.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고개를 떨군 채 이미 숨이 멎어 있었다. 맥박도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다.

"그날 밤 우리는 정원을 샅샅이 뒤졌지만, 침입자의 흔적은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창문 바로 아래 화단에 발자국 하나가 선명하게 남겨져 있었을 뿐입니다. 그 흔적마저 없었다면, 우리는 그 거칠고 사나운 얼굴이 그저 우리의 상상이 만들어낸 환상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곧 우리는 우리 주변 어디에나 은밀한 움직임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훨씬 더 놀라운 증거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의 방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찬장과 상자들은 이미 샅샅이 뒤져져 있었고, 아버지의 가슴 위에는 종이 조각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네 사람의 서명'이라는 문구가 휘갈겨 써져 있었습니다.

그 문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혹은 그 비밀스러운 방문객이 누구였는지 우리는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모든 물건이 엉망으로 뒤집혀 있었음에도 아버지의 재산 중 실제로 도난당한 것은 없었습니다. 형과 나는 당연히 이 기이한 사건을 아버지가 생전에 겪었던 공포와 연관 지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여전히 우리에게 풀리지 않는 완전한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작은 체구의 남자는 물담배에 다시 불을 붙이려고 말을 멈추고, 생각에 잠긴 듯 몇 모금 빨아들였다. 우리 모두는 그의 기이한 이야기에 몰입해 있었다. 메리 모스턴 양은 아버지의 죽음에 관한 짧은 설명을 듣더니 안색이 창백하게 질렸다. 나는 그녀가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아 내심 걱정했다. 하지만 내가 옆 탁자에 놓인 베네치아제 유리병에서 조용히 물을 따라 건네자, 그녀는 물 한 잔을 마시고 간신히 기운을 차렸다. 셜록 홈즈는 초점 없는 표정으로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번뜩이는 눈을 가늘게 뜨고 있었다. 그를 힐끗 바라보며 나는 문득 오늘 낮에 그가 삶이 너무나 평범해서 지루하다고 불평하던 모습이 떠올랐다.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의 명석한 두뇌를 극한까지 시험할 만한 문제가 눈앞에 놓여 있었다. 새디어스 숄토 씨는 자신의 이야기가 불러일으킨 파장에 뿌듯함을 느끼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우리를 번갈아 쳐다보더니, 커다란 파이프를 한 모금씩 빨아들이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제 형과 저는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그 보물 때문에 몹시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그가 말했다. "상상하시겠지만, 우리는 보물이 어디 있는지 알아내려고 몇 주, 몇 달 동안 정원 구석구석을 파헤치고 뒤졌습

니다. 하지만 끝내 찾지 못했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 순간, 보물이 숨겨진 곳을 입가에 두고 계셨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정말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꺼내 보여주셨던 화관을 보면 그 사라진 보물들이 얼마나 찬란했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저와 형 바살러뮤는 그 화관을 두고 약간의 논쟁을 벌였습니다. 진주가 분명 엄청난 가치를 지녔기에 형은 그것을 내놓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로서 솔직히 말하자면, 제 형도 아버지의 그런 성미를 조금 닮았거든요. 게다가 형은 화관을 처분했다가는 소문이 퍼져 결국 우리에게 화가 미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겨우 형을 설득해낼 수 있었던 건, 메리 모스턴 양의 주소를 알아내서 정기적으로 진주를 하나씩 보내주기로 한 것뿐이었습니다. 적어도 그 여인이 굶주리는 일만큼은 없게 하려는 의도였지요."

"참으로 다정한 생각이었습니다." 동행인이 간곡하게 말했다. "정말 친절을 베풀어 주셨군요."

작은 체구의 남자는 사양한다는 듯 손을 내저었다.

"우리는 당신의 수탁자였습니다." 그가 말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형 바살러뮤는 제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돈은 충분했습니다. 저는 더 바랄 것이 없었지요. 게다가 젊은 숙녀를 그렇게 비열한 방식으로 대하는 건 정말 품위 없는 짓이 아니겠습니까? '나쁜 취향은 범죄로 이어진다(Le mauvais goût mène au crime).' 프랑스인들은 이런 상황을 아주 깔끔하게 표현하곤 하죠. 이 문제에 대한 견해 차이가 너무 커진 나머지, 저는 차라리 따로

방을 얻어 나가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늙은 하인과 윌리엄스를 데리고 폰디체리 로지를 떠났지요. 하지만 어제 아주 중대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로 보물이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즉시 모스턴 양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노우드로 달려가 우리 몫을 요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어젯밤 형 바살러뮤에게도 제 뜻을 설명해 두었으니, 우리가 방문한다고 해서 환영받지는 못할지언정 찾아올 거라는 사실은 알고 있을 겁니다."

새디어스 숄토는 말을 멈추고는 호화로운 소파에 앉아 몸을 떨었다. 우리 모두는 침묵을 지켰다. 이 신비로운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는 사실에 모두가 생각에 잠겼다. 가장 먼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사람은 홈즈였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그가 말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저희가 조금이라도 실마리를 찾아드린다면, 그게 작은 보답이 될 수 있겠지요. 하지만 방금 모스턴 양이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너무 늦었습니다. 지체하지 말고 바로 일을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새로 알게 된 그 사람은 아주 신중한 손길로 물담배 호스를 말아 정리했다. 그러고는 커튼 뒤에서 아스트라칸 모피로 깃과 소매를 장식한 아주 긴 코트를 꺼내 왔다. 밤공기가 무척이나 후덥지근했음에도 그는 코트 단추를 빈틈없이 꽉 채워 잠갔다. 이어 귀를 덮는 끈이 달린 토끼털 모자까지 눌러 쓰니, 끊임없이 움직이는 뾰족한 얼굴 외에는 몸의 어느 부분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복도를 앞장서 걸어가며 말했다. "제가 건강이 좀 허약해서 말입니다. 어쩔 수 없이 몸을 아주 극진히 보살피며 살아야 하거든요."

마차는 밖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일정은 이미 짜여 있었던 모양인지, 마부는 곧장 빠른 속도로 말의 고삐를 당겼다. 새디어스 솔토는 덜컹거리는 바퀴 소리를 뚫고 들릴 만큼 높은 목소리로 쉴 새 없이 말을 이어갔다.

“바살러뮤는 아주 영리한 친구였네.” 그가 말했다. “그가 보물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냈을 것 같나? 그는 보물이 건물 내부 어딘가에 있을 거라는 결론을 내렸지. 그래서 집 안의 모든 입체적인 공간을 계산하고 구석구석 치수를 쟀다네. 단 한 인치도 빠뜨리지 않으려고 말이야. 여러 계산 결과, 건물의 높이는 74피트라는 사실을 알아냈지. 하지만 그는 구멍을 뚫어 확인한 벽 사이의 간격까지 모두 고려해서 각 방의 높이를 전부 더해 보았는데도, 합계가 70피트를 넘지 못했다네. 4피트라는 차이가 생긴 거지. 이 차이는 건물 꼭대기에 있을 수밖에 없었네. 그래서 그는 가장 높은 방의 회반죽 천장에 구멍을 냈고, 정말로 그 위에서 아무도 모르게 봉인되어 있던 작은 다락방 하나를 찾아냈지. 그 다락방 중앙에는 두 개의 서까래 위에 보물 상자가 놓여 있었네. 그는 상자를 구멍을 통해 아래로 내렸고, 보물은 지금 그곳에 있다네. 그는 보석의 가치가 최소 50만 파운드 이상은 될 것이라고 계산했네.”

그 엄청난 액수가 언급되자, 우리 모두는 눈을 크게 뜨고 서로를 쳐다보았다. 만약 모스턴 양의 권리를 되찾아줄 수만 있다면, 그녀는 가난한 가정교사에서 영국에서 가장 부유한 상속녀로 신분이 바뀔 터였

다. 의리 있는 친구라면 당연히 이런 소식에 기뻐해야 마땅했다. 하지만 부끄럽게도 이기심이 내 영혼을 사로잡았고, 내 마음은 납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나는 더듬거리며 몇 마디 축하 인사를 건넸으나, 이내 고개를 떨군 채 낙담하여 자리에 앉아버렸다. 새로 알게 된 그 남자가 떠드는 소리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그는 분명 지독한 건강염려증 환자였다. 그가 끝도 없이 자신의 증상을 늘어놓으며, 주머니 속 가죽 케이스에 넣어 다니는 온갖 가짜 약들의 성분과 효능을 묻는 소리가 몽롱하게 들려왔다. 그날 밤 내가 대답한 내용들을 그가 기억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홈즈의 말에 따르면, 내가 그에게 피마자유를 두 방울 넘게 먹으면 큰 위험이 있다고 주의를 주는 와중에, 정작 나는 스트리크닌을 진정제라며 대량으로 복용하라고 권했다고 한다. 어찌 되었든, 우리가 탄 마차가 덜컥거리며 멈춰 서고 마부가 문을 열기 위해 뛰어내렸을 때, 나는 진심으로 안도했다.

"모스턴 양, 여기가 폰디체리 로지입니다." 새디어스 숄토 씨가 그녀를 밖으로 안내하며 말했다.

제5장 폰디체리 로지의 비극

제5장 폰디체리 로지의 비극

밤의 모험이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시각은 거의 1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우리는 대도시의 눅눅한 안개를 뒤로하고 나왔기에 밤공기는 제법 쾌적했다. 서쪽에서 따스한 바람이 불어왔고, 무거운 구름이 하늘을 가로질러 천천히 흘러갔다. 구름 사이로 반달이 이따금 고개를 내밀기도 했다. 시야가 꽤 확보되는 날씨였지만, 새디어스 솔토는 길을 더 밝게 비추기 위해 마차 옆에 달린 등 하나를 내려 우리에게 건네주었다.

폰디체리 로지는 넓은 부지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다. 저택 주변은 깨진 유리 조각을 얹은 아주 높은 돌담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입구라고는 철제 경첩을 단 좁은 문 하나뿐이었다. 우리를 안내하던 이는 그 문을 향해 우체부처럼 독특한 리듬으로 똑똑, 하고 두드렸다.

"거기 누구냐!" 안쪽에서 거친 목소리가 외쳤다.

"나야, 맥머도라고. 이쯤 되면 내 노크 소리도 익숙할 텐데."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열쇠가 부딪히며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육중한 문이 뒤로 활짝 열리더니, 체구가 작고 가슴이 두툼한 남자가 문간에 나타났다. 랜턴의 노란 불빛이 그의 툭 튀어나온 얼굴과 의심으로 번뜩이는 눈을 비추고 있었다.

"새디어스 씨, 당신입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주인님께 그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시를 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맥머도? 이거 정말 뜻밖이군! 어젯밤 형에게 친구 몇 명을 데려오겠다고 이미 말해 두었단 말일세."

"새디어스 씨, 그분은 오늘 방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저에게는 따로 지시받은 사항도 없고요. 아시다시피 저는 규정을 엄격히 따라야만 합니다. 손님을 안으로 모실 수는 있습니다만, 일행분들은 반드시 여기서 대기하셔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었다. 새디어스 솔토는 당혹감과 무력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건 정말 너무하군, 맥머도!" 그가 말했다. "내가 그들을 보증하겠다고 했으니 그걸로 충분하지 않은가. 게다가 저 아가씨도 있네. 이 시간에 공공 도로에서 기다리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정말 죄송합니다, 새디어스 씨." 문지기가 단호하게 말했다. "손님들이 당신과는 친구일지 몰라도, 주인님과는 친구가 아닐 수도 있는 법

입니다. 주인님께서는 제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면 보수를 넉넉히 주십니다. 그러니 저는 제 할 일을 할 뿐입니다. 저는 당신 친구분들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니까요."

"아니, 기억하고 말고, 맥머도!" 셜록 홈즈가 유쾌하게 외쳤다. "나를 잊었을 리가 없지. 4년 전 자네의 자선 공연 날 밤, 앨리슨의 방에서 자네와 세 라운드나 맞붙었던 그 아마추어 선수를 기억하지 못하는 건 아니겠지?"

"셜록 홈즈 씨가 아니라고!" 권투 선수가 고함을 질렀다. "세상에, 내가 어떻게 당신을 착각할 수 있었단 말입니까! 거기 그렇게 가만히 서 계시지 말고, 차라리 제 턱밑에 그 날카로운 카운터 펀치를 한 방 날려 주셨다면 의심할 여지도 없이 단번에 알아봤을 겁니다. 아, 당신은 정말 재능을 썩히고 계시는군요! 만약 권투계에 발을 들였다면 분명 대단한 선수가 되셨을 텐데 말입니다!"

"보게나, 왓슨. 다른 모든 일이 실패하더라도 내게는 아직 하나의 과학적 직업이 남아 있다네." 홈즈가 웃으며 말했다. "우리 친구가 우리를 추운 길거리에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걸세. 분명히 말해두지."

"들어오십시오, 손님, 어서 들어오세요. 손님과 일행분들 모두요." 그가 대답했다. "새디어스 씨, 정말 죄송합니다만 명령이 워낙 엄격해서 말입니다. 일행분들이 누구인지 확실히 확인하기 전에는 들여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자갈길이 황량한 대지를 가로질러 거대한 저택으로 이어졌다. 사각형 모양의 평범한 저택은 온통 어둠에 잠겨 있었으나, 달빛이 닿은 모퉁이 한쪽과 다락방 창문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저택의 압도적인 규모와 어둠, 그리고 죽은 듯한 정적은 보는 이의 마음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새디어스 솔토조차 마음이 편치 않은 듯 보였고, 그가 손에 든 랜턴은 가늘게 떨리며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군." 그가 말했다. "무슨 착오가 있음이 틀림없어. 분명히 바살러뮤에게 우리가 이곳에 있을 거라고 일러두었는데, 정작 그의 창가에는 불빛 하나 보이지 않으니 말이네.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군."

"그는 항상 이런 식으로 건물을 지키나요?" 홈즈가 물었다.

"맞아요. 그는 아버지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그가 총애받는 아들이었으니까요. 가끔은 아버지가 저에게는 차마 하지 못했던 이야기까지 그에게는 다 해주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저기 달빛이 비치는 창문이 바살러뮤의 방이에요. 꽤 밝긴 하지만, 안에서 새어 나오는 불빛은 없는 것 같군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홈즈가 말했다. "하지만 문 옆에 있는 작은 창문에서 빛이 번뜩이는 게 보이는군요."

"아, 저곳은 가사 도우미의 방입니다. 노부인 번스톤 씨가 계신 곳이지요. 그분이라면 이 일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잠시만 여기서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예고도 없이

한꺼번에 들어가면, 부인께서 깜짝 놀라실지도 모르니까요. 아, 조용히 하세요! 방금 그 소리는 무엇입니까?"

그가 랜턴을 들어 올렸으나 손이 떨리는 바람에, 빛의 동심원들이 우리 주변에서 이리저리 일렁이며 흔들렸다. 메리 모스턴 양이 내 손목을 꽉 움켜쥐었다. 우리 모두는 심장이 터질 듯 요동치는 것을 느끼며, 귀를 기울인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정적만이 감도는 밤, 저 거대하고 검은 저택으로부터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도 가련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겁에 질린 여인이 내뱉는, 날카롭고도 끊어질 듯한 흐느낌이었다.

"번스톤 부인일 겁니다." 솔토가 말했다. "그 집에는 그분뿐이거든요. 여기서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그는 서둘러 문으로 향하더니 특유의 방식으로 문을 두드렸다. 곧이어 키가 큰 노부인이 문을 열어주는 모습이 보였다. 노부인은 그를 보자마자 반가움에 몸을 들썩였다.

"오, 새디어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정말 잘 오셨어요, 새디어스 선생님! 어서 오세요!"

그녀는 문이 닫히고 목소리가 웅얼거리는 단조로운 소리로 잦아들 때까지 계속해서 기쁨을 터뜨리며 환호했다.

안내인이 두고 간 랜턴을 들고, 홈즈가 천천히 불빛을 돌리며 집과 마당을 가득 채운 거대한 쓰레기 더미들을 날카로운 눈으로 살폈다. 메리 모스턴 양과 나는 나란히 서 있었고, 그녀의 손은 내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사랑이란 참으로 경이롭고도 미묘한 것이다. 우리는 그날 전까지 서로 본 적도 없었고, 애정 어린 말 한마디나 눈길조차 주고받은 적이 없었다. 그런데도 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손은 본능적으로 서로를 찾았던 것이다. 그 이후로도 나는 그 순간을 신기하게 여겨왔지만, 당시에는 내가 그녀에게 다가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게 느껴졌다. 그녀 역시 나에게 위로와 보호를 구하려는 본능이 있었다고 자주 말하곤 했다. 그렇게 우리는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손을 맞잡고 서 있었다. 우리를 둘러싼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우리의 마음만은 평온했다.

"정말 이상한 곳이네요!" 그녀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영국에 있는 두더지가 죄다 여기로 풀려난 것 같군. 발러랫 근처 언덕에서도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있어. 광부들이 한창 작업 중이었을 때 말이야."

"그것도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홈즈가 말했다. "이것들은 보물을 찾는 자들이 남긴 흔적입니다. 그들이 무려 6년 동안이나 보물을 찾아 헤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원이 마치 자갈밭처럼 보이는 것도 무리가 아니지요."

그 순간 집 문이 벌컥 열리더니, 새디어스 숄토가 뛰쳐나왔다. 그는 두 손을 앞으로 내뻗은 채, 눈에는 공포를 가득 머금고 있었다.

"바살러뮤에게 무슨 일이 생겼어!" 그가 비명을 질렀다. "무서워 죽겠단 말이야! 내 신경이 버티질 못하겠어!" 그는 정말로 공포에 질려 울먹이고 있었다. 커다란 아스트라한 칼라 사이로 삐져나온 그의 경련

섞인 초라한 얼굴은, 겁에 질린 어린아이처럼 무력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집 안으로 들어오게." 홈즈가 특유의 명료하고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제발 부탁입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새디어스 솔토가 간청했다. "도저히 직접 지시를 내릴 기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를 따라 복도 왼편에 있는 가사도우미의 방으로 들어갔다. 노파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안절부절못하며 손가락을 가만히 두지 못한 채 방 안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하지만 모스턴 양의 모습이 보이자, 노파는 비로소 안정을 되찾는 듯했다.

"신의 가호가 당신의 그 평온한 얼굴에 깃들기를!" 그녀는 히스테릭하게 흐느끼며 외쳤다. "당신을 보니 이제야 마음이 놓이네요. 오, 오늘 하루 정말이지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우리의 동행인은 여인의 야위고 고된 손을 가볍게 다독였다. 그러고는 여인을 위로하듯 다정한 말을 나직이 건넸다. 그 따뜻한 위로 덕분에 창백하던 여인의 뺨에도 다시금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주인님께서 문을 걸어 잠그고는 제 대답도 듣지 않으십니다." 그녀가 설명했다. "주인님께서 혼자 계시는 걸 즐기시기에 하루 종일 소식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한 시간 전부터는 무언가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층으로 올라가 열쇠구멍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새디어스 씨, 직접 올라가 보셔야 합니

다. 직접 올라가서 확인해 주세요. 제가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바살러뮤 숄토 씨의 기쁜 모습과 슬픈 모습을 모두 지켜보았지만, 지금처럼 그런 표정을 짓고 계신 모습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셜록 홈즈가 등불을 들고 앞장섰다. 새디어스 숄토는 머리까지 울릴 정도로 이가 딱딱 맞부딪히며 떨고 있었다. 그가 너무나 심하게 몸을 떨어서,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 나는 그의 겨드랑이 밑으로 손을 넣어 부축해야만 했다. 무릎이 힘없이 후들거리고 있었다.

계단을 오르는 동안 홈즈는 주머니에서 돋보기를 꺼내 두 번이나 멈춰 섰다. 그는 계단 카펫으로 깔린 코코넛 매트 위에 남은 흔적들을 세심히 살폈다. 내 눈에는 그저 형태 없는 먼지 얼룩처럼 보일 뿐이었다. 홈즈는 등불을 든 채 한 계단씩 천천히 발을 내디디며, 좌우를 날카로운 눈빛으로 훑었다. 메리 모스턴 양은 겁에 질린 번스톤 부인과 함께 뒤에 남아 있었다.

세 번째 계단을 다 올라가자 꽤 긴 복도가 나타났다. 오른쪽에는 인도식 태피스트리로 된 커다란 그림이 걸려 있었고, 왼쪽에는 문 세 개가 나란히 있었다. 홈즈는 여전히 느릿하고 체계적인 걸음걸이로 복도를 따라 나아갔다. 우리는 그의 뒤를 바짝 따랐다. 복도 바닥에는 우리의 긴 검은 그림자가 뒤로 길게 늘어졌다.

우리가 찾는 문은 세 번째 문이었다. 홈즈가 문을 두드렸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는 문손잡이를 돌려 억지로 열어보려 시도했다. 하지만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다. 랜턴을 문에 가까이 가져다 대어 보니, 굵고 튼튼한 빗장이 걸려 있는 것이 보였다. 열쇠를 돌린 흔적은 있

었으나 열쇠 구멍이 완전히 닫혀 있지는 않았다. 셜록 홈즈가 열쇠 구멍 쪽으로 몸을 숙였다. 그러더니 곧바로 숨을 헉 하고 들이켜며 몸을 일으켰다.

"이건 정말 악마적인 일이야, 왓슨." 홈즈가 말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격앙된 목소리였다.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나는 구멍 안을 들여다보다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방 안으로 달빛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는데, 그 빛은 모호하고도 일렁이며 기묘한 광채를 띠고 있었다. 아래쪽은 온통 어둠에 잠겨 있었기에, 마치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얼굴 하나가 나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동행인 새디어스 숄토의 얼굴이었다. 높고 빛나는 이마, 둥글게 뻗친 붉은 머리카락, 그리고 핏기 없는 안색까지 모두 똑같았다. 하지만 그 이목구비는 소름 끼치는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고정된 채 부자연스럽게 일그러진 그 웃음은, 정적만이 흐르는 달밤의 방 안에서 그 어떤 험악한 표정이나 뒤틀린 얼굴보다도 내 신경을 날카롭게 긁어댔다. 그 얼굴이 우리의 어린 친구와 너무도 닮은 나머지, 나는 그가 정말 우리와 함께 있는지 확인하려고 옆을 돌아볼 정도였다. 그러다 문득, 그가 형과 자신은 쌍둥이라고 말했던 사실이 떠올랐다.

"이건 정말 끔찍하군요!" 내가 홈즈에게 말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문을 부수어야 해."

그가 대답하며 문을 향해 몸을 날렸다. 그는 온 체중을 실어 잠금장치를 들이받았다. 문이 끼익거리며 비명을 질렀지만, 좀처럼 열리지 않았다.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모아 문을 향해 몸을 던졌다. 그러자 이번에는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고, 우리는 바살러뮤 숄토의 방 안으로 들어서게 되었다.

그곳은 화학 실험실로 꾸며진 듯했다. 문 맞은편 벽을 따라 유리 마개가 달린 병들이 두 줄로 늘어서 있었고, 탁자 위에는 분센 버너와 시험관, 증류기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방 구석에는 산성 액체가 담긴 카보이(carboy)들이 고리버들 바구니에 담긴 채 놓여 있었다. 그중 하나는 액체가 새거나 깨진 모양이었다. 검은색 액체가 줄기처럼 흘러나와 있었고, 공기 중에는 타르처럼 코를 찌르는 특유의 자극적인 냄새가 가득했다. 방 한쪽에는 나무 판자와 석고 조각들이 어지럽게 흩어진 가운데 사다리가 놓여 있었는데, 그 위쪽 천장에는 사람이 지나갈 수 있을 만큼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었다. 사다리 발치에는 긴 밧줄 한 뭉치가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었다.

"보시다시피 이렇습니다." 그가 눈썹을 의미심장하게 치켜올리며 말했다.

나는 랜턴 불빛 아래에서 공포에 질린 채 그 문구를 읽어 내려갔다.

"네 사람의 서명."

"맙소사, 이게 다 대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물었다.

"살인이라는 뜻이군."

그는 죽은 이의 몸 위로 몸을 숙이며 말했다.

"아, 예상했던 일이야. 이것 좀 보게!"

그는 귀 바로 위쪽 피부에 박힌, 길고 검은 가시처럼 보이는 물체를 가리켰다.

"가시처럼 보이는데요." 내가 말했다.

"가시예요. 뽑아낼 수는 있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독이 발라져 있거든요."

나는 검지와 엄지로 그것을 집어 올렸다. 피부에서 너무나 쉽게 떨어져 나온 덕분에 흔적조차 거의 남지 않았다. 다만 바늘에 찔린 자리에 아주 작은 핏방울 하나가 맺혀 있을 뿐이었다.

"나로서는 도무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군요." 내가 말했다. "사건이 명확해지기는커녕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반대입니다." 그가 대답했다. "오히려 모든 순간이 명확해지고 있어요. 빠진 고리 몇 가지만 더 찾아낸다면, 사건의 전말을 완벽하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방에 들어온 이후로 우리는 동행한 이의 존재를 거의 잊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문가에 서서 두 손을 비틀며 혼잣말로 신음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공포에 질린 사람의 전형이었다. 그러다 갑자기, 그는 날카롭고 불평 섞인 비명을 내질렀다.

"보물이 사라졌어!" 그가 외쳤다. "그들이 보물을 훔쳐 갔단 말이야! 저기 봐, 우리가 보물을 내려보냈던 구멍이 있잖아. 내가 직접 그를 도와서 보물을 내렸다고! 내가 그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야! 어젯밤에 그를 여기 두고 나왔는데, 내가 계단을 내려올 때 그가 문을 잠그는 소리까지 들었단 말이다!"

"그게 몇 시였지?"

"열 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죽었고, 경찰이 들이닥치겠지. 그럼 난 이 일에 연루되었다는 의심을 받게 될 거야. 아, 분명 그럴 거야. 하지만 신사 여러분,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죠? 설마 제가 그랬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지요? 만약 제가 범인이라면, 제가 왜 여러분을 여기까지 데려왔겠습니까? 아, 이런! 세상에! 이러다 정말 미쳐버릴 것 같단 말입니다!" 그는 발작적인 광기에 휩싸인 듯 팔을 휘두르고 발을 구르며 몸부림쳤다.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솔토 씨." 홈즈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다정하게 말했다. "제 조언을 따르십시오. 지금 당장 역으로 달려가 경찰에 이 사실을 알리세요. 그리고 경찰이 수사하는 데 필요한 모든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하십시오. 저희는 당신이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작은 남자는 멍한 상태로 순순히 명령을 따랐다. 이윽고 어둠 속에서 그가 계단을 비틀거리며 내려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제6장 셜록 홈즈의 시연

제6장 셜록 홈즈의 시연

"자, 왓슨." 홈즈가 양손을 비비며 말했다. "우리에게 30분 정도 여유가 생겼네. 이 시간을 알차게 써보자고. 이미 말했듯이 내 사건은 거의 해결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그렇다고 자만해서는 안 되네. 지금은 사건이 단순해 보일지 몰라도, 그 밑바닥에는 우리가 모르는 더 깊은 무언가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니까."

"간단하군요!" 내가 외쳤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는 마치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설명하는 임상 교수 같은 태도로 말했다.

"발자국이 사건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도록 저기 구석에 앉아 계십시오. 자, 이제 시작해 봅시다! 우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들어왔고 어떻

게 나갔을까요? 문은 어젯밤 이후로 열린 적이 없습니다. 그럼 창문은 어떨까요?"

홈즈는 램프를 들고 창가로 걸어가며 혼잣말처럼 관찰한 내용을 중얼거렸다. 나에게 말을 건다기보다는 스스로에게 묻는 듯한 말투였다.

"창문 안쪽 잠금장치는 걸려 있군. 창틀도 튼튼해. 옆면에 경첩도 없고. 한번 열어 봅시다. 근처에 배수관도 없군. 지붕은 손이 닿지 않을 만큼 높고. 그런데 누군가 창문을 타고 올라왔어. 어젯밤에 비가 약간 내렸지. 여기 창틀에 발 모양이 그대로 찍혀 있군. 그리고 여기 둥근 진흙 자국이 있고, 바닥에도, 테이블 옆에도 또 자국이 있어. 왓슨, 여기 좀 보세요! 이건 정말 아주 근사한 증거가 될 겁니다."

나는 진흙으로 찍힌, 경계가 뚜렷하고 둥근 자국들을 내려다보았다. "이건 발자국이 아니군요." 내가 말했다.

"우리에게는 훨씬 더 가치 있는 물건입니다. 나무 그루터기의 모양이 찍힌 자국이죠. 여기 창틀을 보십시오. 넓적한 금속 굽이 달린 무거운 장화 자국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나무로 된 앞코 자국이 찍혀 있습니다."

"의족을 한 사내입니다."

"그렇고말고요. 하지만 그 외에도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유능하고 빈틈없는 조력자였지요. 박사님, 저 담을 넘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열린 창밖을 내다보았다. 달빛은 여전히 저 집의 모퉁이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우리는 지면에서 족히 60피트는 떨어진 높이에 있었다. 어느 곳을 아무리 훑어보아도 발을 디딜 만한 곳은커녕, 벽돌 사이에 난 작은 틈새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대답했다.

"도움 없이는 그렇겠지요. 하지만 만약 당신의 친구가 여기 위에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친구가 저 구석에 있는 튼튼한 밧줄을 내려준다면 어떨까요? 벽에 걸린 커다란 갈고리에 밧줄 한쪽 끝을 단단히 고정해 둔 상태로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몸놀림이 민첩한 사람이라면, 의족까지 찬 채로 밧줄을 타고 올라갈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내려올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내려오겠지요. 그러면 당신을 도와준 친구는 밧줄을 끌어올려 갈고리에서 풀어낸 뒤, 창문을 닫고 안에서 잠근 다음, 처음 왔던 길을 따라 유유히 사라지면 그만입니다."

홈즈는 밧줄을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며 말을 이었다.

"사소한 점 하나를 덧붙이자면, 의족을 한 우리 친구는 등반 실력은 제법 좋았을지 몰라도 전문 선원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손바닥이 결코 거칠지 않았거든요. 제 돋보기로 살펴보니 밧줄 끝부분을 중심으로 혈흔이 여러 군데 발견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추측건대, 그는 밧줄을 타고 내려오다 너무 빠른 속도로 미끄러지는 바람에 손바닥의 피부가 벗겨진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다 쳐도," 내가 말했다. "상황은 갈수록 더 알 수 없게 되어가고 있네. 그 정체 모를 조력자는 대체 누구인가? 그는 어떻게 방 안으로 들어온 거지?"

"그래, 공범이라!" 홈즈가 생각에 잠긴 듯 말을 되풀이했다. "이 공범에게는 흥미로운 특징이 있어. 평범한 범죄의 범주를 완전히 벗어나 있거든. 내 생각에 이 공범은 우리나라 범죄사에 새로운 지평을 열 만한 인물이야. 물론 인도에서 비슷한 사례가 떠오르긴 하지만 말이야. 내 기억이 맞다면 세네감비아에서도 그랬던 것 같고."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들어왔단 말입니까?" 내가 다시 물었다. "문은 잠겨 있고, 창문은 접근조차 불가능합니다. 설마 굴뚝을 통해서 들어온 겁니까?"

"벽난로 구멍이 너무 작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이미 그 가능성까지 고려해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다그치듯 물었다.

"내 원칙을 전혀 따르지 않는군." 홈즈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불가능한 것들을 모두 제외하고 남은 것이 아무리 믿기 힘들지라도, 그것이 바로 진실이라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나? 범인이 문이나 창문, 혹은 굴뚝을 통해 들어오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미 확인했네. 또한 이 방에는 몸을 숨길 만한 곳이 전혀 없으니, 범인이 방 안에 숨어 있었을 리도 없지. 그렇다면 대체 어디를 통해 들어왔단 말인가?"

"지붕에 난 구멍을 통해 들어왔어요!" 내가 외쳤다.

"당연히 그랬겠지. 분명 그랬을 거야. 괜찮다면 등불 좀 들어주겠나? 이제 위층 방으로 가서 조사를 이어가야겠네. 바로 그 보물이 발견된 비밀의 방 말일세."

그는 계단을 올라가더니 양손으로 서까래를 움켜쥐고는 몸을 휙 날려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러고는 엎드린 채 손을 뻗어 램프를 잡고는, 내가 뒤따라 올라올 때까지 그것을 들고 기다려 주었다.

우리가 들어선 방은 가로가 10피트, 세로가 6피트 정도 되는 크기였다. 바닥은 서까래로 만들어져 있었고, 그 사이사이를 얇은 나무 판자와 석고로 메워 놓은 형태였다. 그래서 걸음을 옮길 때마다 서까래를 하나하나 딛고 지나가야 했다. 지붕은 꼭대기에서 뾰족하게 모아지는 구조였는데, 집의 실제 지붕 안쪽 면을 그대로 드러낸 듯했다. 방 안에는 가구라고는 전혀 없었으며, 바닥에는 수년간 쌓인 먼지가 두껍게 내려앉아 있었다.

"보시다시피 이렇습니다." 셜록 홈즈가 경사진 벽에 손을 갖다 대며 말했다. "이건 지붕으로 통하는 비밀문입니다. 제가 뒤로 밀면 지붕이 나타나죠. 보십시오, 완만한 경사를 이룬 지붕 그 자체입니다. 그렇다면 '일번'은 바로 이 통로를 통해 들어온 셈입니다. 자, 그가 남긴 다른 흔적이 있는지 더 찾아봅시다."

그는 램프를 바닥으로 낮추어 비추었다. 그 순간, 나는 그가 오늘 밤 두 번째로 경악과 놀라움이 뒤섞인 표정을 짓는 것을 보았다. 나 역시 그의 시선을 따라 바닥을 내려다보았고, 옷 속의 피부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바닥에는 맨발 자국이 빽빽하게 찍혀 있었다. 발자국은

선명하고 뚜렷했으며 형태도 완벽했으나, 일반적인 성인 남성의 발 크기에 비하면 절반도 채 되지 않을 만큼 작았다.

"홈즈," 나는 속삭이듯 말했다. "아이의 소행이에요. 아이가 그 끔찍한 짓을 저질렀어요."

그는 순식간에 평정심을 되찾았다. "잠시 당황했을 뿐이라네." 그가 말했다.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내 기억력이 잠시 흐려졌던 모양이야. 그랬다면 미리 짐작이라도 했을 텐데 말이지. 여기서 더 알아낼 건 없네. 이제 내려가세."

"그럼 그 발자국들에 대해서는 어떤 이론을 세우고 계십니까?"

다시 아래층 방으로 돌아온 뒤, 나는 흥분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여보게 왓슨, 자네도 직접 분석을 좀 해보게나." 홈즈가 약간 초조한 기색으로 말했다. "내 방식은 자네도 잘 알지 않는가. 자네 방식대로 한번 해보게. 그 결과를 내 것과 비교해 보면 꽤 유익할 걸세."

"이 사실들을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군요." 내가 대답했다.

"곧 알게 될 걸세." 홈즈가 무심하게 말했다. "중요한 게 더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일단 한번 살펴보지."

그는 돋보기와 줄자를 잽싸게 꺼내더니 무릎을 굽힌 채 방 안을 분주히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길고 뾰족한 코를 바닥 판자에 바짝 들이댄

채, 그는 무언가를 재고 비교하며 샅샅이 살폈다. 새의 눈처럼 깊게 파인 그의 작은 눈은 번뜩이며 빛났다. 냄새를 쫓는 훈련된 사냥개처럼 움직임이 워낙 빠르고 조용하며 은밀해서,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만약 저 명석한 두뇌와 예리한 통찰력을 법을 수호하는 데 쓰는 대신 범죄에 쏟아부었다면, 얼마나 무시무시한 범죄자가 되었을까 하고 말이다.

홈즈는 무언가를 찾는 내내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그러다 마침내, 그는 기쁨에 겨워 크게 소리를 질렀다.

"운이 정말 좋군." 홈즈가 말했다. "이제 별로 어렵지 않겠어. '1번'이라는 놈이 불행하게도 크레오소트 위를 밟고 지나갔거든. 이 고약한 냄새가 나는 액체 옆을 보면, 놈의 작은 발자국 윤곽이 여기 그대로 남아 있어. 보시다시피 용기에 금이 가는 바람에 내용물이 밖으로 새어 나온 모양이야."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물었다.

"그야 당연히 잡으면 그만이지." 홈즈가 말했다. "이 냄새를 따라 세상 끝까지라도 쫓아갈 개를 내가 한 마리 알고 있거든. 사냥개 무리가 주(州) 전체를 가로질러 청어의 흔적을 쫓을 수 있다면, 특별히 훈련된 사냥개 한 마리가 이토록 강렬한 냄새를 얼마나 멀리까지 따라갈 수 있겠나? 이건 마치 비례식의 문제 같군. 답을 구하면 바로 그—아, 저기 보게! 법을 집행하는 공인된 대리인들이 오고 있군."

아래층에서 묵직한 발소리와 떠들썩한 목소리들이 들려오더니, 현관문이 쾅 하고 거칠게 닫혔다.

"그들이 오기 전에," 홈즈가 말했다. "자, 우선 이 불쌍한 친구의 팔을 한번 만져보게. 그리고 여기 다리도. 무엇이 느껴지는가?"

"근육이 판자처럼 딱딱합니다." 내가 대답했다.

"맞습니다. 근육이 극도로 수축해 있군요. 일반적인 사후 경직의 수준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얼굴이 이렇게 일그러진 데다, 옛 문헌에서 '히포크라테스의 미소' 혹은 '리수스 사르도니쿠스(risus sardonicus)'라고 부르던 이 기괴한 미소까지 더해졌다면, 당신은 어떤 결론을 내리겠습니까?"

"강력한 식물성 알칼로이드 때문입니다." 내가 대답했다. "파상풍을 일으키는 스트리크닌과 비슷한 물질일 겁니다."

"얼굴 근육이 경련하며 일그러진 것을 본 순간, 바로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독이 어떤 경로로 몸에 침투했는지부터 살폈지요. 보시다시피, 두피에 박힌 가시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그리 강한 힘으로 박히거나 발사된 것은 아니더군요. 잘 살펴보십시오. 가시가 박힌 위치는, 만약 이 사람이 의자에 똑바로 앉아 있었다면 천장의 구멍을 향했을 지점입니다. 자, 이제 이 가시를 자세히 조사해 보시지요."

나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집어 들어 랜턴 불빛에 비추어 보았다. 그것은 길고 날카로운 검은색 물체였는데, 끝부분 근처는 마치 끈적한 물

질이 말라붙은 것처럼 번들거리는 광택이 돌았다. 뭉툭한 끝부분은 칼로 깎아내어 둥글게 다듬은 상태였다.

"그게 영국산 가시인가요?" 그가 물었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자료만 있다면 그럴싸한 추론을 끌어낼 수 있을 걸세. 하지만 여기 정규군이 있으니, 보조 병력은 이만 퇴각해도 좋겠군."

그가 말을 마칠 무렵, 복도에서 점점 가까워지던 발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이어 회색 정장을 입은 아주 건장하고 풍채 좋은 남자가 육중한 걸음으로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얼굴이 붉고 체격이 건장했으며, 혈색이 지나치게 넘쳐 보였다. 부어오른 눈가 사이로 아주 작고 반짝이는 눈동자가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다. 제복을 입은 경위가 그 뒤를 바짝 따랐고, 여전히 가슴을 졸이며 떨고 있는 새디어스 숄토도 그 뒤를 따라 들어왔다.

"이거 참 대단한 사건이군!" 그가 낮고 거친 목소리로 외쳤다. "정말이지 기가 막힌 사건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누구지? 세상에, 집안이 마치 토끼굴처럼 사람들로 북적거리는군!"

"애슬니 존스 경위님, 저를 기억하셔야 할 겁니다." 홈즈가 차분하게 말했다.

"그야 당연하지요!" 그가 쌕쌕거리며 대답했다. "이론가이신 셜록 홈즈 씨 아니십니까. 당신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비숍게이트 보석 도

난 사건 때, 원인과 추론, 그리고 결과에 대해 우리 모두에게 강의하듯 설명해주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가 올바른 길을 찾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길을 찾은 건 당신의 지도 덕분이라기보다, 순전히 운이 좋았기 때문이었다는 점은 당신도 인정하시겠지요?"

"아주 단순한 논리였습니다."

"이보게, 자, 어서! 잘못을 인정하는 걸 부끄러워할 필요 없네. 그런데 대체 이게 다 뭔가? 정말 끔찍한 일이군! 아주 끔찍해! 여기엔 엄연한 사실만이 존재하네. 추측 따위가 끼어들 자리는 없단 말일세. 마침 내가 다른 사건 때문에 노우드에 나가 있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전갈이 도착했을 때 나는 마침 역에 있었네. 자, 자네는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나?"

"오, 이건 내가 이론을 세워가며 분석할 만한 사건은 아니군." 홈즈가 무미건조하게 말했다.

"아니, 아니야. 그래도 자네가 가끔 핵심을 정확히 짚어낸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군. 세상에! 문은 잠겨 있었고, 보석은 50만 파운드 상당이 사라졌다는 거지? 창문은 어땠나?"

"잠겨 있습니다. 하지만 창틀에 발자국이 남아 있군요."

"자, 보게나. 만약 창문이 잠겨 있었다면 그 발자국은 이 사건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을 거야. 이건 상식이지. 사람이 발작을 일으켜 죽었을 수도 있네. 하지만 보석이 사라졌단 말이지. 허! 나에게는 한 가지

가설이 있네. 가끔 이런 생각이 번뜩일 때가 있거든. 경사, 그리고 솔토 씨, 잠시 밖으로 나가 주시겠나? 자네 친구는 여기 있어도 좋네. 홈즈,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솔토 씨의 자백에 따르면 그는 어젯밤 형과 함께 있었다고 했지. 형은 발작으로 사망했고, 그 틈을 타 솔토 씨가 보물을 가지고 달아났다는 거네. 어떤가?"

"그 죽은 사람이 아주 사려 깊게도, 일어나서 문을 안에서 잠그기까지 했더군요."

"흠! 거기 허점이 있군. 상식적으로 이 문제를 따져보세. 새디어스 솔토가 형과 함께 있었다는 것, 그리고 둘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는 것, 여기까지는 우리도 알고 있는 사실이지. 형은 죽었고 보석은 사라졌어. 이 또한 알고 있는 사실이고. 새디어스가 형을 떠난 이후로 아무도 형을 본 사람이 없네. 형의 침대도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고 말이야. 새디어스는 분명히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야. 외양도—글쎄, 그리 보기 좋지는 않군. 내가 새디어스를 중심으로 그물을 짜고 있다는 게 보이지? 이제 그물망이 그를 조여오기 시작했어."

"아직 사실 관계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군." 홈즈가 말했다. "독이 발려 있다고 확신할 만한 이 나무 파편은 그 남자의 두피에 박혀 있었네. 자네 눈에 보이는 저 상처가 바로 그 흔적이지. 그리고 여기 적힌 내용 그대로의 이 카드는 탁자 위에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이 기묘하게 생긴 돌머리 도구가 놓여 있었네. 이 모든 사실이 자네의 이론과 어떻게 맞아떨어지는가?"

"모든 면에서 확실합니다." 뚱뚱한 경위가 거들먹거리며 말했다. "집 안이 온통 인도 골동품투성이더군요. 새디어스가 이것을 가져왔으니, 만약 이 가시가 독을 품고 있다면 새디어스 역시 다른 누구와 마찬가지로 살인을 저지를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카드는 그저 눈속임일 뿐입니다. 아마도 시선을 돌리려는 수작이겠지요. 유일한 의문은 그가 어떻게 떠났느냐 하는 점입니다. 아, 역시나, 여기 지붕에 구멍이 있군요."

그는 거구라는 사실이 무색할 만큼 민첩하게 움직였다. 계단을 뛰어올라간 그는 좁은 다락방 틈 사이로 몸을 밀어 넣었다. 곧이어 그가 뚜껑문을 찾아냈다고 외치는 승리감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친구라면 뭔가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홈즈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가끔씩은 제법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기도 하니까요. _재치를 가진 자들만큼 성가신 바보도 없는 법이지!_"

"보셨습니까!" 계단을 다시 내려오며 애슬니 존스가 말했다. "결국 단순한 이론보다는 사실이 훨씬 확실한 법이지요. 제 판단이 맞았습니다. 지붕과 통하는 뚜껑문이 있었고, 그 문이 지금 반쯤 열려 있습니다."

"그걸 연 사람은 바로 나였네."

"오, 정말입니까! 그걸 알아채셨군요?" 그는 자신의 발견이 들통나자 조금 낙담한 기색이었다. "뭐, 누가 알아챘든 상관없습니다. 덕분에 우리 신사분이 어떻게 도망쳤는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경위님!"

"예, 선생님." 통로 너머에서 대답이 들려왔다.

"숄토 씨, 이쪽으로 오시지요. 숄토 씨,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은 당신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당신은 형의 죽음과 연루된 혐의가 있으므로, 본인은 여왕 폐하의 이름으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거봐요, 내 말이 맞죠! 내가 뭐랬습니까!" 가련한 작은 남자가 양손을 내뻗으며 외쳤다. 그는 우리를 번갈아 가며 쳐다보았다.

"그 일로 너무 마음 쓰지 마십시오, 숄토 씨." 홈즈가 말했다. "제가 당신의 결백을 증명해 드리겠다고 약속하죠."

"너무 장담하지 마십시오, 이론가 양반. 너무 장담하지 말라고요!" 경위가 쏘아붙였다. "생각보다 훨씬 까다로운 사건일지도 모릅니다."

"존스 씨, 나는 그 사람의 결백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어젯밤 이 방에 있었던 두 사람 중 한 명의 이름과 인상착의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는 바로는, 그자의 이름은 조너선 스몰입니다. 그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데다 체구는 작고 움직임이 민첩한 사람입니다. 오른쪽 다리는 잘려 나갔으며, 안쪽이 닳아버린 나무 의족을 차고 있습니다. 왼쪽 장화는 밑창이 거칠고 앞코가 네모나며, 뒤꿈치에는 철제 테가 둘러져 있습니다. 중년의 남성으로 피부는 검게 그을렸고, 전과가 있는 죄수입니다. 손바닥의 피부가 많이 벗겨져 있다는 사실과 이 몇 가지 특징을 함께 참고하신다면 수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머지 한 사람은—"

“아, 그 다른 사람 말입니까?” 애슬니 존스 경위가 비웃는 투로 물었다. 하지만 그 역시 상대방이 보여준 정교하고 빈틈없는 태도에 내심 압도당한 기색이 역력했다.

“꽤나 기묘한 사람이야.” 셜록 홈즈가 발길을 돌리며 말했다. “조만간 그 두 사람을 자네에게 직접 소개해 줄 수 있기를 바라네. —잠깐, 왓슨. 할 말이 있네.”

그는 나를 계단 꼭대기까지 안내했다. "이 예상치 못한 일이 터지는 바람에," 그가 말했다. "우리가 원래 무엇을 하려 했는지 잠시 잊고 있었군요."

“마침 저도 그 생각을 하던 참이었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모스턴 양이 이 불행한 집에서 계속 머무는 건 옳지 않은 일입니다.”

“아니요. 당신이 그녀를 집까지 데려다줘야 합니다. 로어 캠버웰에 있는 세실 포레스터 부인의 집에서 지내고 있으니 그리 멀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 다시 차를 몰고 나가실 생각이라면 여기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니면, 너무 피곤하신가요?”

“전혀 아닙니다. 이 기묘한 사건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전까지는 도저히 마음 편히 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삶의 거친 면을 어느 정도 겪어봤다고 생각합니다만, 오늘 밤 연이어 터진 이 기괴한 일들 때문에 완전히 정신이 혼미할 지경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온 이상, 당신과 함께 이 사건을 끝까지 파헤쳐 보고 싶습니다.”

"당신이 곁에 있어 준다면 내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가 대답했다.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사건을 풀어 나갑시다. 존스 그 친구가 제멋대로 꾸며낸 허무맹랑한 가설을 붙들고 기세등등하게 굴도록 내버려 두자고요. 메리 모스턴 양의 일을 마치는 대로, 람베스 강가 근처에 있는 핀친 레인 3번지로 가 주십시오. 오른쪽에서 세 번째 집인데, 셔먼이라는 이름의 박제사가 운영하는 곳입니다. 창가에 족제비가 어린 토끼를 붙들고 있는 장식품이 보일 겁니다. 셔먼을 찾아가 제 안부를 전하며, 토비를 당장 데려오라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토비를 택시에 태워 내게 데려오면 됩니다."

"개겠지, 아마도."

"그래요. 아주 기묘한 잡종인데, 후각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발달했더군요. 런던의 모든 형사력을 동원하는 것보다 차라리 토비의 도움을 받는 게 낫겠습니다."

"그럼 그를 데려오겠습니다." 내가 말했다. "지금 한 시군요. 새 말을 구할 수만 있다면 세 시 전에는 돌아올 수 있을 겁니다."

"나 역시 할 일이 있네." 홈즈가 말했다. "번스톤 부인과 인도인 하인을 만나서 알아낼 수 있는 게 있는지 확인해 보겠네. 새디어스 씨 말로는 그 하인이 바로 옆 다락방에서 지낸다고 하더군. 그러고 나서 위대한 존스 씨의 수사 방식을 연구하며, 그가 내뱉는 거칠고 날카로운 비아냥도 좀 들어봐야겠어. '_사람들은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조롱하곤 하지._' 괴테는 언제나 명언을 남기는군."

제7장 통에 얽힌 일화

제7장 통의 에피소드

경찰이 가져온 마차를 타고, 나는 메리 모스턴 양을 그녀의 집까지 바래다주었다. 그녀는 여인 특유의 천사 같은 면모를 보여주었다.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지탱해야 하는 동안에는, 아무리 힘든 일이 닥쳐도 평온한 얼굴을 유지하며 고난을 견뎌냈다. 겁에 질린 집사 옆에서 본 그녀는 무척이나 밝고 침착해 보였다. 하지만 마차에 올라타자마자 그녀는 처음에는 정신을 잃을 듯 휘청거리더니, 이내 격렬하게 울음을 터뜨렸다. 밤새 겪은 모험이 그녀를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몰아붙인 탓이었다.

그녀는 나중에 내게 말하기를, 그 여정 동안 내가 너무 냉담하고 무심해 보였다고 했다. 하지만 그녀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나, 감정을 억누르기 위해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는지는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정원에서 내 손이 그러했듯, 내 온 마음과 사랑은 그녀를 향하고 있었다. 평생을 지켜온 사회적 관습도, 이 기묘한 하루 동안 겪은 경

험만큼 그녀의 달콤하고 용감한 성품을 깊이 이해하게 해주지는 못할 것이라 느꼈다.

그럼에도 내 입술 끝에 맺힌 애정 어린 말들을 삼키게 만든 두 가지 생각이 있었다. 우선 그녀는 지금 마음과 신경이 모두 무너져 내린, 연약하고 무력한 상태였다. 이런 시기에 사랑을 고백하는 것은 그녀를 더욱 곤란하게 만드는 일이었다. 설상가상으로 그녀는 부유했다. 만약 홈즈의 조사가 성공한다면, 그녀는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을 상속녀가 될 터였다. 반급봉사 의사인 내가 우연히 가까워진 친분을 이용해 그녀에게 접근하는 것이 과연 공정하고 명예로운 일일까? 그녀가 나를 그저 천박한 돈을 쫓는 사기꾼으로 여기지는 않을까? 나는 그녀의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스치는 것조차 견딜 수 없었다. 이 아그라 보물이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넘을 수 없는 장벽처럼 놓여 있었다.

세실 포레스터 부인의 저택에 도착했을 때는 거의 새벽 두 시였다. 하인들은 이미 몇 시간 전에 잠자리에 들었지만, 포레스터 부인은 모스턴 양이 받은 기묘한 메시지에 깊은 관심을 보인 나머지 그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밤을 지새우고 있었다. 문을 직접 열어준 그녀는 우아한 분위기의 중년 여성이었다. 그녀가 모스턴 양의 허리를 다정하게 감싸 안으며 어머니처럼 따뜻한 목소리로 맞이하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까지 훈훈해졌다. 그녀는 단순히 돈을 받고 일하는 고용인이 아니라, 진심으로 존경받는 친구임이 분명했다.

나는 인사를 나누었고, 포레스터 부인은 간곡히 안으로 들어와 우리가 겪은 모험담을 들려달라고 청했다. 하지만 나는 이번 심부름이 얼마

나 중요한 일인지 설명하며, 사건에 진척이 생기면 반드시 다시 들러 소식을 전하겠다고 진심을 다해 약속했다.

마차를 타고 떠나며 나는 슬쩍 뒤를 돌아보았다. 지금도 눈을 감으면 그 계단 앞에 서 있던 작은 무리가 선명히 떠오른다. 서로를 꼭 붙들고 있던 우아한 두 여인, 반쯤 열린 문, 스테인드글라스를 통해 새어 나오던 현관의 불빛, 기압계, 그리고 반짝이는 계단 난간까지. 거칠고 어두운 사건에 온 정신을 빼앗겨 있던 우리에게, 영국의 평온한 가정 풍경을 잠시나마 엿볼 수 있었던 그 순간은 참으로 위안이 되었다.

사건을 되짚어볼수록 생각은 점점 더 거칠고 어두운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가스등이 켜진 고요한 거리를 가로질러 달려가는 동안, 나는 그 기이한 사건의 흐름을 하나하나 복기했다.

우선 근본적인 문제부터 살펴보자. 적어도 그 부분은 이제 꽤 명확해졌다. 모스턴 대위의 죽음, 진주가 배달된 일, 신문 광고, 그리고 편지까지. 우리는 그 모든 사건의 실마리를 이미 찾아냈다. 하지만 그 실마리들은 우리를 더 깊고 비극적인 미스터리로 인도했을 뿐이었다.

인도의 보물, 모스턴의 짐 속에서 발견된 기묘한 계획서, 숄토 소령이 죽을 당시의 이상한 정황, 보물을 다시 찾아내자마자 벌어진 발견자의 살해 사건, 그리고 범행 현장에 남겨진 매우 특이한 흔적들까지. 발자국과 기이한 무기들, 그리고 모스턴 대위의 지도에 적힌 글귀와 일치하는 카드 위의 문구들까지.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이것은 참으로 거대한 미로였다. 내 하숙 동료인 홈즈만큼 비범한 재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라면, 이 미로 속에서 단서를 찾아내기를 결코 포기했을지도 모른다.

핀친 레인은 램베스 하층 구역에 늘어선 초라한 2층 벽돌집 거리였다. 3번지에 도착해 한참을 두드린 끝에야 겨우 사람의 기척을 느낄 수 있었다. 마침내 블라인드 너머로 촛불이 가물거렸고, 위층 창문 너머로 누군가의 얼굴이 나타났다.

"어서 가, 이 술 취한 부랑자 놈아." 그 얼굴이 말했다. "한 번만 더 소란을 피웠다간, 개 사육장 문을 열어 개 마흔세 마리를 네놈에게 풀어버리겠다."

"한 마리라도 풀어주신다면, 그게 바로 제가 찾아온 이유입니다." 내가 말했다.

"어서 가!" 목소리가 악을 썼다. "맹세코 내 가방 안에 독사가 한 마리 들어 있으니, 당장 꺼지지 않으면 네 머리통에 떨어뜨려 버리겠다!"

"하지만 전 개를 갖고 싶단 말입니다!" 내가 외쳤다.

"더는 말대꾸하지 마시오!" 셔먼 씨가 소리쳤다. "자, 이제 물러나 계시오. 내가 '셋'이라고 하면 독사를 떨어뜨릴 테니까."

"셜록 홈즈 씨—" 내가 입을 떼자마자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다. 창문이 즉시 쾅 하고 닫히더니, 채 1분도 지나지 않아 문빗장이 풀리고

문이 활짝 열렸다. 셔먼 씨는 어깨가 굽고 목이 가느다란, 키가 크고 마른 노인이었다. 그는 푸른빛이 도는 안경을 쓰고 있었다.

"셜록 홈즈 씨의 친구라면 언제든 환영입니다." 그가 말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선생. 오소리는 조심하시고요. 물거든요. 아, 이 나쁜 녀석, 감히 신사분을 물려고 드는 거냐?" 그는 새장 창살 사이로 사악한 머리와 붉은 눈을 들이미는 담비에게 말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선생. 그저 미꾸라지 같은 뱀일 뿐이니까요. 송곳니도 없으니 그냥 방 안을 돌아다니게 둡니다. 딱정벌레를 잡아먹어 주거든요. 처음엔 제가 좀 무례하게 굴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아이들이 저를 놀려대기도 하고, 이 골목을 지나가다 저를 깨우러 오는 애들도 워낙 많아서 말입니다. 그나저나 셜록 홈즈 씨가 무엇 때문에 찾아오셨는지요?"

"그가 당신의 개를 원했습니다."

"아! 그렇다면 토비겠군요."

"맞습니다, 토비가 그 이름이었지요."

"토비는 여기 왼쪽 7번지에 살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불러 모은 기묘한 동물 무리 사이로 촛불을 들고 천천히 나아갔다. 불안하게 흔들리는 그림자 속에서, 구석구석 숨어 있는 눈동자들이 우리를 훔쳐보고 있다는 사실이 희미하게 느껴졌다. 머리 위 서까래에도 엄숙한 표정의 새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다. 새들은 우리의 목소리에 잠이 깨어, 한쪽 발에서 다른 쪽 발로 게으르게 무게 중심을 옮기며 몸을 뒤척였다.

토비는 스패니얼과 러처를 반씩 섞어 놓은 듯한 녀석이었다. 길게 자란 털에 귀는 축 처졌고, 외모는 흉측하기 짝이 없었다. 갈색과 흰색이 섞인 몸집에 걸음걸이는 아주 어설프고 뒤뚱거렸다. 노학자가 내게 건네준 설탕 덩어리를 토비는 잠시 망설이다가 받아먹었다. 그렇게 동맹을 맺은 덕분인지, 녀석은 나를 따라 마차까지 잘 따라왔고 동행하는 데에도 아무런 거부감이 없었다. 폰디체리 로지에 다시 도착했을 때는 팰리스 시계가 막 세 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확인해 보니 전직 권투 선수인 맥머도는 공범 혐의로 체포된 상태였고, 그와 솔토 씨 모두 경찰서로 압송되었다. 좁은 대문에는 순경 두 명이 지키고 서 있었지만, 내가 형사의 이름을 언급하자 녀석과 함께 지나가는 것을 허락해 주었다.

홈즈는 문 앞 계단에 서서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파이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아, 개를 잡았군요!" 그가 말했다. "참 착한 개로군요! 애슬니 존스는 떠났습니다. 당신이 떠난 뒤로 우리는 아주 정신없이 움직였거든요. 그는 새디어스 씨뿐만 아니라 문지기와 가정부, 그리고 인도인 하인까지 모두 체포했습니다. 위층에 경사 한 명이 있는 것 말고는 이제 그곳은 우리 차지입니다. 개는 여기 두고 이리로 올라오세요."

우리는 토비를 현관 탁자에 묶어두고 다시 계단을 올라갔다. 방 안은 그가 떠날 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으나, 중앙에 놓인 형체 위에는 시트 하나가 덮여 있었다. 구석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한 경사 한 명이 몸을 기대고 앉아 있었다.

"경사, 자네의 손전등 좀 빌려주게." 동행인이 말했다. "이제 이 카드 조각을 내 목에 묶어서 가슴 앞에 늘어뜨려 주게나. 고맙네. 이제 장화와 양말을 벗어야겠어. 왓슨, 자네가 이것들을 가지고 내려가 주게. 나는 잠시 벽을 좀 타야겠으니 말이야. 그리고 손수건을 크레오소트에 적셔야겠군. 그럼 됐어. 자, 잠시만 나를 따라 이 다락방으로 올라오게나."

우리는 구멍을 통해 기어 올라갔다. 홈즈는 먼지 위에 남은 발자국을 향해 다시 한번 손전등 빛을 비추었다.

"이 발자국들을 특히 유심히 살펴봐 주었으면 하네." 홈즈가 말했다. "눈에 띄는 특징이 좀 보이는가?"

"아이들이나 체구가 작은 여성의 것이군요." 내가 말했다.

"크기 말고는요? 다른 특징은 정말 없습니까?"

"다른 발자국들과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전혀 아닙니다. 이것 좀 보세요! 먼지 위에 남은 오른발 자국입니다. 이제 제 맨발을 그 옆에 대 보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발가락이 전부 뭉쳐 있군요. 다른 발자국은 발가락 하나하나가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이에요. 그 사실을 명심하세요. 자, 이제 저기 있는 여닫이창 쪽으로 가서 나무 틀의 가장자리에 코를 대고 냄새를 맡아보시겠습니까? 저는 손에 손수건을 들고 있어야 하니 여기 그대로 있겠습니다."

나는 그의 지시대로 행동했다. 그러자 즉시 코를 찌르는 강한 타르 냄새가 느껴졌다.

"그놈이 빠져나갈 때 바로 그 지점에 발을 디뎠던 겁니다. 만약 당신이 그놈의 흔적을 쫓을 수 있다면, 토비도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자, 어서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개를 풀어주세요. 그리고 블론딘을 조심하고요."

"왓슨, 자네인가?" 그가 외쳤다.

"네."

"여기군. 저 아래에 있는 검은 물체는 대체 뭐지?"

"물통이군요."

"그 위에 뚜껑이 있나?"

"네."

"사다리 흔적은 전혀 없습니까?"

"아니오."

"제기랄, 정말이지! 여긴 너무 가파르군. 저 사람이 올라갈 수 있다면 나도 내려올 수 있어야 정상인데 말이야. 수도관은 꽤 튼튼해 보이는군. 어쨌든, 한번 가보자고."

발소리가 다급하게 들리더니, 랜턴 불빛이 벽면을 따라 꾸준히 내려오기 시작했다. 이어 그는 가볍게 뛰어올라 통 위로 착지하더니, 곧바로 땅으로 내려앉았다.

"그를 뒤쫓는 건 어렵지 않았네." 홈즈가 스타킹을 신고 장화를 신으며 말했다. "가는 길마다 타일이 들떠 있더군. 게다가 그놈이 서두르느라 이걸 떨어뜨리기까지 했어. 자네 같은 의사들이 말하는 표현을 빌리자면, 이건 내 진단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라네."

그가 내게 들어 보인 물건은 색색의 풀을 엮어 만든 작은 주머니였다. 주머니 주변에는 값싸 보이는 구슬 몇 개가 줄에 꿰어져 매달려 있었다. 모양과 크기는 담배 케이스와 비슷했다. 주머니 안에는 어두운 색의 나무 가시 여섯 개가 들어 있었다. 가시는 한쪽 끝은 날카롭고 다른 쪽 끝은 둥글었는데, 이는 바살러뮤 숄토를 찔렀던 것과 흡사한 형태였다.

"지독한 물건들이야." 홈즈가 말했다. "찔리지 않게 조심하게. 난 이 물건들을 손에 넣게 되어 아주 기쁘네. 아마 이게 그자가 가진 전부일 테니까. 덕분에 조만간 자네나 내가 이 가시에 찔릴 걱정은 덜 수 있겠지. 차라리 나라면 마티니 소총 탄환을 맞는 편이 낫겠네. 자, 왓슨. 6마일이나 되는 길을 걸어갈 준비는 됐나?"

"물론입니다." 내가 대답했다.

"다리는 괜찮겠나?"

"아, 그럼요."

"옳지, 착하다! 우리 토비, 잘한다! 냄새 맡아봐, 토비, 어서!"

홈즈는 크레오소트 냄새가 배어 있는 손수건을 개의 코끝에 들이밀었다. 털이 복슬복슬한 다리를 벌리고 서 있던 토비는 마치 유명한 빈티지 와인의 향을 음미하는 감정가처럼,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고개를 까딱이며 냄새를 맡았다.

그러고는 홈즈가 손수건을 멀리 던져버린 뒤, 잡종개의 목줄에 튼튼한 밧줄을 매어 물통 아래로 이끌었다. 그러자 개는 즉시 높고 떨리는 소리로 연신 짖어대기 시작했다. 토비는 코를 땅에 바짝 붙이고 꼬리를 치켜든 채, 줄이 팽팽해질 정도로 빠른 속도로 흔적을 따라 달려 나갔다. 우리도 그 뒤를 따라 전력 질주할 수밖에 없었다.

동쪽 하늘이 점차 밝아오면서, 차갑고 회색빛이 도는 새벽빛 사이로 어느 정도 앞이 보이기 시작했다. 우리 뒤편으로는 검고 텅 빈 창문과 높고 삭막한 벽을 가진 거대하고 육중한 저택이 슬프고도 쓸쓸한 모습으로 우뚝 솟아 있었다. 우리는 저택의 부지를 가로질러 나아갔다. 땅 곳곳에 파인 참호와 구덩이 사이를 이리저리 헤치며 길을 잡았다. 여기저기 흩어진 흙더미와 제멋대로 자란 관목들 때문에, 이 장소 전체에서는 불길하고 황폐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 모습은 마치 저택을 짓누르고 있는 검은 비극과도 묘하게 어우러지는 듯했다.

경계 담장에 다다르자 토비는 낑낑거리며 신나게 담장 그림자를 따라 달렸고, 어린 너도밤나무가 가려주고 있는 구석진 곳에서 마침내 멈춰 섰다. 두 담장이 만나는 지점에는 벽돌 몇 개가 느슨하게 빠져 있었는데, 그 틈새의 아랫부분은 마치 사다리처럼 자주 사용된 듯 닳아서 둥글게 변해 있었다. 홈즈는 그 틈을 딛고 기어올라가더니, 내게서 개를 건네받아 담장 너머로 던져주었다.

"의족을 한 자의 손자국이 있군." 내가 그 옆으로 다가가자 홈즈가 말했다. "하얀 석고 위에 피가 살짝 번진 게 보이지? 어제 이후로 큰 비가 내리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야. 범인들이 스물여덟 시간이나 먼저 출발했다지만, 길 위에 남은 냄새는 여전할 테니까."

나 역시 그사이 런던 도로를 오갔을 엄청난 통행량을 떠올리며 의구심을 품었음을 고백한다. 하지만 걱정은 금세 사라졌다. 토비는 망설이거나 길을 벗어나지 않고, 특유의 뒤뚱거리는 걸음걸이로 꿋꿋이 나아갔다. 크레오소트의 톡 쏘는 냄새가 다른 어떤 냄새보다도 강렬하게 풍겨 나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착각하지 마시오." 홈즈가 말했다. "이 사건을 해결하는 게 그저 이놈들 중 하나가 우연히 화학 약품을 밟았다는 사실에만 달려 있다고 생각하지 말란 뜻이오. 이제 내게는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그들을 추적할 수 있는 지식이 있소. 하지만 이건 가장 손쉬운 방법이지. 운 좋게 우리 손에 들어온 단서이기도 하니, 이걸 그냥 지나친다면 내 직무를 유기하는 셈이 될 거요. 다만 이 단서 때문에, 한때 꽤 흥미로운 지적 유희가 될 것 같았던 이 사건이 단순한 문제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군. 이 단서

만 아니었다면 꽤나 명성을 얻을 만한 사건이었을 텐데, 너무나 명백한 단서가 나와 버렸으니 말이오."

"충분하고도 남을 만큼의 신용이 있지요." 내가 말했다. "홈즈, 이번 사건에서 당신이 결과를 도출해내는 과정을 보며 정말 경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제퍼슨 호프 살인 사건 때보다도 더 놀라워요. 이번 일은 훨씬 더 깊고 설명하기 어려운 구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어떻게 의족을 한 남자에 대해 그토록 확신에 차서 묘사할 수 있었던 겁니까?"

"에이, 이 사람아! 아주 간단한 일이었네. 괜히 극적인 효과를 내려는 게 아니야. 모든 게 명백하고 숨김없이 드러나 있지 않은가. 죄수들을 감시하던 두 장교가 매장된 보물에 관한 중요한 비밀을 알게 된 거야. 그리고 조너선 스몰이라는 영국인이 그들에게 지도를 그려주었지. 모스턴 대위가 가지고 있던 해도에서 그 이름을 본 걸 기억할 걸세. 스몰은 자신과 동료들을 대표해서 그 지도에 서명했어. 본인이 좀 극적으로 표현하긴 했지만, 바로 '네 사람의 서명'이라 부른 그것 말일세. 이 지도의 도움을 받아 그 장교들, 혹은 그중 한 명이 보물을 손에 넣어 영국으로 가져온 거지. 아마도 보물을 받는 과정에서 약속했던 어떤 조건을 지키지 않은 채로 말이야. 자, 그렇다면 왜 조너선 스몰은 직접 보물을 차지하지 못했을까? 답은 자명하네. 지도가 작성된 시점은 모스턴 대위가 죄수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었던 때였지. 조너선 스몰이 보물을 얻지 못한 이유는, 그와 동료들 자체가 죄수 신분이라 도망칠 수 없었기 때문이라네."

"하지만 그건 그저 추측일 뿐입니다." 내가 말했다.

"그건 단순한 추측 그 이상입니다. 모든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가설이죠. 자, 이 가설이 이후의 사건들과 어떻게 맞아떨어지는지 살펴봅시다. 숄토 소령은 보물을 손에 넣고 행복하게 지내며 몇 년간 평온한 나날을 보냅니다. 그러다 인도에서 편지 한 통을 받게 되는데, 그 편지를 읽고는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죠. 대체 그 편지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이 잘못 대했던 사람들을 모두 풀어주었다는 내용의 편지였다."

"아니면 탈출했을 수도 있지. 그게 훨씬 가능성 높은 이야기야. 그는 그들의 형기가 얼마인지 알고 있었을 테니까. 갑작스러운 일로 받아들이지도 않았을 거야.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는 어떻게 행동했나? 그는 의족을 한 남자를 경계했어. 여기서 중요한 건 그가 백인을 경계했다는 점이야. 왜냐하면 그는 백인 상인을 그놈으로 착각해서 실제로 권총을 발사했거든. 자, 해도에 적힌 백인의 이름은 단 한 명뿐이야. 나머지는 모두 힌두교도나 이슬람교도지. 다른 백인은 없어. 그러니 의족을 한 남자가 바로 조너선 스몰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야. 내 추리에 논리적 결함이 있다고 생각하나?"

"아니요, 명료하고 간결합니다."

"자, 이제 조너선 스몰의 입장이 되어 봅시다. 그의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는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되찾고, 자신

에게 해를 끼친 자에게 복수하겠다는 두 가지 목적을 품고 영국으로 왔습니다. 그는 숄토가 어디에 사는지 알아냈고, 어쩌면 집 안의 누군가와 연락을 주고받았을 가능성도 큽니다. 아직 등장하지 않은 라르 라오라는 집사가 있는데, 버른스톤 부인의 말에 따르면 평판이 그리 좋지 않은 인물이지요. 하지만 스몰은 보물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는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숄토 소령과 이미 사망한 충직한 하인 한 명 외에는 아무도 그 위치를 몰랐으니까요.

그러던 중 스몰은 소령이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갑작스럽게 알게 됩니다. 보물의 비밀이 소령과 함께 사라질까 봐 겁이 난 스몰은 광기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경비병들을 뚫고 죽어가는 노인의 창가까지 달려갔고, 소령의 두 아들이 지키고 있었기에 간신히 침입을 면했습니다. 하지만 죽은 이에 대한 증오로 미쳐버린 스몰은 그날 밤 결국 방 안으로 잠입했습니다. 보물과 관련된 기록이라도 찾을 심산으로 개인 서류들을 샅샅이 뒤졌고, 마지막에는 카드에 짧은 문구를 남겨 자신의 방문을 알리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는 아마도 소령을 살해할 경우, 이것이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네 명의 동료에게는 일종의 정의를 실현한 행위라는 표식으로 시신에 어떤 기록을 남기겠다고 미리 계획했을 겁니다. 범죄의 역사에서 이런 기괴하고 별난 행동은 흔히 나타나며, 대개 범인의 성향을 파악하는 데 귀중한 단서가 되곤 하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주 또렷하게요."

"자, 조너선 스몰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나? 그는 보물을 찾으려는 움직임을 비밀리에 계속 감시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네. 아마 영국을 떠나 있다가 가끔씩만 돌아왔을 테지. 그러다 다락방이 발견되자마자 그는 즉시 소식을 듣게 된 것이고.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그 집안에 공범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네. 의족을 사용하는 조너선은 바살러뮤 숄토의 높은 다락방까지 올라갈 능력이 전혀 없었으니까. 하지만 그는 아주 기묘한 동료를 데리고 다녔네. 그 동료는 다락방에 올라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지만, 맨발을 크레오소트에 담그는 바람에 토비가 생겨나고 만 것이지. 게다가 아킬레스건을 다친 퇴역 장교가 6마일을 절뚝거리며 걸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진 걸세."

"하지만 범죄를 저지른 건 조너선이 아니라, 그의 동료였습니다."

"그렇고말고요. 조너선이 방에 들어서자마자 발을 구르며 화를 내는 모양새를 보니, 꽤나 불쾌했던 모양입니다. 그는 바살러뮤 숄토에게 원한을 품은 게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그저 몸을 묶고 입을 막아두는 편이 나았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스스로 목을 매는 것과 다름없는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동행했던 자의 야수 같은 본능이 터져 나왔고, 독이 이미 작용해 버린 뒤였으니까요. 결국 조너선 스몰은 자신의 흔적을 남긴 채 보물 상자를 바닥으로 내려놓고는, 상자를 따라가 버렸습니다. 제가 파악한 사건의 경위는 여기까지입니다. 물론 그의 외모를 추측해 보자면, 중년쯤 되었을 것이고 안다만 제도의 그 뜨거운 지옥 같은 곳에서 복역하느라 피부는 검게 그을렸을 겁니다. 키는 보폭의 길이를 통해 쉽게 계산할 수 있고, 수염을 길렀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그를

목격한 새디어스 숄토가 가장 인상 깊게 기억하는 점도 바로 그 덥수룩한 털이었고요. 그 외에 다른 특징은 더 모르겠습니다."

"동료 말입니까?"

"아, 뭐, 그건 그리 대단한 수수께끼도 아니네. 하지만 곧 전부 알게 될 거야. 아침 공기가 참 달콤하군! 저기 봐, 작은 구름 하나가 거대한 홍학의 분홍빛 깃털처럼 떠다니고 있네. 이제 태양의 붉은 테두리가 런던의 구름층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있어. 저 빛이 수많은 사람을 비추고 있겠지만, 자네와 나만큼 기묘한 용무를 쥐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장담하네. 대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 서니, 우리의 사소한 야망과 분투가 얼마나 보잘것없게 느껴지는가! 그나저나, 자네는 장 파울의 저작을 좀 읽었나?"

"맞습니다. 칼라일을 거쳐 그에게까지 추적해 올라갔습니다."

"그건 마치 작은 시냇물을 따라가다 마침내 거대한 호수를 마주하는 기분이었네. 그는 아주 기묘하면서도 심오한 말을 남겼지. 인간의 진정한 위대함은 역설적이게도 자기 자신이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데 있다는 말일세. 자네도 알다시피, 이는 비교하고 가치를 판단할 줄 아는 능력이 있다는 뜻이고, 그 능력 자체가 인간의 고결함을 증명하는 것이라네. 리히터의 글에는 생각할 거리가 아주 많아. 그나저나, 자네 권총은 가지고 있나?"

"지팡이는 챙겼습니다."

"놈들의 은신처에 도착하면 그런 대책이 필요할지도 모르겠군. 조너선은 자네가 맡아주게. 하지만 다른 놈이 거칠게 나온다면 내가 쏴 죽여버리겠네." 홈즈는 말을 하며 권총을 꺼냈다. 그는 약실에 두 발을 장전한 뒤, 다시 재킷 오른쪽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그동안 우리는 토비가 이끄는 대로 도심으로 이어지는, 반전원적인 별장 지대 도로를 따라 내려왔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거리에는 이미 노동자들과 부두 일꾼들이 분주히 움직였고, 차림새가 단정치 못한 여인들은 덧문을 내리거나 문 앞의 계단을 쓸고 있었다. 사각형 모양의 지붕이 얹힌 모퉁이 선술집들은 이제 막 영업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고, 거친 인상의 사내들이 아침 해장술을 한잔 걸친 뒤 소매로 수염을 쓱 문지르며 하나둘 밖으로 나오고 있었다. 우리가 지나갈 때면 낯선 개들이 한가로이 다가와 우리를 신기한 듯 빤히 바라보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의 독보적인 안내자 토비는 좌우를 돌아보지도 않은 채, 코를 땅에 바짝 붙이고 앞만 향해 달려 나갔다. 토비는 가끔씩 흥분 섞인 낑낑거림을 내뱉었는데, 이는 아주 강렬한 냄새를 맡았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우리는 스트리텀과 브릭스턴, 캠버웰을 지나, 오발 동쪽의 골목길을 거쳐 이제 켄닝턴 레인에 들어섰다. 쫓던 사내들은 아마도 눈에 띄지 않으려고 일부러 지그재그로 길을 돌아간 모양이었다. 그들은 평행하게 이어진 골목길이 있다면 결코 큰길로 다니지 않았다. 켄닝턴 레인 초입에서 그들은 본드 스트리트와 마일스 스트리트를 거쳐 왼쪽으로 비껴갔다. 마일스 스트리트가 나이츠 플레이스로 이어지는 지점에서 토비가 발걸음을 멈췄다. 그러더니 한쪽 귀는 쫑긋 세우고 다른 쪽은

축 늘어뜨린 채, 앞뒤로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다. 마치 갈피를 잡지 못하는 강아지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그러다 토비는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돌더니, 가끔 우리를 올려다보았다. 마치 이 난처한 상황에 동조해 달라는 듯한 눈치였다.

"대체 저 개는 왜 저러는 거야?" 홈즈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저들이 마차를 타거나 열기구를 타고 떠났을 리는 없잖아."

"아마도 이들이 이곳에 꽤 오랫동안 서 있었던 모양입니다." 내가 의견을 냈다.

"아, 이제 됐어. 또 나갔군." 내 동료가 안도하는 기색으로 말했다.

개는 정말로 다시 출발했다. 냄새를 한 번 더 킁킁 맡던 개는 갑자기 결심이라도 한 듯, 지금까지 보여준 적 없는 활기와 단호함을 내뿜으며 달려 나갔다. 냄새가 이전보다 훨씬 강해진 모양인지, 개는 코를 땅에 대지도 않은 채 목줄을 잡아당기며 달리기 시작했다. 홈즈의 눈빛이 번뜩이는 것을 보고 나는 알 수 있었다. 우리가 목적지에 거의 다다랐다는 사실을 그도 직감하고 있었다.

우리는 나인 엘름스 거리를 따라 내려가 화이트 이글 선술집을 지나 브로데릭 앤 넬슨의 커다란 목재 적치장에 도착했다. 흥분으로 정신없이 날뛰던 개는 측면 대문을 통해 울타리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그곳에서는 이미 제재공들이 톱질 작업을 하고 있었다. 개는 톱밥과 나무 조각이 흩어진 바닥을 가로질러 골목을 지나고, 통로를 돌아 나무 더미 사이를 헤치며 달렸다. 마침내 개는 승리감에 도취한 듯 짖어대며, 처

음 실려 왔을 때 놓여 있던 손수레 위 커다란 통 위로 뛰어올랐다. 토비는 혀를 길게 내밀고 눈을 깜빡이며 통 위에 서서, 우리가 칭찬이라도 해줄 기색을 보이는지 우리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통의 나무 판자와 수레 바퀴에는 검은 액체가 묻어 있었고, 공기 중에는 크레오소트 냄새가 짙게 풍겼다.

셜록 홈즈와 나는 서로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러다 우리는 동시에 참을 수 없는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제8장 베이커가의 부랑아들

제8장 베이커가의 부랑아들

"이제 어떻게 할까요?" 내가 물었다. "토비가 실수할 줄이야, 정말 믿기지 않는군요."

"그는 자신이 아는 대로 행동했을 뿐이야."

홈즈가 통에서 그를 내려준 뒤 목재 보관소를 나선 채 말했다.

"런던 전역에서 하루에 얼마나 많은 양의 크레오소트가 운반되는지 생각해보게. 우리가 쫓던 흔적이 다른 흔적과 뒤섞인 건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야. 요즘은 특히 목재를 가공할 때 크레오소트를 아주 많이 쓰거든. 불쌍한 토비의 잘못이 아니네."

"다시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내야겠군요."

"그래. 게다가 다행히도 멀리 갈 필요도 없겠네. 나이츠 플레이스 모퉁이에서 개가 당황했던 이유는 분명히 반대 방향으로 갈라지는 두 갈

래의 흔적 때문이었을 거야. 우리가 잘못된 길을 택한 것이지. 이제 남은 건 다른 쪽 길을 따라가는 것뿐이네."

이 일은 어렵지 않았다. 토비를 잘못을 저질렀던 장소로 데려가자, 녀석은 넓게 원을 그리며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마침내 새로운 방향을 향해 돌진했다.

"토비가 이번에는 크레오소트 통이 실려 온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말했다.

"그 생각도 해봤네. 하지만 보게나, 그는 계속 인도 위로만 다니고 있지 않은가? 반면 통은 차도가 있는 길을 따라 내려갔어. 아니, 이제야 제대로 된 냄새를 맡은 것 같군."

그 길은 벨몬트 플레이스와 프린스 스트리트를 지나 강가 쪽으로 이어졌다. 브로드 스트리트 끝에 다다르면 길은 물가까지 곧장 뻗어 있었고, 그곳에는 작은 나무 선착장이 하나 있었다. 토비는 우리를 선착장 맨 끝자락으로 안내했다. 녀석은 어두운 강물이 흐르는 쪽을 바라보며 낑낑거리고 서 있었다.

"운이 없군." 홈즈가 말했다. "놈들이 여기서 배를 타고 도망쳤어." 물 위와 부두 가장자리에는 작은 평저선과 나룻배 몇 척이 떠 있었다. 우리는 토비를 데리고 배를 한 척씩 차례로 살펴보았다. 토비가 열심히 냄새를 맡긴 했지만,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조잡한 선착장 근처에는 작은 벽돌집 한 채가 있었다. 두 번째 창문에는 나무 표지판 하나가 매달려 있었는데, 거기에는 '모데카이 스미

스'라는 이름이 커다란 글자로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보트 대여: 시간 단위 또는 일 단위'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다. 문 위에는 증기선을 운영한다는 또 다른 안내문도 붙어 있었는데, 부두에 쌓인 엄청난 양의 코크스 더미를 보니 그 말이 사실임을 알 수 있었다. 셜록 홈즈는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더니, 이내 불길한 표정을 지었다.

"상황이 좋지 않군." 홈즈가 말했다. "이놈들, 생각보다 훨씬 영악해. 흔적을 아주 깔끔하게 지워 놓았어. 아무래도 미리 치밀하게 계획을 짜고 움직인 모양이야."

그가 집 문으로 다가가던 참이었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곱슬머리를 한 여섯 살 남짓한 어린 소년이 뛰어나왔다. 그 뒤로는 손에 커다란 스펀지를 든, 얼굴이 붉고 체격이 다소 있는 여인이 뒤따라 나오고 있었다.

"잭, 어서 돌아와서 몸 좀 씻으렴!" 그녀가 소리쳤다. "어서 돌아와, 이 말썽꾸러기 녀석아! 네 아버지가 집에 오셨다가 네 꼴을 보시면, 아주 난리가 날 테니까."

"귀여운 녀석 같으니!" 홈즈가 전략적으로 말을 건넸다. "볼이 발그레한 게 아주 장난기 가득한 꼬마로구나! 자, 잭, 뭐 갖고 싶은 거라도 있니?"

소년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다. "실링 한 닢만 주쇼."

"그것보다 더 갖고 싶은 건 없니?"

"생각해 보니 2실링이 더 좋겠어요." 그 천재적인 아이가 잠시 고민하더니 대답했다.

"자, 여기 있습니다! 받으세요! — 아주 예쁜 아이군요, 스미스 부인!"

"맙소사, 선생님, 그 아이가 정말 그렇답니다, 게다가 아주 되바라졌지요. 어찌나 부쩍 자라는지 제가 감당하기 벅찰 지경이에요. 특히 남편이 며칠씩 집을 비울 때면 정말 힘에 부친답니다."

"떠났다고요?" 홈즈가 실망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유감이군요. 스미스 씨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었는데 말입니다."

"어제 아침부터 나가셨는데,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슬슬 그이가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만약 배와 관련된 일이라면, 제가 힘을 보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증기 보트를 빌리고 싶었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정말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자가 증기선을 타고 떠났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제가 당혹스러운 이유입니다. 그 배에는 울위치까지 왕복하고 나면 바닥이 날 정도로 석탄이 얼마 없거든요. 만약 그자가 바지선을 타고 갔다면 아무 의심도 안 했을 겁니다. 일 때문에 그레이브샌드까지 가는 일도 허다했고, 거기서 일이 좀 길어지면 하룻밤 묵고 오는 경우도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석탄도 없는 증기선이 대체 어디에 쓸모가 있겠습니까?"

"강 하류 어느 부두에서 좀 사들였을지도 모르지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선생님. 하지만 그분 성격에 그럴 리는 없습니다. 잡동사니 가방 몇 개 값에 그렇다고 비싸게 부르는 걸 보고 화를 내시는 걸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니거든요. 게다가 저는 그 외다리 사내도 마음에 안 듭니다. 얼굴도 흉측한 데다 말투도 아주 이상하잖아요. 대체 무슨 일로 자꾸 여기를 기웃거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의족을 한 사람이라고요?" 홈즈가 무심한 듯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네, 선생님. 갈색 피부에 원숭이 같은 얼굴을 한 녀석인데, 우리 남편을 찾아온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젯밤에 남편을 깨운 것도 바로 그놈이었고요. 게다가 우리 남편은 그놈이 올 줄 미리 알고 있었어요. 보트에 증기를 올려둔 걸 보면 말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생님, 저는 이 일이 영 불안합니다."

"하지만 스미스 부인," 홈즈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아무것도 아닌 일로 스스로를 겁주고 계시는군요. 밤에 들어온 사람이 의족을 한 사내라는 걸 대체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렇게 확신하시는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군요."

"그 사람 목소리 말입니다, 선생님. 저는 그 목소리를 알아요. 약간 굵고 탁한 목소리였죠. 그 사람이 창문을 똑똑 두드렸을 때는 아마 3시쯤이었을 겁니다. '어이, 친구, 일어나게,' 그가 말했어요. '보초 설 시간이야.' 그러자 우리 남편이 첫째인 짐을 깨웠고, 두 사람은 저에게 말

한마디 없이 바로 나가버렸습니다. 돌바닥 위로 나무 의족이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의족을 한 남자는 혼자였습니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선생님. 다른 사람 목소리는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스미스 부인. 증기 보트를 빌리려던 참이었거든요. 듣기로는 그 배가 아주 괜찮다고 하던데…… 어디 보자, 배 이름이 무엇이었더라?"

"오로라 호입니다, 선생님."

"아! 노란 선이 그어진, 폭이 아주 넓은 그 낡은 초록색 보트 말인가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강에 떠 있는 배들 중에서도 아주 깔끔하게 잘 관리된 배입니다. 최근에 새로 칠을 했더군요. 검은 바탕에 붉은 줄무늬가 두 줄 그어져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스미스 씨에게 곧 소식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 강을 따라 내려가는 중입니다. 혹시라도 오로라 호를 보게 되면, 당신이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에게 꼭 전하겠습니다. 검은색 굴뚝이라고 하셨지요?"

"아닙니다. 검은색 바탕에 흰색 띠가 둘러져 있습니다."

"아, 그렇군. 옆면이 검은색이었지. 좋은 아침입니다, 스미스 부인. 왓슨, 여기 나룻배를 끄는 사공이 있네. 저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세."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상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말이야," 나룻배의 덮개 아래 앉아 있는 우리를 향해 홈즈가 말했다. "그들이 가져온 정보가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만약 조금이라도 중요하게 여기는 기색을 보이면, 그들은 즉시 굴 껍데기처럼 입을 꽉 다물어 버릴 테니까. 차라리 마지못해 들어주는 척하면서 귀를 기울여야 해. 그래야 원하는 정보를 얻어낼 가능성이 커지거든."

"이제 우리가 나아갈 길이 꽤 명확해 보이는군요." 내가 말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트를 한 척 빌려서 오로라 호가 지나간 흔적을 따라 강을 내려가겠습니다."

"이보게, 그건 엄청나게 힘든 일이 될 거야. 그 배가 여기서 그리니치 사이의 강 양편 어느 선착장에든 들렀을 수 있으니까. 다리 아래쪽에는 수 마일에 걸쳐 선착장들이 미로처럼 얽혀 있네. 자네 혼자서 그곳을 하나하나 다 뒤지려면 며칠이고 며칠이 걸릴 걸세."

"그럼 경찰을 부르시지요."

"아니요. 아마 마지막 순간에 애설니 존스를 불러들일 겁니다.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요. 그의 경력에 해가 될 만한 일은 하고 싶지 않습니

다. 하지만 여기까지 왔으니, 이번 사건은 제 손으로 직접 해결해 보고 싶군요."

"그렇다면 부두 관리인들에게 정보를 구한다는 내용으로 광고를 내는 건 어떨까요?"

"상황이 갈수록 나빠질 겁니다! 추격이 바짝 코앞까지 닥쳤다는 걸 알게 되면, 우리가 쫓는 그자들은 당장 나라 밖으로 달아날 겁니다. 지금 상태로도 그들이 떠날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자신들이 아주 안전하다고 믿는 한 서두르지는 않겠지요. 그 점에서는 존스의 열정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가 사건을 보는 견해가 분명 일간 신문에 실릴 테니, 도망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모두 엉뚱한 단서를 쫓고 있다고 믿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밀뱅크 교도소 근처에 배를 대며 내가 물었다.

"이 한섬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게. 가서 아침도 좀 먹고 한 시간이라도 눈을 붙이게나. 오늘 밤에 다시 움직이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으니까. 마부 양반, 가는 길에 전신국에 좀 들러주게! 토비는 그대로 두게, 아직 우리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르니까."

우리는 그레이트 피터가 우체국 앞에 멈춰 섰고, 홈즈는 곧장 전보를 보냈다. 다시 길을 나서며 홈즈가 물었다. "방금 보낸 전보가 누구에게 가는 것 같나?"

"정말이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제퍼슨 호프 사건 때 내가 고용했던 베이커가 소속의 탐정 경찰들을 기억하나?"

"허허," 내가 웃으며 말했다.

"이건 아주 결정적인 상황이라 아주 유용할 걸세. 만약 실패하더라도 내게는 다른 수단이 있지만, 우선은 이 방법을 먼저 써보겠네. 방금 보낸 전보는 내 작은 부하인 위긴스에게 보낸 것이니, 우리가 아침 식사를 마치기도 전에 그와 그 일당이 이곳에 도착할 걸세."

시계는 여덟 시와 아홉 시 사이를 가리키고 있었다. 밤새 이어진 긴박한 사건들 탓인지, 나는 밀려드는 피로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몸은 나른하고 지쳤으며, 정신은 안개가 낀 듯 몽롱했다. 동료인 홈즈처럼 사건에 열광할 기운도 없었고, 이 일을 그저 지적인 유희나 추상적인 문제로 바라볼 여유조차 없었다. 바살러뮤 숄토의 죽음에 관해서라면, 나는 그에 대해 좋은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었기에 그의 살해범들에게 딱히 강한 적개심이 들지도 않았다.

하지만 보물은 이야기가 달랐다. 그 보물 전체 혹은 일부는 마땅히 메리 모스턴 양의 것이었다. 보물을 되찾을 가능성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내 모든 삶을 그 목표에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물론 보물을 찾아준다면, 그 일로 인해 그녀가 영영 내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떠나버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런 생각에 휘둘리는 것은 속 좁고 이기적인 사랑일 뿐이다. 홈즈가 범인을 잡기 위해 힘쓴다면, 나는 보물을 찾기 위해 움직여야 할 열 배는 더 강력한 이유가 있었다.

베이커가에서 목욕을 하고 기분 전환을 하고 나니 몸이 아주 상쾌해졌다. 우리 방으로 내려가 보니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고, 홈즈는 커피를 따르고 있었다.

"여기 있네." 그가 웃으며 펼쳐진 신문을 가리키며 말했다. "기운 넘치는 존스 경위와 어디에나 나타나는 기자 놈들이 둘이서 아주 판을 짜놓았더군. 하지만 자네는 이 사건에 대해 이미 충분히 들었으니, 우선 햄과 달걀 요리부터 먹는 게 좋겠어."

나는 그에게서 종이를 건네받아 짧은 공고문을 읽어 내려갔다. 그 글의 제목은 '어퍼 노우드의 기묘한 사건'이었다.

"어젯밤 12시경," 《스탠더드》 지가 보도했다. "어퍼 노우드의 폰디체리 로지에 거주하는 바살러뮤 숄토 씨가 자신의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사건 정황을 미루어 볼 때 타살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숄토 씨의 몸에서 직접적인 폭행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고인이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귀중한 인도산 보석 컬렉션이 도난당했다.

이 사실을 처음 발견한 이들은 셜록 홈즈와 왓슨 박사였다. 두 사람은 고인의 동생인 새디어스 숄토 씨와 함께 이 저택을 방문 중이었다. 다행히도 유명한 형사로 알려진 애설니 존스 경위가 마침 노우드 경찰서에 있었던 덕분에, 신고가 접수된 지 30분도 채 되지 않아 현장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는 숙련된 경험과 직관을 발휘해 즉시 범인 추적에 나섰으며, 그 결과 고인의 동생 새디어스 숄토를 비롯해 가사도우미 번

스톤 부인, 랄 라오라는 이름의 인도인 집사, 그리고 맥머도라는 이름의 문지기를 이미 체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도둑은 이 집의 구조를 아주 잘 알고 있었던 것이 확실해 보인다. 존스 경위는 특유의 전문 지식과 세밀한 관찰력을 발휘하여, 범인들이 문이나 창문으로 들어온 것이 아님을 결정적으로 입증했다. 범인들은 건물 지붕을 타고 이동한 뒤, 시신이 발견된 방과 연결된 방의 천장 다락문으로 침입한 것으로 보인다. 명확히 밝혀진 이 사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우발적 절도가 아님을 증명한다.

법 집행관들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은, 이런 상황에서 단 한 명의 활기차고 통찰력 있는 인물이 현장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는 수사관들의 권한을 분산시켜, 그들이 맡은 사건에 더 밀접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정말 근사하지 않나!" 홈즈가 커피잔 너머로 활짝 웃으며 말했다. "자네 생각은 어떤가?"

"우리도 자칫하면 그 범죄의 용의자로 체포될 뻔했군요."

"나도 마찬가지라네. 만약 그가 다시 한번 그 특유의 넘치는 에너지를 발산하기라도 한다면, 우리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을 것 같군."

그 순간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다. 집주인인 허드슨 부인이 당황한 기색으로 항의하며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맙소사, 홈즈." 나는 몸을 반쯤 일으키며 말했다. "정말로 그들이 우리를 뒤쫓고 있는 것 같소."

"아니, 그렇게까지 나쁜 상황은 아니네. 비공식적인 조직이 있거든. 바로 '베이커가 불규칙 특공대'라네."

그가 말을 마침과 동시에 계단 위로 맨발이 빠르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뒤이어 높은 목소리들이 왁자지껄하게 울려 퍼지더니, 지저분하고 누더기를 걸친 어린 거리의 아이들 열두 명쯤이 방 안으로 우르르 들이닥쳤다. 소란스럽게 들어온 것치고는 아이들에게서 묘한 질서가 느껴졌다. 아이들은 들어오자마자 즉시 줄을 맞춰 섰고, 기대에 찬 얼굴로 우리를 마주 보았다. 그중 다른 아이들보다 키가 크고 나이가 좀 더 들어 보이는 한 아이가 앞으로 나섰다. 그 아이는 마치 거드름을 피우는 듯한 거만한 태도를 취했는데, 그런 불량스러운 꼬마 허수아비가 그런 태도를 보이니 무척이나 우스꽝스러웠다.

"전갈을 받고 바로 가져왔습니다, 선생님." 그가 말했다. "표 값으로 3실링에 6펜스 냈습니다."

"여기 있다." 홈즈가 은화를 꺼내며 말했다. "위긴스, 앞으로는 아이들이 자네에게 보고하면, 자네가 나에게 보고하게. 이런 식으로 집안까지 침범당하는 건 더 이상 못 참겠네. 어쨌든 다 같이 지시 사항을 듣는 게 좋겠군. '오로라'호라는 증기 보트의 행방을 찾아야 하네. 주인은 모데카이 스미스이고, 선체는 검은색 바탕에 붉은 줄 두 개가 그어져 있지. 굴뚝은 검은색인데 흰색 띠가 둘러져 있네. 아마 강 아래쪽 어딘가에 있을 거야. 아이들 중 한 명은 밀뱅크 맞은편에 있는 모데카이 스

미스의 선착장에 가서 보트가 돌아오는지 지켜보게. 나머지는 돈을 나누어 갖고 강 양쪽 기슭을 샅샅이 뒤져야 하네. 소식이 들어오는 즉시 나에게 알려주게. 다 이해했나?"

"네, 형님." 위긴스가 대답했다.

"급료는 예전 방식대로 주겠네. 그리고 배를 찾아내는 아이에게는 기니 한 닢을 더 얹어주지. 자, 이건 하루치 급료를 미리 주는 걸세. 이제 어서 가보게!"

그는 아이들에게 각각 1실링씩 쥐여주었다. 아이들은 웅웅거리며 계단을 뛰어 내려갔고, 잠시 후 거리로 쏟아져 나가는 모습이 내 눈에 보였다.

"보트가 수면 위로 떠 있다면 분명 찾아낼 겁니다."

홈즈가 탁자에서 일어나 파이프에 불을 붙이며 말했다.

"그들은 어디든 갈 수 있고, 무엇이든 볼 수 있으며, 누구의 대화든 엿들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 저녁이 되기 전에 보트를 발견했다는 소식이 들려올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결과를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오로라*호나 모데카이 스미스 씨를 찾아내기 전까지는, 끊겨버린 흔적을 다시 쫓을 방법이 없으니까요."

"토비라면 이 잔반들을 다 먹을 수 있을 걸세. 홈즈, 자네 벌써 자려는 건가?"

"아니요, 피곤하지 않습니다. 제 체질이 좀 특이해서 말이죠. 일할 때는 피곤함을 느껴본 적이 거의 없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거릴 때는 완전히 진이 빠지곤 합니다. 이제 담배를 좀 피우면서, 아름다운 의뢰인이 우리에게 가져온 이 기묘한 사건을 차분히 되짚어 볼 생각입니다. 만약 세상에 쉬운 일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일이야말로 가장 쉬운 일이어야 합니다. 의족을 한 사람을 만나는 게 아주 드문 일은 아니지만, 나머지 한 사람은 분명 세상에 둘도 없는 독특한 인물일 겁니다."

"또 그놈이군!"

"그 사람에 대해 당신에게 굳이 수수께끼처럼 말하고 싶지는 않군요. 하지만 당신도 나름의 판단을 내렸을 겁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나온 단서들을 한번 검토해 보시죠. 아주 작은 발자국, 신발을 신지 않아 발가락이 그대로 드러난 맨발, 돌머리가 달린 나무 곤봉, 놀라운 민첩성, 그리고 작은 독침까지.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무엇이 결론 나옵니까?"

"야만인이군!" 내가 외쳤다. "어쩌면 조너선 스몰과 함께 움직였던 인디언 중 하나일지도 모르겠어."

"그건 아닐 겁니다." 홈즈가 말했다. "처음 이상한 무기들을 발견했을 때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발자국이 너무나 특이해서 생각을 고쳐먹을 수밖에 없었죠. 인도 반도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 체구가 작은 이들도 있지만, 이런 발자국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형적인 힌두교도는 발이 길고 가늘며, 샌들을 신는 무슬림

은 가죽끈을 발가락 사이에 끼워 신기 때문에 엄지발가락이 다른 발가락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게다가 이 작은 화살들도 쏘는 방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독침통으로 쏜 겁니다. 자, 이제 이 야만인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남미 사람인가 보군요." 내가 조심스럽게 추측했다.

홈즈는 손을 뻗어 선반에서 두툼한 책 한 권을 꺼냈다. "지금 출간 중인 지리서의 제1권이라네. 최신 권위를 가진 자료라고 봐도 무방하지. 어디 보자, 여기 뭐가 있나? '안다만 제도. 수마트라에서 북쪽으로 340마일 떨어진 벵골만 내에 위치함.' 흠, 흠! 이게 다 뭐지? 습한 기후, 산호초, 상어, 포트 블레어, 죄수 수용소, 러틀랜드 섬, 미루나무— 아, 여기 있군. '안다만 제도의 원주민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작은 종족이라는 명성을 가질지도 모른다. 비록 일부 인류학자들은 아프리카의 부시맨이나 아메리카의 디거 인디언, 혹은 티에라델푸에고인을 더 꼽기도 하지만 말이다. 평균 신장은 4피트보다 다소 낮으며, 성인이 되어서도 이보다 훨씬 작은 이들이 많다. 이들은 사납고 우울하며 다루기 힘든 민족이지만, 일단 신뢰를 얻으면 매우 헌신적인 우정을 나누기도 한다.'"

"잘 적어두게, 왓슨. 자, 이제 이것도 들어보게나. '그들은 타고나기를 흉측한 외모를 지녔다. 머리는 크고 기형적이며, 눈은 작고 사납고, 이목구비는 뒤틀려 있다. 하지만 손과 발은 놀라울 정도로 작다. 워낙 다루기 힘들고 사나워서 영국 관리들이 그들의 마음을 얻으려 온갖 노력을 다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이들은 난파된 선원들에게 언제나 공포

의 대상이었다. 돌머리가 달린 몽둥이로 생존자의 머리를 내리치거나, 독화살을 쏘아 죽이곤 했다. 이러한 학살은 예외 없이 식인 축제로 끝을 맺는다.'"

"참으로 친절하고 상냥한 사람들이군, 왓슨! 만약 이 자가 혼자서 일을 처리했다면 사건은 훨씬 더 끔찍한 방향으로 흘러갔을지도 모르겠어. 내 생각엔, 지금 상황만 해도 조너선 스몰은 그를 고용한 것을 두고두고 몹시 후회하고 있을 걸세."

"그런데 대체 그가 어떻게 저토록 기이한 동행을 하게 된 걸까요?"

"아, 그건 나도 뭐라 설명하기 어렵군. 하지만 스몰이 안다만 제도에서 왔다는 사실을 이미 확인했으니, 이 섬 주민이 그와 함께 있는 것도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야. 때가 되면 분명 모든 내막을 알게 되겠지. 이보게, 왓슨. 자네 안색이 말이 아니군. 저기 소파에 좀 눕게나. 내가 자네를 재워줄 수 있는지 한번 보세."

그는 구석에 놓아둔 바이올린을 집어 들었다. 내가 몸을 길게 뻗어 누우니, 그는 낮고 몽환적이며 감미로운 선율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즉흥 연주에 탁월한 재능이 있는 그가 직접 만든 곡임이 분명했다. 나는 그의 앙상한 팔다리와 진지한 표정, 그리고 활이 오르내리는 움직임을 어렴풋이 기억한다. 그러다 마치 부드러운 소리의 바다 위를 평온하게 떠다니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어느덧 꿈속에서 메리 모스턴의 아름다운 얼굴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제9장 끊어진 고리

제9장 사슬의 끊어짐

기운을 차리고 정신이 맑아진 채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늦은 오후였다. 셜록 홈즈는 내가 떠날 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다만 바이올린은 옆에 내려놓은 채 책에 깊이 몰두하고 있을 뿐이었다. 내가 몸을 뒤척이자 홈즈가 나를 바라보았다. 그때 나는 그의 얼굴이 어둡고 수심에 잠겨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푹 자더군." 그가 말했다. "우리 대화 소리에 깰까 봐 걱정했네."

"아무 소식도 듣지 못했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그럼, 새로 들어온 소식이라도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놀랍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하군요. 이쯤 되면 분명한 결과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방금 위긴스가 보고하러 왔는데, 보트의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매 순간이 중요한 상황에서 이런 차질이 생기다니, 정말 화가 나는군요."

"제가 도울 일은 없을까요? 지금은 아주 개운하니, 오늘 밤에도 얼마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저 기다리는 수밖에요. 우리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메시지가 도착하면 오히려 일이 지체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하지만 나는 이곳을 지키며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럼 캠버웰로 달려가서 세실 포레스터 부인을 찾아뵙겠습니다. 어제 부인께서 저를 불러달라고 부탁하셨거든요."

"세실 포레스터 부인 말씀입니까?" 홈즈가 물었다. 그의 눈에는 장난기 어린 미소가 반짝였다.

"물론 모스턴 양도 포함이죠. 다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무척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너무 많은 걸 말하지 않는 게 좋겠어." 홈즈가 말했다. "여자는 결코 완전히 믿어서는 안 되거든. 아무리 선한 여자라 할지라도 말이야."

나는 이 끔찍한 감정에 대해 따지느라 시간을 지체하지 않았다. "한두 시간 뒤에 돌아오겠네." 내가 말했다.

"좋아! 행운을 비네! 그런데 말이야, 강을 건너갈 거라면 차라리 토비를 돌려보내는 게 어떻겠나? 이제 와서 우리가 토비를 쓸 일은 전혀 없을 것 같거든."

나는 우리 잡종개를 데리고 핀친 레인에 있는 늙은 박물학자에게 갔다. 그곳에 개를 맡기면서 반 소버린 동전 하나도 함께 건넸다. 캠버웰에서 만난 모스턴 양은 밤새 겪은 일들 때문에 다소 지쳐 보였으나, 소식을 듣고 싶어 하는 마음은 매우 간절했다. 포레스터 부인 역시 호기심이 가득한 모습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모두 이야기해 주었다. 다만 비극적인 사건 중 가장 끔찍한 부분은 숨겼다. 숄토 씨가 사망했다는 사실은 말했지만, 정확히 어떤 방식과 수법으로 죽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내가 많은 내용을 생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놀라 자빠지기에 충분할 만큼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이건 완전히 로맨스 소설이잖아요!" 포레스터 부인이 외쳤다. "상처 입은 여인과 50만 파운드에 달하는 보물, 검은 피부의 식인종, 그리고 의족을 한 무법자라니요. 마치 전형적인 용이나 사악한 백작이 나올 자리를 이들이 대신 차지한 것 같군요."

"그리고 두 명의 기사가 구하러 오겠군요." 모스턴 양이 나를 향해 밝은 눈빛을 보내며 덧붙였다.

"메리, 이번 수색의 결과에 당신의 운명이 달려 있어요. 지금 당신의 흥분은 이 상황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 같군요. 상상해 보세요. 엄청난 부자가 되어 온 세상이 당신 발아래 놓이는 기분이 어떨지!"

그녀가 그 소식을 듣고도 전혀 기뻐하는 기색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내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기쁨이 일었다. 오히려 그녀는 마치 별로 관심 없는 일이라는 듯, 도도하게 고개를 까딱이며 무심한 태도를 보였다.

"제가 간절히 바라는 건 새디어스 솔토 씨의 안위뿐입니다." 그녀가 말했다. "다른 건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그분은 지금까지 줄곧 매우 친절하고 명예롭게 행동해 오셨으니까요. 이 끔찍하고 근거 없는 혐의로부터 그분의 결백을 밝히는 것이 바로 저희의 의무입니다."

캠버웰을 떠날 때는 저녁이었는데,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사방이 캄캄했다. 내 동료의 의자 옆에는 읽다 만 책과 파이프가 놓여 있었지만, 그는 어디론가 사라진 뒤였다. 혹시 남겨둔 쪽지라도 있을까 싶어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셜록 홈즈 씨는 외출하셨나 보군요."

블라인드를 내리러 다가오는 허드슨 부인에게 내가 물었다.

"아니요, 손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손님," 허드슨 부인이 목소리를 낮추며 무언가 심각하다는 듯 속삭였다. "그분의 건강이 무척 걱정되네요."

"왜 그러시나요, 허드슨 부인?"

"글쎄요, 손님, 그분이 정말 이상하세요. 손님이 나가신 뒤에도 그분은 계속, 계속해서 복도를 왔다 갔다 하셨어요. 발소리가 지겨워질 정

도로 말이에요. 그러더니 혼잣말을 중얼거리기 시작하시더니, 종이 울릴 때마다 계단 꼭대기까지 올라오셔서 '허드슨 부인, 방금 그 소리는 뭡니까?'라고 물으시더군요. 그러고는 방금 자기 방으로 쾅 하고 들어가 버리셨는데, 여전히 똑같은 발소리가 들려요. 제발 몸이 편찮으신 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해열제라도 좀 드시겠냐고 여쭤봤는데, 세상에, 손님. 그분이 저를 쳐다보시는 눈빛이 어찌나 무서운지, 제가 어떻게 그 방을 빠져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허드슨 부인,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전에도 홈즈가 이런 적이 있는 걸 봤거든요. 마음속에 걸리는 작은 일이라도 있어서 좀 안절부절못하는 것뿐입니다."

나는 인자한 집주인 아주머니를 안심시키려 가볍게 말을 건넸다. 하지만 나 역시 마음이 편치 않기는 마찬가지였다. 긴 밤이 흐르는 동안, 홈즈의 발소리가 둔탁하게 울려 퍼지는 것을 이따금씩 들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 예리한 정신이 어쩔 수 없는 무기력함에 부딪혀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는지 나는 잘 알고 있었다.

아침 식사 시간, 그의 모습은 초췌하고 수척해 보였다. 양쪽 뺨에는 미열 때문인지 발그레한 기운이 약간 감돌았다.

"자네, 밤마다 돌아다니느라 몸을 축내고 있군." 내가 말했다. "밤중에 자네가 왔다 갔다 하는 소리를 들었네."

"아니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이 지독한 사건이 저를 갉아먹고 있어요. 다른 모든 난관은 다 극복해 놓고서, 고

작 이런 사소한 장애물에 가로막히다니 정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도, 보트도,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는데도 도무지 소식이 없군요. 다른 수단도 동원해 보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써봤습니다. 강 양쪽 기슭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런 소식도 없고, 스미스 부인 역시 남편에 대해 들은 바가 없다고 합니다. 조만간 그들이 보트를 고의로 침몰시켰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의문스러운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아니면 스미스 부인이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유도했거나요."

"아니요, 그건 고려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생긴 보트가 한 척 있긴 하더군요."

"강을 타고 상류로 올라갔을 수도 있을까요?"

"저도 그 가능성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현재 수색대가 리치먼드까지 범위를 넓혀 수색을 진행 중입니다. 만약 오늘 아무런 소식이 없다면, 내일은 제가 직접 나서겠습니다. 배를 쫓기보다는 그 사람들을 직접 쫓는 편이 낫겠지요. 하지만 분명히, 분명히 무슨 소식이라도 들려올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허사였다. 위긴스에게서도, 다른 정보원들에게서도 아무런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다. 대부분의 신문에는 노우드에서 벌어진 비극에 관한 기사가 실려 있었다. 그러나 기사들은 하나같이 불운한 새디어스 숄토에게 다소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다. 다음 날 검시가 열릴 예정이라는 내용 외에, 새로운 세부 사항을 담은 기사는 어디에도 없었

다. 나는 저녁 무렵 캠버웰로 가서 부인들에게 수사가 실패했음을 알리고 돌아왔다. 돌아와 보니 홈즈는 낙담한 기색이 역력했고 기분도 몹시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내 질문에 거의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저녁 내내 난해한 화학 분석 작업에만 몰두했다. 그는 플라스크를 뜨겁게 달구고 증기를 증류하기를 반복했는데, 결국 방 안을 가득 채운 악취 때문에 나는 방을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다. 새벽녘이 되어서도 시험관이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홈즈가 여전히 그 고약한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는 신호였다.

이른 새벽, 나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다. 그런데 홈즈가 내 침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나는 무척 놀라고 말았다. 그는 거친 선원복 차림에 피코트(pea-jacket)를 걸치고, 목에는 투박한 붉은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다.

"강을 따라 내려가 볼 생각이라네, 왓슨." 홈즈가 말했다. "계속 머릿속으로 되짚어 보았는데, 해결할 방법은 단 하나뿐인 것 같아. 어쨌든 시도해 볼 가치는 충분하네."

"그럼 저도 같이 가도 되겠지요?" 내가 말했다.

"아니요, 제 대리인으로서 여기 남아 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저도 가고 싶지 않습니다. 어젯밤 위긴스가 낙담하긴 했지만, 오늘 중으로 분명 무슨 소식이 올 것 같거든요. 소식이나 전보가 오면 모두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 어떤 소식이 도착한다면, 당신의 판단에 따라 즉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를 믿어 주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당신이 제게 전보를 보내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어디에 있게 될지조차 알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운이 좋다면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돌아오기 전까지 어떤 식으로든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칠 때까지도 그에 관한 소식은 전혀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신문 《스탠더드》를 펼쳐 보니, 사건에 대한 새로운 언급이 실려 있었다.

"어퍼 노우드의 비극과 관련하여," 기사는 다음과 같이 전했다. "이 사건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미스터리한 양상을 띨 것으로 보인다. 새로 드러난 증거에 따르면, 새디어스 숄토 씨가 이 사건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어제 저녁 가정부 번스톤 부인과 함께 풀려났다. 하지만 경찰이 진범에 대한 단서를 잡은 것으로 보이며, 스코틀랜드 야드의 애슬니 존스 경위가 특유의 넘치는 에너지와 명석함을 발휘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추가 체포 소식도 조만간 들려올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이만하면 만족스럽군.' 나는 생각했다. '적어도 친구 숄토는 무사하니 다행이야. 새로 나타난 단서는 무엇일까? 경찰이 실수를 저지를 때마다 매번 똑같은 양상으로 사건이 흘러가는 것 같군.'

나는 신문을 탁자 위에 던져 놓았다. 그런데 그 순간, 신문의 개인 광고란에 실린 광고 하나가 내 눈에 들어왔다.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실종. 지난 화요일 새벽 3시경, 선원 모데카이 스미스와 그의 아들 짐이 스미스 선착장에서 증기 보트 '오로라호'를 타고 떠났다. 오로라호는 검은 선체에 두 줄의 붉은 띠가 둘러져 있으며, 굴뚝은 검은색 바탕에 흰색 띠가 둘러져 있다. 모데카이 스미스와 오로라호의 행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는 5파운드의 사례금을 지급한다. 제보할 사람은 스미스 선착장의 스미스 부인이나 베이커가 221B로 연락하기 바란다.

이것은 분명 홈즈가 꾸민 일이었다. 베이커가라는 주소만 보아도 충분히 증명되는 사실이었다. 나는 이 수법이 꽤 기발하다고 생각했다. 도망자들은 이 글을 읽고도, 그저 실종된 남편을 걱정하는 아내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불안함 정도로만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이었다.

긴 하루였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거나 거리에서 날카로운 발소리가 지나갈 때마다, 나는 홈즈가 돌아오는 것이거나 혹은 그의 광고에 대한 응답이 온 것이라고 상상하곤 했다. 책을 읽으려 애써 보았지만, 정신은 자꾸만 우리가 쫓는 기묘한 사건과 우리가 추적 중인 그 어울리지 않는 악당 한 쌍에게로 쏠렸다.

나는 내 동료의 추리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닐까 의구심이 들었다. 혹시 그가 거대한 자기기만에 빠진 것은 아닐까? 그의 기민하고 사색적인 두뇌가 잘못된 전제를 바탕으로 이 황당한 이론을 세운 것은 아닐까? 나는 그가 틀린 적을 본 적이 없었지만, 아무리 예리한 추리론자라도 때로는 속을 수 있기 마련이다. 나는 그가 논리를 지나치게 정교하게 다듬으려다 오류에 빠진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더 단순하고

평범한 설명이 눈앞에 있는데도, 미묘하고 기괴한 설명을 선호하는 그의 습성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말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나 역시 증거를 직접 목격했고 그가 결론을 도출해낸 근거들을 들었다. 하나하나 떼어놓고 보면 사소해 보일지라도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그 기묘한 정황들의 긴 사슬을 되짚어 볼 때, 나는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설령 홈즈의 설명이 틀렸다 하더라도, 진실은 그만큼이나 기괴하고 놀라운 모습일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오후 세 시 정각, 벨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현관에서 권위적인 목소리가 들리더니, 놀랍게도 애슬니 존스 씨가 내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그는 어퍼 노우드에서 자신만만하게 사건을 맡았던, 무뚝뚝하고 거침없던 상식의 대가와는 전혀 딴판이었다. 그의 표정은 어두웠고, 태도는 유순하다 못해 마치 사과라도 하려는 듯 보였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그가 인사를 건넸다. "셜록 홈즈 씨는 지금 외출 중이라고 들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가 언제 돌아올지는 저도 확신할 수 없군요. 하지만 괜찮으시다면 잠시 기다려 보시겠습니까? 저 의자에 앉으시지요. 여기 시가도 하나 드셔 보시고요."

"고맙습니다. 사양하지 않고 받겠습니다." 그는 붉은 반다나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아내며 말했다.

"위스키 소다도 한 잔 드릴까요?"

"글쎄요, 딱 반 잔만 따르겠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치고는 날씨가 너무 덥군요. 게다가 신경 쓸 일도, 마음 고생할 일도 참 많았습니다. 제가 이 노우드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당신이 하나를 언급했던 기억이 납니다."

"글쎄요, 다시 검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숄토 씨를 범인으로 단정하고 그물망을 촘촘히 좁혀 놓았는데, 그가 그 그물망 한가운데의 구멍을 쏙 빠져나가 버렸거든요. 그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알리바이를 증명해 냈습니다. 형의 방을 나온 순간부터 그는 누군가의 시야에서 한 시도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지붕을 타고 넘거나 천장의 점검구를 통해 드나든 범인은 결코 그가 아닐 겁니다. 사건이 아주 미궁에 빠져 있어서 제 직업적 명성까지 걸린 문제입니다. 도움을 좀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가끔은 도움이 필요한 법이지요." 내가 말했다.

"손님, 당신의 친구 셜록 홈즈 씨는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그가 낮고 은밀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분은 절대 당해낼 수 없는 사람이지요. 그 젊은이가 수많은 사건을 맡는 걸 보아왔지만, 홈즈 씨가 실마리를 찾아내지 못한 사건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수사 방식이 다소 독특하고 이론을 세우는 데 있어 가끔 성급한 면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유망한 경관이 되었을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아침 그에게 전보를 한 통 받았는데, 내용을 보니 숄토 씨 사건에 대해 어떤 단서를 잡은 모양이더군요. 여기 전보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전보를 꺼내 내게 건넸다. 전보는 12시에 포플러에서 보낸 것이었다. "즉시 베이커가로 오시오.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기다리시오. 솔토 일당의 뒤를 바짝 쫓고 있소. 사건의 결말을 보고 싶다면 오늘 밤 우리와 함께 가도 좋소." 전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좋은 소식이군요. 그가 분명 다시 단서를 잡은 모양입니다.” 내가 말했다.

“아, 그럼 그도 한때 단서를 놓쳤던 모양이군요.” 존스가 눈에 띄게 만족스러운 기색을 내비치며 외쳤다. “아무리 유능한 우리라도 가끔은 헛다리를 짚을 때가 있는 법이죠. 물론 이번 일이 그냥 허탕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으로서, 단 하나의 가능성이라도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제 임무니까요. 그런데 문 앞에 누군가 왔군요. 아마 그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계단을 올라오는 무거운 발소리가 들려왔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른 사람처럼 거칠게 쌕쌕거리며 덜컥거리는 소리도 함께였다. 그는 계단을 오르는 게 버거운 듯 한두 번 멈춰 서기도 했지만, 마침내 우리 집 문 앞까지 와서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모습은 우리가 들었던 소리 그대로였다. 그는 턱밑까지 단추를 채운 낡은 피코트 차림의 노인이었는데, 옷차림에서 바다 냄새가 물씬 풍겼다. 등은 굽어 있었고 무릎은 후들거렸으며, 숨소리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천식 기운이 가득했다. 그는 두꺼운 참나무 지팡이에 몸을 기댄 채, 폐부 깊숙이 공기를 들이마시려 애쓰며 어깨를 들썩였다. 턱에는 색깔이 있는 스카프를 두르고 있어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덥수룩

한 흰 눈썹 아래로 번뜩이는 검은 눈동자와 길게 자란 회색 구레나룻만큼은 또렷이 보였다. 전체적인 인상은 세월의 풍파와 가난에 시달린, 품위 있는 노련한 선원 같았다.

"무슨 일인가, 이보게?" 내가 물었다.

그는 노인 특유의 느릿하고도 신중한 태도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셜록 홈즈 씨가 여기 계십니까?" 그가 물었다.

"아니요, 하지만 제가 그분을 대신해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분께 전하실 말씀이 있다면 무엇이든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사실을 직접 그에게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가 말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분을 대신해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혹시 모데카이 스미스의 배에 관한 일인가요?"

"그래요. 그게 어디 있는지 아주 잘 압니다. 그놈이 쫓는 놈들이 어디 있는지도 알고요. 보물이 어디 있는지도 압니다. 전부 다 알고 있다고요."

"그럼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에게 전달하겠습니다."

"그에게 말하려던 것이었소." 그는 아주 노인 특유의 심술궂은 고집을 부리며 다시 한번 되풀이했다.

"글쎄요, 그분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아니요, 절대 안 됩니다. 누구를 기쁘게 하겠다고 하루를 통째로 날릴 수는 없어요. 홈즈 씨가 여기 없다면, 홈즈 씨가 직접 알아내야 할 일이죠. 두 분이 어떤 표정을 짓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을 거요."

그는 문을 향해 발을 끌며 다가갔으나, 애슬니 존스가 그 앞을 가로막았다.

"잠시만 기다리게, 친구." 그가 말했다. "자네는 아주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네. 그러니 그냥 가버려선 안 돼. 자네가 좋든 싫든, 우리 친구가 돌아올 때까지는 자네를 붙잡아 둘 수밖에 없네."

노인은 문을 향해 급히 달려가려 했다. 하지만 애슬니 존스가 넓은 등을 문에 바짝 기대어 막아서자, 노인은 저항해 봐야 소용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게 대체 무슨 대접이란 말이오!" 그는 지팡이로 바닥을 쾅쾅 내리치며 외쳤다. "신사를 만나러 왔더니, 생전 처음 보는 당신들 두 사람이 나를 붙잡고 이런 식으로 대하다니!"

"손해 보는 일은 없을 겁니다." 내가 말했다. "낭비하신 시간만큼은 반드시 보상해 드리지요. 여기 소파에 앉아 계십시오. 오래 기다리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는 꽤나 뚱한 표정으로 다가오더니, 두 손에 얼굴을 묻은 채 자리에 앉았다. 존스와 나는 다시 시가에 불을 붙이고 대화를 이어갔다. 그러다 갑자기 홈즈의 목소리가 우리의 대화를 끊고 끼어들었다.

"나에게도 시가 한 대 권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야." 그가 말했다.

우리 둘은 의자에 앉은 채 소스라치게 놀랐다. 홈즈가 우리 곁에 바짝 붙어 앉아, 마치 이 상황이 즐겁다는 듯 여유로운 표정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홈즈!" 내가 외쳤다. "여기 있었군! 그런데 그 노인은 어디 갔나?"

"여기 노인이 있습니다." 그가 하얀 머리카락 뭉치를 내밀며 말했다. "가발부터 구레나룻, 눈썹까지 완벽하게 갖춰 놓았습니다. 제 변장이 꽤 훌륭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이런 식의 검증까지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군요."

"아, 이 영악한 놈!" 존스가 아주 즐겁다는 듯 외쳤다. "자네는 배우가 됐어야 했어. 그것도 아주 대단한 배우 말이야. 구빈원 환자 특유의 기침 소리도 완벽했고, 그 가느다란 다리 연기는 일주일에 10파운드는 거뜬히 받아낼 수준이었거든. 그래도 자네 눈빛만큼은 내가 알아볼 줄 알았지. 보시다시피, 그렇게 쉽게 우리 손을 빠져나갈 수 있는 놈이 아니거든."

"하루 종일 이런 차림으로 일했더니 아주 죽겠군."

홈즈는 시가에 불을 붙이며 말했다.

"알다시피 범죄자들 사이에서 내 얼굴이 꽤 알려졌거든. 특히 여기 있는 우리 친구가 내 사건들을 기사로 싣기 시작한 뒤로는 더 심해졌

지. 그래서 이 정도로 간단한 변장만 하고 나서야 겨우 움직일 수 있다네. 아, 내 전보 받았나?"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갔네. 죄수 두 명은 풀어줘야만 했고, 남은 두 명에 대해서는 아무런 증거도 찾지 못했거든."

"신경 쓰지 마시오. 그들 대신 다른 사람 두 명을 붙여주겠소. 하지만 반드시 내 지시에 따라야 하오. 공적인 공로는 전부 당신들 몫으로 돌려주겠지만, 행동은 내가 지시하는 방식대로만 움직여야 하오. 그렇게 약속할 수 있겠소?"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을 저에게 데려다주시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좋습니다. 우선 7시 정각에 웨스트민스터 계단에 빠른 경찰용 보트, 그러니까 증기선을 한 척 대기시켜야겠습니다."

"그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처에 늘 한 척쯤은 있으니까요. 그래도 확실히 하기 위해 길 건너편으로 가서 전화를 걸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항할 경우를 대비해, 건장한 사내 둘이 더 필요하겠군."

"보트에는 두세 명 정도 타겠군. 그 외에는?"

"놈들을 붙잡기만 하면 보물은 우리 손에 들어옵니다. 그 보물의 절반이 정당하게 주인에게 돌아가야 하는 만큼, 제 친구가 직접 상자를 들고 그 아가씨를 찾아가는 것도 참 즐거운 일이 될 것 같군요. 상자를 처음으로 열어보는 영광도 그분께 드려야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왓슨?"

"제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 될 겁니다."

"꽤나 비정상적인 절차군요." 존스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하지만 이 일 자체가 워낙 비정상적이니, 그냥 눈감아줘야 할 것 같습니다. 보물은 공식적인 조사가 끝날 때까지 일단 당국에 인도해야겠지요."

"물론입니다. 그 정도는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조너선 스몰의 입을 통해 직접 듣고 싶군요. 제가 사건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 파헤치는 것을 좋아한다는 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를 철저히 감시하고만 있다면, 이곳 제 방이든 다른 곳이든 상관없이 비공식적으로 면담을 나누는 데 별다른 문제는 없겠지요?"

"좋습니다, 상황을 주도하는 건 당신이니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아직 조너선 스몰이라는 자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를 붙잡아 온다면, 그를 만나고 싶다는 요청을 거절할 이유가 없겠군요."

"그럼, 이제 다 이해하신 거죠?"

"완벽합니다. 더 필요한 건 없습니까?"

"그저 우리와 함께 식사하자는 내 제안을 꼭 들어달라는 뜻이야. 30분 뒤면 준비될 걸세. 굴과 들꿩 한 쌍을 준비했으니, 화이트 와인도 아주 좋은 걸로 곁들여 내겠네. — 왓슨, 자네는 아직 내가 살림꾼으로서 얼마나 유능한지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있군."

제10장 섬사람의 최후

제10장 섬사람의 최후

식사는 즐겁게 이어졌다. 홈즈는 마음만 먹으면 아주 유창하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날 밤은 그가 기꺼이 입을 열기로 마음먹은 듯했다. 그는 무척 흥분한 상태인 것처럼 보였다. 나는 그가 이토록 생기 넘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그는 기적극부터 중세 도자기,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 실론의 불교, 그리고 미래의 군함에 이르기까지 여러 주제를 쉴 새 없이 쏟아냈다. 마치 각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처럼 능숙하게 이야기를 이끌었다. 그의 밝은 모습은 지난 며칠 동안 겪었던 깊은 우울감에서 벗어났음을 보여주었다. 애슬니 존스 경위 또한 휴식 시간에는 꽤 사교적인 사람이었으며, 마치 인생을 즐기는 미식가처럼 여유롭게 식사를 즐겼다. 나 역시 우리가 맡은 임무의 끝이 머지않았다는 생각에 기분이 들떴고, 홈즈의 즐거움에 조금이나마 전염되었다. 식사하는 동안 우리 중 누구도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한 사건에 대해서는 입을 떼지 않았다.

천을 치우자 홈즈는 시계를 슬쩍 확인하더니, 포트 와인을 세 잔 가득 따랐다.

"우리의 작은 탐험이 성공하기를 빌며, 한 잔 가득 들이킵시다." 홈즈가 말했다. "자, 이제 서둘러 출발해야겠어. 왓슨, 권총은 챙겼나?"

"책상 서랍에 예전에 쓰던 서비스 리볼버가 있네."

"그럼 가져가는 게 좋을 거요. 만약을 대비해 두는 게 나으니까. 마침 마차가 문 앞에 와 있군. 6시 반에 오도록 불러 두었소."

웨스트민스터 부두에 도착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보트를 발견했을 때는 7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다. 홈즈는 날카로운 눈초리로 보트를 살폈다.

"경찰선임을 나타내는 표식이 따로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옆에 있는 저 초록색 등불 말입니다."

"그럼 벗으세요."

잔돈을 치르고 배에 올라타자 곧장 밧줄을 풀어 배를 띄웠다. 존스, 홈즈, 그리고 나는 선미 쪽에 자리를 잡았다. 키를 잡은 사람 한 명과 엔진을 돌보는 사람 한 명이 있었고, 선수 쪽에는 건장한 체격의 경찰 경위 두 명이 앉아 있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존스가 물었다.

"런던 탑으로 보내게. 제이콥슨 야드 맞은편에서 멈추라고 전하게."

우리의 배는 분명 아주 빠르게 달리고 있었다. 짐을 가득 실은 바지선들이 길게 늘어서 있었지만, 우리는 마치 그것들이 멈춰 있는 것처럼 순식간에 지나쳐 갔다. 강을 달리는 증기선 한 척을 추월해 뒤로 멀리 따돌리자, 홈즈는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다.

"강 위에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따라잡을 수 있을 걸세." 그가 말했다.

"글쎄요, 딱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앞지를 만한 보트는 그리 많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오로라호'를 잡아야 하네. 그 배는 클리퍼선 중에서도 이름난 배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설명해 주겠네, 왓슨. 내가 그까짓 사소한 일 때문에 계획이 틀어져서 얼마나 짜증이 났었는지 기억하나?"

"네."

"화학 분석에 몰두하면서 머리를 완전히 식혔네. 우리 시대의 위대한 정치가 중 한 명은 업무를 바꾸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휴식이라고 말했지. 정말 그렇더군. 한참 매달리던 탄화수소를 녹이는 데 성공하고 나서, 나는 다시 솔토 가문의 문제로 돌아와 사건 전체를 다시 한번 차근차근 따져보았네. 내 조수들은 강을 따라 위아래로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지. 보트가 어느 선착장이나 부두에도 없었고, 돌아오지도 않았으니까. 하지만 흔적을 감추려고 보트를 침몰시켰을 가

능성은 낮아 보이더군. 물론 다른 모든 가설이 틀렸을 경우를 대비해 염두에 두어야 할 가능성이긴 하지만 말이야.

나는 스몰이라는 자가 어느 정도 비열한 잔머리는 굴릴 줄 알지만, 정교하고 치밀한 수법을 쓸 능력은 없다고 판단했네. 그런 세련된 수법은 대개 고등 교육을 받은 이들의 전유물이니까. 그러고 나서 생각했지. 그가 폰디체리 로지를 계속 감시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있는 걸 보면, 분명 런던에 머문 지 꽤 되었을 것이라고 말이야. 그렇다면 그가 당장 눈앞에서 사라지기는 어려울 테고, 설령 떠난다 해도 일을 정리할 시간이 최소 하루 정도는 필요할 것이라고 말일세. 어쨌든 그것이 가장 확률 높은 추론이었네."

"제 생각에는 논리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내가 말했다. "그가 탐험을 떠나기 전부터 이미 모든 일을 다 정리해 두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이 은신처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매우 소중한 도피처입니다. 그러니 이곳 없이도 지낼 수 있다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다른 이유가 떠올랐습니다. 조너선 스몰은 아무리 동료를 잘 위장시킨다 해도, 그 특이한 외모 때문에 소문이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을 겁니다. 어쩌면 이 노우드 비극과 연관 지어 의심을 살 수도 있겠지요. 그는 충분히 영리한 사람이니 그런 점을 알아차렸을 겁니다.

그들은 어둠을 틈타 본거지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니 날이 밝기 전에 돌아가고 싶었겠지요. 스미스 부인의 말에 따르면 그들이 보트를 탄

것은 이미 3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곧 날이 밝을 것이고, 한 시간 정도만 지나도 사람들이 돌아다닐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이 멀리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스미스에게 입을 다물어 달라는 대가로 돈을 넉넉히 주고, 마지막 탈출을 위해 보트는 그대로 남겨둔 채 보물 상자를 들고 서둘러 숙소로 향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간 신문 반응을 살피며 의심을 사지는 않는지 지켜보겠지요. 그러고 나서 다시 어둠이 깔리면, 그레이브샌드나 다운스 근처에 있는 배를 향해 움직일 겁니다. 그곳에는 아마 이미 미국이나 식민지로 떠날 배편을 마련해 두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 보트(launch)는 어쩌고요? 숙소까지 그걸 가져갈 수는 없었을 텐데요."

"맞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배가 아주 멀리 있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했죠. 그러고 나서 스몰의 입장이 되어 보았습니다. 그 정도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면 어떻게 생각했을지 말입니다. 만약 경찰이 자신의 뒤를 쫓게 된다면, 배를 돌려보내거나 부두에 그대로 두는 건 추적을 아주 쉽게 만들어주는 꼴이 될 테니까요.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배를 숨기면서도, 필요할 때 바로 쓸 수 있도록 곁에 둘 수 있었을까요? 내가 만약 그였다면 어떻게 했을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방법은 딱 하나뿐이더군요. 배를 선박 건조업자나 수리공에게 맡기면서, 아주 사소한 부분만 살짝 고쳐달라고 지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배는 그의 창고나 작업장으로 옮겨져 완벽하게 숨겨지겠지요. 그러면서도 내가 원할 때면 몇 시간 안에 언제든 배를 불러낼 수 있을 테니까요."

"그거 참 간단해 보이는군요."

"바로 이런 사소한 것들이 놓치기 십상이지요. 하지만 저는 이 가설을 바탕으로 움직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곧장 무해해 보이는 선원 복장으로 갈아입고 강 하류에 있는 조선소들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열다섯 곳까지는 아무런 소득이 없었지만, 열여섯 번째인 제이콥슨 조선소에서 단서를 찾았습니다. 이틀 전, 의족을 한 남자가 나타나 '오로라호'의 키에 관한 몇 가지 사소한 지시를 내리며 배를 넘겨주었다는 사실을 알아낸 것입니다.

'배의 키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현장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붉은 줄무늬가 있는 채로 저기 그대로 있습니다.'

그 순간, 행방불명되었던 선주 모데카이 스미스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술에 꽤 취한 상태였습니다. 물론 제가 그를 알아볼 리는 없었지만, 그는 자기 이름과 배 이름을 큰 소리로 떠들어댔습니다. '오늘 밤 8시 정각에 배를 내놓으시오! 잊지 마시오, 8시 정각이어야 하니까. 기다리는 걸 싫어하는 귀한 분들이 두 분이나 계시단 말이오!'

그는 분명 돈을 꽤 두둑이 받은 모양이었습니다. 수중에 돈이 넘쳐나서 일꾼들에게 실링을 마구 던져주더군요. 저는 그를 어느 정도 뒤쫓았지만, 그는 결국 어느 선술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조선소로 돌아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제 부하 중 한 명을 만나, 그 배를 감시하는 초병으로 배치했습니다. 그 부하는 물가에 서 있다가 배가 출발하면 우리에게 손수건을 흔들어 신호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우리

는 강물 한가운데에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사람과 보물, 그리고 모든 것을 싣고 떠나는 모습을 놓칠 리 없겠지요."

"그들이 진짜 범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계획만큼은 아주 치밀하게 세웠군요." 존스가 말했다. "하지만 만약 이 사건이 내 담당이었다면, 제이콥슨 야드에 경찰 병력을 대거 배치해 두었다가 그들이 내려오는 즉시 체포했을 겁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었을 거네. 스몰이라는 자는 꽤나 영악한 친구거든. 미리 정찰병을 보내 상황을 살피게 한 뒤, 만약 조금이라도 수상한 기색이 있으면 일주일 정도는 숨죽이고 잠복할 위인이란 말일세."

"하지만 모데카이 스미스만 계속 따라갔어도 그들의 은신처를 찾아낼 수 있었을 겁니다." 내가 말했다.

"그랬다면 제 하루를 헛되이 보낸 셈이 되었겠지요. 제 생각에 스미스가 그들의 거처를 알 확률은 백 대 일도 안 됩니다. 술과 충분한 보수만 보장된다면, 그가 왜 굳이 캐묻겠습니까? 그저 시키는 대로 메시지를 받아 행동할 뿐이지요. 아니요,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 보았습니다만, 이 방법이 최선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동안, 우리는 템스강을 가로지르는 수많은 다리를 차례로 지나쳐 갔다. 시티 지구를 지날 무렵에는 지는 해의 마지막 빛줄기가 세인트 폴 대성당 꼭대기에 있는 십자가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런던 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땅거미가 내려앉은 황혼 무렵이었다.

"저쪽이 제이콥슨 야드라네." 홈즈가 서리(Surrey) 쪽 해안에 빽빽하게 들어선 돛대와 밧줄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부선들이 줄지어 있는 곳 아래로 배를 몰아 천천히 오르내리게나." 그는 주머니에서 야간 망원경을 꺼내 한동안 해안가를 살폈다. "초병은 제 위치를 지키고 있군." 홈즈가 덧붙였다. "하지만 손수건을 흔드는 기색은 보이지 않아."

"강 하류로 조금만 내려가서 매복하고 있자고요." 존스가 열띤 목소리로 제안했다. 이쯤 되니 우리 모두가 흥분 상태였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렴풋하게나마 짐작하고 있던 경찰들과 화부들조차 마찬가지였다.

"어떤 것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네." 홈즈가 대답했다. "그들이 하류로 내려갈 확률이 열에 아홉은 되겠지만, 그렇다고 확신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보면 야드의 입구가 보이지만, 그들은 우리를 거의 볼 수 없을 거야. 밤공기도 맑고 빛도 충분하겠지. 그러니 우리는 지금 이 자리를 지켜야 하네. 저기 가스등 불빛 아래로 사람들이 얼마나 북적이며 지나가는지 보게나."

"마당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중입니다."

"겉모습만 봐서는 지저분한 악당들 같지만,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면에 작은 불꽃 하나쯤은 품고 있는 법이지요. 딱히 그렇게 보이지는 않겠지만 말입니다. 미리 짐작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요. 인간이란 참으로 기묘한 수수께끼입니다!"

"누군가는 그를 짐승의 가죽을 쓴 영혼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내가 제안하듯 말했다.

"윈우드 리드는 이 분야에 정통한 사람이지." 홈즈가 말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개인은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일지 몰라도 집단으로 묶으면 수학적 확실성이 된다고 하더군. 예를 들어, 어떤 개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지는 결코 예측할 수 없지만, 평균적인 수치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정확히 말할 수 있다는 뜻이야. 개인은 제각각 다르지만, 비율은 일정하게 유지되니까. 통계학자들이 말하기를 그렇다더군. 그런데 저기 손수건이 보이지 않나? 분명 저쪽에서 하얀 물체가 흔들리고 있어."

"그래요, 당신 아들이 맞습니다!" 내가 외쳤다. "아주 똑똑히 보여요."

"저기 오로라호가 있다!" 홈즈가 외쳤다. "속도가 엄청나군! 기관사, 전속력으로 전진하라! 노란 불빛을 켜고 가는 저 보트를 쫓아라. 맙소사, 저 배가 우리를 따돌리기라도 하는 날엔 내 자신을 절대 용서하지 못할 거야!"

그녀는 마당 입구로 아무도 모르게 빠져나가 작은 배 두세 척 뒤로 몸을 숨겼다. 덕분에 우리가 그녀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속도가 꽤 붙어 있었다. 이제 그녀는 강둑에 바짝 붙은 채 엄청난 속도로 물살을 가르며 질주하고 있었다. 존스는 엄숙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저 배는 아주 빠릅니다." 그가 말했다. "우리가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반드시 잡아야 해!" 홈즈가 이를 악물며 외쳤다. "화부들은 불을 더 지펴! 배가 낼 수 있는 최대 속도를 내란 말이야! 배를 통째로 태워서라도 반드시 그놈들을 잡고 만다!"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녀를 뒤쫓고 있었다. 용광로에서는 불길이 맹렬히 타올랐고, 강력한 엔진은 거대한 금속 심장처럼 윙윙거리며 덜컹거렸다. 우리 배의 날카롭고 가파른 선수(船首)가 강물을 가르며 우리 양옆으로 굽이치는 두 줄기 파도를 일으켰다. 엔진이 요동칠 때마다 우리 배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들썩이며 떨렸다. 선수에 달린 커다란 노란 등불 하나가 전방으로 길고 일렁이는 빛의 통로를 만들어냈다. 바로 앞, 수면 위로 어둡게 흐릿한 형체가 나타나더니 오로라호의 위치를 알렸다. 배 뒤편으로 소용돌이치는 하얀 거품은 그녀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는지 보여주었다. 우리는 오로라호의 앞뒤를 가로지르며 바지선과 증기선, 상선들을 스치듯 지나쳤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우리를 향해 소리쳤지만, 오로라호는 여전히 굉음을 내며 질주했고 우리는 그 뒤를 바짝 뒤쫓았다.

"자, 더 넣어! 더 넣으란 말이야!"

홈즈가 기관실 안을 내려다보며 외쳤다. 아래에서 치솟는 강렬한 불빛이 그의 열망에 찬 매부리코 얼굴을 비추었다.

"낼 수 있는 증기압은 전부 다 끌어모아!"

"우리가 조금 유리해진 것 같군." 존스가 오로라 호를 응시하며 말했다.

"분명 그럴 겁니다." 내가 말했다. "몇 분만 지나면 그녀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불행히도 그 순간, 바지선 세 척을 매달고 가던 배 한 척이 우리 사이를 가로막으며 어설프게 끼어들었다. 키를 급히 꺾어 충돌을 겨우 면했지만, 그 배들을 돌아서 다시 항로를 잡기도 전에 오로라 호는 이미 200야드나 멀어져 있었다. 그래도 오로라 호는 여전히 시야에 잘 들어왔고, 흐릿하고 불확실하던 황혼은 어느덧 맑은 별빛이 내리는 밤으로 바뀌고 있었다. 보일러는 한계까지 가동 중이었고, 우리를 몰아붙이는 격렬한 에너지 때문에 가냘픈 선체는 진동하며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우리는 풀을 통과해 웨스트 인디아 부두를 지나, 뎁퍼드 리치를 따라 길게 내려간 뒤, 아일 오브 독스를 돌아 다시 올라왔다. 전방에 흐릿하게 보이던 형체는 이제 우아한 자태의 오로라 호로 명확히 보였다. 존스가 탐조등을 그쪽으로 비추자 갑판 위에 있는 인물들이 또렷하게 보였다. 한 남자가 선미 옆에 앉아 무릎 사이에 검은 물건을 두고 몸을 굽히고 있었다. 그 옆에는 뉴펀들랜드 개처럼 보이는 검은 덩어리가 놓여 있었다. 소년은 키를 잡고 있었고, 화로의 붉은 불빛을 배경으로 상체를 드러낸 채 필사적으로 석탄을 퍼붓는 노인 스미스의 모습이 보였다. 처음에는 우리가 정말 자신들을 뒤쫓는 것인지 의심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들이 굽이굽이 방향을 바꿀 때마다 우리가 그대로 따라붙자 이제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을 것이다. 그리니치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그들보다 약 300보 뒤처져 있었다. 블랙월에 다다랐을 때는 그 차

이가 250보 이내로 좁혀졌다. 나는 파란만장한 경력을 쌓으며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생물을 뒤쫓아 보았지만, 템스강을 따라 펼쳐진 이 미친 듯한 추격전만큼 짜릿한 전율을 느낀 적은 없었다. 우리는 한 야드씩, 꾸준히 그들에게 다가갔다. 밤의 정적 속에서 그들 배의 엔진이 헐떡이며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선미의 남자는 여전히 갑판 위에 웅크린 채 무언가에 열중하듯 팔을 움직이고 있었고, 이따금 고개를 들어 우리와의 거리를 가늠하듯 훑어보았다. 우리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갔다. 존스가 멈추라고 소리쳤다. 두 배 모두 엄청난 속도로 질주하고 있었기에, 우리와 그들의 거리는 고작 배 네 척 길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한쪽에는 바킹 레벨이, 다른 한쪽에는 쓸쓸한 플럼스테드 습지가 펼쳐진 탁 트인 강 구간이었다. 우리가 소리치자 선미의 남자가 갑판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높고 갈라진 목소리로 욕설을 퍼부으며 두 주먹을 우리 쪽으로 휘둘렀다. 그는 체격이 좋고 힘이 센 남자였는데, 다리를 벌리고 중심을 잡고 서 있는 모습을 보니 오른쪽 허벅지 아래로는 나무 의족뿐이었다. 그의 날카롭고 분노에 찬 외침에 갑판 위의 뭉쳐 있던 덩어리가 움직였다. 그것은 작은 검은 피부의 사내로 변했다. 내가 본 사람 중 가장 작았으며, 크고 기형적인 머리에 헝클어지고 지저분한 머리카락이 덥수룩했다. 홈즈는 이미 리볼버를 꺼내 들었고, 나 역시 그 야만적이고 뒤틀린 형상을 보자마자 내 총을 뽑아 들었다. 그는 얼굴만 내놓은 채 어두운 울스터 코트나 담요 같은 것을 두르고 있었지만, 그 얼굴만으로도 사람을 밤잠 설치게 만들기에는 충분했다. 그토록 짐승 같은 면모와 잔혹함이 깊게 새겨진 얼굴은 본 적이 없었다. 그의 작은 눈은 어두운 빛을 내뿜으며 번뜩였고, 두꺼운 입술은 치아를 드러내며

뒤로 말려 올라가 있었다. 그 치아는 반쯤 짐승 같은 광기에 사로잡힌 채 우리를 향해 이빨을 드러내며 덜덜 떨고 있었다.

"그자가 손을 들면 바로 쏴라." 홈즈가 나지막이 말했다. 우리는 어느덧 배 한 척 거리 안으로 접근했고, 추격하던 범인들에게 거의 손이 닿을 듯 가까워졌다. 지금도 그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백인은 다리를 넓게 벌린 채 저주를 퍼부으며 비명을 질러댔고, 그 곁에는 흉측한 얼굴을 한 불경스러운 난쟁이가 있었다. 랜턴 불빛 아래 드러난 그 난쟁이는 누런 이빨을 드러내며 우리를 향해 으르렁거렸다.

그를 아주 선명하게 볼 수 있었던 것은 천만다행이었다. 우리가 지켜보는 사이, 그는 덮개 아래에서 학교에서 쓰는 자처럼 생긴 짧고 둥근 나무 막대기를 꺼내더니 입술에 갖다 대었다. 그와 동시에 우리의 권총이 일제히 불을 뿜었다. 그는 몸을 홱 돌리며 양팔을 치켜들더니, 무언가에 숨이 막힌 듯한 기침을 내뱉으며 옆으로 쓰러져 강물 속으로 빠져들었다. 하얗게 소용돌이치는 물결 사이로 그의 독기 서린 위협적인 눈빛이 찰나의 순간 내 눈에 들어왔다. 바로 그 순간, 의족을 한 사내가 키를 움켜쥐고 힘껏 눌렀다. 덕분에 그의 배는 남쪽 강둑을 향해 곧장 돌진했고, 우리는 그의 배 뒷부분을 겨우 몇 피트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지나쳐 지나갔다. 우리는 즉시 그 뒤를 쫓았으나, 배는 이미 강둑에 거의 다다라 있었다. 그곳은 달빛이 넓게 펼쳐진 습지 위로 희미하게 비치는, 황량하고 거친 곳이었다. 습지에는 고인 물웅덩이와 썩어가는 수풀이 가득했다. 런치는 둔탁한 소리를 내며 진흙 언덕 위로 올라탔다. 배의 앞머리는 공중에 붕 떴고, 뒷부분은 수면과 수평을 이루었다. 도망자는 배 밖으로 뛰어내렸으나, 그의 의족은 젖은 땅속으

로 즉시 깊숙이 박혀버렸다. 그는 아무리 몸부림치며 발버둥 쳐도 소용없었다. 앞으로도 뒤로도 단 한 발짝도 뗄 수 없었다. 그는 무력한 분노를 터뜨리며 비명을 질렀고, 남은 한쪽 발로 진흙을 미친 듯이 걷어찼다. 하지만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끈적한 진흙은 그의 나무 의족을 더욱 깊숙이 파고들 뿐이었다. 우리가 런치를 그 옆에 대자, 그는 너무나 단단히 박혀 있어서 로프 끝을 그의 어깨 위로 던져서야 겨우 그를 끌어낼 수 있었다. 우리는 마치 사악한 물고기를 건져 올리듯 그를 우리 배 위로 끌어 올렸다. 아버지와 아들인 두 스미스는 자신들의 런치에 앉아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으나, 명령을 내리자 순순히 우리 배로 올라왔다. 우리는 오로라 호를 끌어내어 우리 배 뒷부분에 단단히 묶었다. 갑판 위에는 인도식으로 제작된 묵직한 철제 상자가 놓여 있었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숄토 가문의 불길한 보물이 담겨 있던 바로 그 상자였다. 열쇠는 없었지만 무게가 상당했기에, 우리는 상자를 조심스럽게 우리 배의 작은 선실로 옮겼다. 우리가 다시 천천히 강 상류를 향해 나아가는 동안 사방으로 탐조등을 비추어 보았으나, 그 섬사람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템스강 바닥의 어두운 진흙 어딘가에, 우리 해안을 찾아왔던 그 기이한 방문객의 유골이 잠들어 있을 것이다.

"이것 좀 보게."

홈즈가 나무 해치를 가리키며 말했다.

"우리가 권총을 쏘는 속도가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

과연 홈즈의 말대로였다. 우리가 서 있던 바로 뒤편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살벌한 독침 하나가 박혀 있었다. 우리가 총을 쏘는 그

찰나에, 독침이 우리 사이를 쏜살같이 스쳐 지나간 것이 분명했다. 홈즈는 그 광경을 보고는 특유의 여유로운 태도로 어깨를 으쓱하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나는 고백하건대, 그날 밤 우리 곁을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간 그 끔찍한 죽음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속이 메스꺼워졌다.

제11장 아그라의 보물

제11장 아그라의 거대한 보물

우리가 붙잡은 죄수는 자신이 그토록 갈망하며 오랫동안 기다려온 철제 상자가 놓인 선실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그는 햇볕에 그을린 피부를 가진, 눈매가 거친 사내였다. 마호가니 빛깔의 얼굴에는 세월의 풍파를 견디며 야외에서 거칠게 살아온 흔적인 주름이 그물처럼 얽혀 있었다. 수염이 난 턱은 유난히 돌출되어 있었는데, 이는 한 번 결심한 일은 결코 굽히지 않을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검고 곱슬거리는 머리카락 사이로 흰머리가 빽빽하게 섞여 있는 것으로 보아, 나이는 쉰 살 안팎쯤 되어 보였다. 평소의 얼굴은 그리 불쾌한 인상은 아니었으나, 최근에 보았던 것처럼 그가 화가 나면 짙은 눈썹과 공격적인 턱 때문에 무시무시한 표정으로 변하곤 했다. 그는 지금 수갑을 찬 채 양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고개를 가슴 쪽으로 떨구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날카롭고 반짝이는 눈으로는 자신의 범죄를 불러온 그 상자를 응시했다. 굳게 다문 그의 표정에서는 분노보다는 오히려 슬픔이 더 짙게 느

껴졌다. 한 번은 그가 눈에 유머 비슷한 빛을 띤 채 나를 올려다보기도 했다.

"자, 조너선 스몰," 홈즈가 시가에 불을 붙이며 말했다. "결국 일이 이렇게까지 되고 말았군. 유감이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 그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이 일로 제가 교수형까지 당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대고 맹세하건대, 저는 숄토 씨에게 손을 댄 적이 없습니다. 그 저주받을 독침을 쏜 건 통가라는 그 작은 악마 같은 놈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관련도 없습니다, 선생님. 제 혈육이 죽은 것처럼 저도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이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그 어린 악마를 밧줄 끝으로 실컷 두들겨 패 주긴 했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었고 제가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시가 하나 피우게." 홈즈가 말했다. "몸이 아주 흠뻑 젖었으니 내 플라스크에 든 술도 좀 마시는 게 좋겠어. 저 검은 피부의 사내처럼 작고 약해 보이는 자가 어떻게 숄토 씨를 제압하고, 자네가 밧줄을 타고 올라오는 동안 그를 붙들고 있을 수 있었겠나?"

"선생님께서는 마치 현장에 계셨던 분처럼 모든 것을 꿰뚫고 계시는군요. 사실 저는 방 안이 비어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 집의 생활 습관을 꽤 잘 알고 있었고, 마침 숄토 씨가 저녁 식사를 하러 내려갈 시간이었거든요. 숨길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변명은 그저 사실을 그대로 말하는 것뿐이니까요. 만약 상대가 그 노령의 소령이었다면, 저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를 찔렀을 겁니다. 이 시가에 불을 붙이는 것만큼이나 가볍게 생각했겠지요. 하지만 아무런 원한도 없는 이 젊

은 숄토 씨를 상대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정말이지 지독하게 운이 없군요."

"당신은 스코틀랜드 야드의 애슐니 존스 경위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위가 당신을 내 방으로 데려갈 것이니, 나는 당신에게 이 사건에 대한 진실한 설명을 요구할 겁니다. 숨김없이 전부 털어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당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내 생각엔 그 독이 워낙 빠르게 작용해서, 당신이 방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 남자가 이미 사망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선생님. 창문을 통해 들어가는 저를 향해 그자가 머리를 어깨에 기댄 채 비열하게 웃고 있던 그 순간은, 제 평생 잊지 못할 충격이었습니다. 정말이지 온몸이 떨릴 정도였지요. 만약 그자가 허겁지겁 도망치지 않았다면, 저는 통가를 반쯤 죽여 놓았을 겁니다. 그 바람에 그자는 자기 곤봉과 독침 몇 개를 떨어뜨리고 갔는데, 본인 말로는 그게 선생님께서 저희 자취를 쫓는 데 도움이 된 것 같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 흔적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쫓으신 건 제 머리로는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일로 선생님을 원망하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참으로 기묘한 일이지요."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거의 50만 파운드에 달하는 거액을 가질 권리가 제게 있음에도, 인생의 전반전은 안다만 제도에서 방파제를 쌓는 데 허비했고, 남은 인생은 다트무어에서 하수도나 파며 보내게 생겼으니 말입니다. 상인 아흐메트를 처음 보고 아그라 보물과 엮이게 된 그날은 제 인생 최악의 날

이었습니다. 그 보물은 주인에게 저주만을 가져다주었으니까요. 주인에게는 살인을, 솔토 소령에게는 공포와 죄책감을, 그리고 제게는 평생의 노예 생활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순간 애슬니 존스가 떡 벌어진 어깨와 큼직한 얼굴을 좁은 선실 안으로 들이밀었다.

"다들 가족 모임이라도 하는 모양이군." 그가 말했다. "홈즈, 나도 그 플라스크에 든 술을 한 모금 마셔야겠어. 자, 우리 모두 서로 축하를 나누기로 하지. 다른 놈을 생포하지 못한 건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네. 그런데 홈즈, 자네도 인정해야 할 거야. 이번엔 정말 아슬아슬했어. 그 배를 따라잡는 것만으로도 간신히 해낸 일이었다고."

"끝이 좋으면 다 좋은 법이지." 홈즈가 말했다. "하지만 '오로라호'가 그렇게 빠른 배인 줄은 정말 몰랐군."

"스미스 말로는 그 배가 강에서 가장 빠른 보트 중 하나라고 합니다. 만약 엔진을 도와줄 사람이 한 명만 더 있었어도 절대 잡지 못했을 거라고 하더군요. 노우드에서 벌어진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도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우리를 붙잡은 죄수가 외쳤다. "단 한 마디도요. 그 사람의 보트를 고른 건 그 배가 아주 빠르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지만, 보수는 넉넉히 줬습니다. 그 배를 타고 그레이브샌드에서 브라질로 떠나는 우

리 배, 에스메랄다호에 무사히 도착하기만 하면 아주 두둑한 보너스도 주기로 약속했단 말입니다."

"글쎄요, 만약 그가 잘못한 게 없다면 그에게 어떤 해가 끼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범인을 붙잡는 건 꽤 빠를지 몰라도, 그들을 유죄로 단정 짓는 건 그렇게 서두르지 않으니까요."

존스 경위는 범인을 잡았다는 사실에 고무되어 벌써부터 거드름을 피우기 시작했다. 그 잘난 체하는 모습이 꽤나 우스꽝스러웠다. 셜록 홈즈의 얼굴에 살짝 번진 미소를 보니, 홈즈 역시 그 말을 놓치지 않고 경청했음을 알 수 있었다.

"곧 복스홀 다리에 도착할 겁니다." 존스가 말했다. "그곳에서 왓슨 박사님께 보물 상자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을 맡는 것이 제게 얼마나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일인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방식이긴 합니다만, 약속은 약속이니까요. 하지만 박사님께서 운반하시는 물건이 워낙 귀중하니, 의무상 경위 한 명을 동행시켜야겠습니다. 마차는 직접 운전하시겠지요?"

"그래요, 내가 직접 마차를 몰겠습니다."

"열쇠가 없으니 먼저 목록을 작성해 둘 수가 없어서 아쉽군. 결국 부숴서 열어야겠어. 여보게, 열쇠는 어디에 있는가?"

"강 바닥에 있습니다." 스몰이 짧게 대답했다.

"흥! 굳이 이런 번거로운 수고를 하실 필요는 없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이미 충분히 많은 일을 처리했으니까요. 하지만 박사, 조심하라고 굳이 경고할 필요는 없겠군요. 그 상자는 꼭 챙겨서 베이커가 숙소로 돌아오십시오. 우리는 역으로 가던 중에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무거운 철제 상자를 챙겨 든 채, 쾌활하고 싹싹한 경위와 함께 복스홀에서 내렸다. 마차를 타고 15분쯤 달렸을까, 세실 포레스터 부인의 저택에 도착했다. 너무 늦은 시간에 찾아온 손님을 보고 하인이 놀란 기색을 보였다. 하인의 설명에 따르면, 세실 포레스터 부인은 저녁 외출 중이며 아주 늦게 돌아올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모스턴 양은 응접실에 있었다. 나는 친절한 경위를 마차에 남겨둔 채, 상자를 손에 들고 응접실로 향했다.

그녀는 열린 창가에 앉아 있었다. 목과 허리 부분에 붉은색 포인트가 들어간, 하얗고 비치는 얇은 옷을 입고 있었다. 그녀가 바구니 모양의 의자에 몸을 기대자, 가려진 등불의 은은한 빛이 그녀를 비추었다. 그 빛은 그녀의 달콤하면서도 침울한 얼굴 위로 흘러내렸고, 풍성하게 말아 올린 머리카락에는 은은한 금속성 광택을 더해주었다. 의자 옆으로 하얀 팔과 손이 힘없이 늘어져 있었는데, 그녀의 전체적인 자세와 모습에서는 깊은 우울함이 묻어났다. 하지만 내 발소리가 들리자 그녀는 벌떡 일어났다. 그러자 창백했던 그녀의 뺨에 놀라움과 기쁨이 뒤섞인 화사한 홍조가 피어올랐다.

"마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기에 포레스터 부인이 아주 일찍 돌아오신 줄 알았어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당신이 오실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대체 어떤 소식을 가져오신 건가요?"

"단순한 소식보다 훨씬 더 좋은 걸 가져왔네."

나는 탁자 위에 상자를 내려놓으며 쾌활하고 활기찬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겁기만 했다.

"세상의 그 어떤 소식보다도 가치 있는 것을 가져왔어. 바로 엄청난 재물을 가져왔단 말일세."

그녀는 철제 상자를 힐끗 보더니, 꽤나 침착한 태도로 물었다. "그게 보물인가요?"

"그래, 이게 바로 그 엄청난 아그라 보물이야. 절반은 네 것이고, 나머지 절반은 새디어스 숄토의 것이지. 너희는 각각 20만 파운드 정도를 갖게 될 거야. 한번 생각해 봐! 매년 만 파운드씩 연금이 들어온다고. 영국에서 이보다 더 부유한 젊은 숙녀는 거의 없을 거야. 정말 영광스럽지 않니?"

내가 기쁨을 너무 과하게 표현했나 보다. 내 축하 인사가 공허하게 들렸는지, 그녀의 눈썹이 살짝 치켜 올라가더니 나를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만약 제가 그것을 갖게 된다면," 그녀가 말했다. "그건 전부 당신 덕분이에요."

"아니요, 아니요." 내가 대답했다. "제 덕분이 아니라 제 친구 셜록 홈즈 덕분입니다. 홈즈의 그 명석한 분석력조차 애를 먹인 단서를, 제가 아무리 의욕이 넘친들 어떻게 따라갈 수 있었겠습니까. 실제로도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그 단서를 놓칠 뻔했습니다."

"자, 앉아서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왓슨 박사님." 그녀가 말했다.

그녀를 마지막으로 본 이후에 있었던 일들을 짧게 들려주었다. 홈즈가 새로 시도한 수색 방식부터 시작해서, '오로라호'를 발견한 일, 애슬니 존스가 나타난 사건, 우리가 저녁에 떠났던 탐색, 그리고 템스강을 따라 벌어진 격렬한 추격전까지 모두 이야기했다. 그녀는 입을 살짝 벌린 채 눈을 반짝이며 나의 모험담에 귀를 기울였다. 내가 우리를 아슬아슬하게 비껴갔던 독침 이야기를 꺼내자, 그녀는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았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서둘러 물을 따라주자 그녀가 말했다. "이제 괜찮아요. 제 친구들을 그런 끔찍한 위험에 빠뜨렸다는 사실을 듣고 너무 놀랐을 뿐이에요."

"그 일은 이제 다 끝난 일입니다." 내가 대답했다. "별일 아니었어요. 더 우울한 이야기를 늘어놓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좀 밝은 화제로 넘어가죠. 바로 보물 이야기 말입니다.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신이 이 보물을 가장 먼저 보게 되면 흥미로워할 것 같아서, 가져와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 직접 챙겨 왔습니다."

"그건 제게 아주 흥미로운 일이 될 것 같네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목소리에 간절함은 묻어나지 않았다. 그토록 큰 대가를 치러 얻어낸 보물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자칫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처럼 보일까 봐 염려한 모양이었다.

"정말 예쁜 상자네요!" 그녀가 상자 쪽으로 몸을 굽히며 말했다. "이거 인도에서 만든 물건이죠?"

"맞습니다. 베나레스식 금속 공예품이군요."

"세상에, 어쩜 이렇게 무겁죠!" 그녀는 상자를 들어 올리려 애쓰며 외쳤다. "상자만 해도 꽤 값나가는 물건임이 틀림없어요. 열쇠는 어디 있나요?"

"스몰이 그걸 템스강에 던져버렸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포레스터 부인의 화로용 부지깽이를 좀 빌려야겠군요."

상자 앞면에는 앉아 있는 불상의 형상을 본뜬 두껍고 넓은 걸쇠가 달려 있었다. 나는 그 틈 사이로 부지깽이 끝을 밀어 넣은 뒤, 지렛대처럼 힘껏 비틀었다. 그러자 걸쇠가 커다란 소리를 내며 툭 하고 풀렸다. 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상자 덮개를 젖혔다.

우리 둘은 경악한 채 그 안을 들여다보았다. 상자는 비어 있었다!

그것이 왜 그렇게 무거웠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철제 틀의 두께가 사방으로 2/3인치나 되었기 때문이다. 상자는 매우 묵직하고 정교하게 만들어진 견고한 물건이었다. 마치 아주 귀중한 물건들을 담으려

고 제작된 궤짝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안에는 금속 조각 하나, 보석 부스러기 하나 남아 있지 않았다. 상자는 그야말로 완전히,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었다.

"보물은 사라졌어요." 모스턴 양이 차분하게 말했다.

그 말들을 들으며 그 의미를 깨닫는 순간, 내 영혼을 짓누르던 거대한 그림자가 걷히는 듯했다. 아그라 보물이라는 것이 내 마음을 이토록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것이 마침내 사라지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이기적이고, 불충실하며, 잘못된 마음이었다. 하지만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황금빛 장벽이 사라졌다는 사실 외에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나는 진심을 다해 외쳤다.

그녀는 나를 향해 의아하다는 듯 살짝 미소 지으며 물었다. "어째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당신이 다시 내 손이 닿는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녀는 손을 빼지 않았다. "메리,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떤 남자가 여자를 사랑했는지 그 비할 데 없는 진심을 다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동안 이 보물과 재물들이 내 입을 막아버렸을 뿐입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이 사라졌으니,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느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내가 그녀를 내 곁으로 끌어당기자, 그녀는 "그럼 저도 '하느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겠어요"라고 나직이 속삭였다. 누가 보물을 잃었든, 그날 밤 나는 내가 보물 하나를 얻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제12장 조너선 스몰의 기이한 이야기

제12장 조너선 스몰의 기이한 이야기

그 마차에 타고 있던 경위는 참으로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었다. 내가 다시 그를 만날 때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 내가 텅 빈 상자를 보여주자, 그의 얼굴에는 어두운 기색이 역력했다.

"보상금은 물 건너갔군!" 그가 침울하게 말했다. "돈이 없으면 보수도 없는 법이지. 만약 보물이 거기 있었다면, 오늘 밤 작업으로 샘 브라운과 나 모두 각각 10파운드씩은 챙길 수 있었을 텐데."

"새디어스 숄토 씨는 부자입니다." 내가 말했다. "보물이 있든 없든, 당신에게 반드시 보상을 해줄 겁니다."

하지만 경위는 낙담한 듯 고개를 저었다. "상황이 아주 안 좋군요." 그가 말을 이었다. "애설니 존스 경위도 똑같이 생각할 겁니다."

그의 예측은 적중했다. 내가 베이커가에 도착해 텅 빈 상자를 보여주었을 때, 그 형사 애설니 존스의 표정이 잔뜩 굳어 있었기 때문이다.

홈즈와 죄수, 그리고 존스는 방금 막 도착한 참이었다. 가는 길에 어느 경찰서에 들러 자신들의 상황을 보고하기로 계획을 변경했기 때문이었다. 내 친구 홈즈는 평소처럼 무기력한 표정으로 안락의자에 몸을 기대어 앉아 있었고, 그 맞은편에는 스몰이 의족을 멀쩡한 다리 위에 얹은 채 묵직하게 앉아 있었다. 내가 빈 상자를 꺼내 보이자, 스몰은 의자에 몸을 뒤로 젖히며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이건 다 네 짓이야, 스몰!" 애슬니 존스가 분노를 터뜨리며 말했다.

"그래, 네놈이 절대 손댈 수 없는 곳에 숨겨두었지!" 그가 환희에 차서 외쳤다. "이건 내 보물이야. 이 전리품을 가질 수 없다면, 다른 누구도 가져가지 못하게 철저히 막아버릴 테다. 분명히 말해두지만, 안다만 죄수 수용소에 있는 세 사람과 나를 제외하고는 살아있는 그 누구도 이 보물에 대한 권리가 없어. 나도 이 보물을 쓸 수 없다는 걸 알고, 그들도 쓸 수 없다는 걸 안다. 나는 처음부터 나 자신만큼이나 그들을 위해서도 행동해 왔단 말이다. 우리에겐 언제나 '네 사람의 서명'이 함께 했으니까. 그들도 내가 한 것과 똑같이 행동했을 거다. 숄토나 모스턴의 친척들에게 보물이 넘어가는 꼴을 보느니, 차라리 템스강에 던져버리는 쪽을 택했을 거라고. 우리가 아흐메트를 위해 했던 일은 그들을 부자로 만들어주기 위함이 아니었어. 열쇠가 있는 곳, 그리고 어린 통가가 있는 곳에 보물이 있을 거다. 네놈의 보트가 우리를 따라잡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자마자, 나는 전리품을 안전한 곳에 숨겼다. 이번 여정에서 네놈이 챙길 수 있는 루피는 단 한 푼도 없을 거다."

"우리를 속이려 드는군, 스몰." 애슬니 존스가 엄하게 말했다. "만약 자네가 그 보물을 템스강에 던져버릴 생각이었다면, 상자째로 통째로 던져버리는 게 훨씬 쉬웠을 걸세."

"내가 던지기에도 편하고, 당신이 다시 찾기에도 쉬울 겁니다." 그가 눈을 가늘게 뜨고 곁눈질하며 대답했다. "나를 추적할 만큼 영리한 자라면, 강바닥에서 철제 상자를 건져 올릴 만큼 영리하겠지요. 하지만 지금은 상자들이 5마일가량 떨어진 곳에 흩어져 있으니 일이 더 힘들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상자를 던질 때는 마음이 정말 아팠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나는 거의 미칠 지경이었거든요. 뭐, 이미 벌어진 일을 두고 슬퍼해 봐야 소용없겠지요. 살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법이니까요. 이미 엎질러진 물을 두고 울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네, 스몰." 경위가 말했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가로막는 대신 차라리 협조했더라면, 재판에서 훨씬 유리한 처지에 놓였을 텐데 말이야."

"정의라고!" 전과자가 으르렁거렸다. "참으로 대단한 정의로군! 이게 우리 것이 아니라면 대체 누구의 전리품이란 말인가? 단 한 번도 고생해 본 적 없는 자들에게 이걸 내놓으라니, 그게 무슨 정의란 말인가! 내가 어떻게 이 보물을 얻었는지 똑똑히 보란 말이다! 그 열병 가득한 늪지대에서 보낸 길고 긴 20년, 낮에는 망그로브 나무 아래서 온종일 일하고, 밤에는 더러운 죄수 막사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 지냈다. 모기에 물리고, 말라리아로 몸부림치며, 백인을 괴롭히기 좋아하는 저 빌

어먹을 흑인 경찰들에게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 말이다! 그렇게 해서 아그라 보물을 손에 넣었는데, 내가 이 대가를 치른 것이 고작 남 좋은 일 시키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견딜 수 없다고 해서 정의를 운운하는 건가! 차라리 스무 번을 교수형에 처해지거나 통가의 작살에 몸이 뚫리는 한이 있더라도, 죄수 감방에 갇혀서 내 것이어야 할 돈으로 다른 놈이 궁전에서 편히 지내는 꼴은 못 본다!"

스몰은 억눌러왔던 침착함을 내던지고 격앙된 목소리로 말을 쏟아냈다. 그의 눈은 번뜩였고, 격렬하게 움직이는 손 때문에 수갑이 챙강거리며 부딪혔다. 그 남자의 분노와 격정을 지켜보며 나는 깨달았다. 상처 입은 전과자가 자신을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숄토 소령이 느꼈던 공포가 결코 근거 없거나 유별난 것이 아니었음을 말이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잊으셨군요." 홈즈가 차분하게 말했다. "아직 당신의 이야기를 듣지 못했으니, 애초에 정의가 당신의 편이었는지 아닌지는 우리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 저에게 참으로 정중하게 말씀해 주시는군요. 제 손목에 이 수갑이 채워진 것도 다 선생님 덕분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원망하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모든 게 공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일이니까요. 제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숨길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 한 마디도 거짓 없는 하나님의 진실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제 옆에 잔을 놓아 주시지요. 목이 타면 바로 마시겠습니다."

"저도 우스터셔 출신입니다. 퍼쇼어 근처에서 태어났지요. 지금 그곳에 가보신다면 스몰이라는 성을 가진 사람이 수두룩하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저도 그곳을 한 번 둘러볼까 생각한 적이 많지만, 사실 저는 집안의 명성에 먹칠만 하는 존재였습니다. 가족들이 저를 반갑게 맞아줄지도 의문이고요. 가족들은 모두 성실하게 예배당에 다니며 근근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시골 마을에서 이름도 높고 존경도 받는 이들이었죠. 반면 저는 늘 떠돌이처럼 굴었습니다. 그러다 열여덟 살쯤 되었을 때, 드디어 가족들에게 더는 골칫거리가 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떤 여자 문제로 큰 사고를 쳤거든요. 결국 그 수렁에서 벗어날 방법은 여왕 폐하의 은화를 받고, 마침 인도로 파병을 앞두고 있던 제3 버프 연대에 입대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군인으로서 큰 공을 세울 운명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막 거북걸음 같은 군대식 행군에 익숙해지고 소총 다루는 법을 익히던 참이었는데, 멍청하게도 갠지스강에서 수영을 하겠다고 나선 게 화근이었죠. 다행히 제 중대 부사관이었던 존 홀더가 마침 같은 시간에 물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군대에서도 손꼽히는 수영 실력자였지요. 제가 강 중간쯤 헤엄쳐 갔을 때 악어가 저를 덮쳤습니다. 그러더니 무릎 바로 위쪽을 마치 외과의사가 수술하듯 깔끔하게 물어뜯어 제 오른쪽 다리를 잘라버렸습니다. 충격과 과다출혈로 저는 정신을 잃었고, 만약 홀더가 저를 붙잡아 강둑으로 헤엄쳐 나오지 않았다면 그대로 익사했을 겁니다. 그 일로 다섯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했습니다. 마침내 이 나무 의족을 잘린 다리에 고정하고 절뚝거리며 퇴원했을 때, 저

는 이미 부상으로 인해 군에서 의병 제대(전역) 처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어떤 활동적인 일도 할 수 없는 몸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상상하시겠지만, 당시 저는 운이 아주 없었습니다. 아직 스무 살도 되지 않은 나이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불구자가 되어버렸으니까요. 하지만 불행은 곧 뜻밖의 행운으로 바뀌었습니다. 인디고(쪽) 재배업자로 그곳에 온 에이블 화이트라는 사람이 관리인을 구하고 있었거든요. 인도 노동자들을 돌보며 그들이 게으름 피우지 않고 일을 하도록 감독할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마침 그는 저희 대령님의 친구였습니다. 대령님은 사고 이후 저에게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셨지요.

말하자면 길어질 것 같으니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령님은 저를 그 자리에 강력히 추천해 주셨습니다. 업무의 대부분을 말을 타고 수행해야 했기에 제 다리는 큰 걸림데가 되지 않았습니다. 안장에 다리를 단단히 고정할 수 있을 만큼 무릎 기능은 남아 있었으니까요. 제가 할 일은 농장을 말을 타고 돌아다니며 노동자들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게으름을 피우는 자들을 보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급여도 괜찮았고 머물 곳도 안락했습니다. 저는 남은 인생을 인디고 농장에서 보내는 것에 전적으로 만족했습니다. 에이블 화이트 씨는 친절한 분이었습니다. 그는 종종 제 작은 오두막에 들러 함께 파이프 담배를 피우곤 했습니다. 그곳의 백인들은 고국인 이곳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는 따뜻한 동료애를 나누곤 했으니까요."

"글쎄요, 제 운이란 게 원래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아무런 예고도 없이 거대한 반란이 우리를 덮쳤지요. 한 달 전만 해도

인도는 겉보기에는 서리나 켄트 지방처럼 아주 평온하고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이 되자 이십만 명의 검은 악마들이 풀려났고, 나라는 그야말로 지옥이 되었습니다. 신사 여러분께서는 이미 이 일을 다 알고 계시겠지요. 아마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책을 읽는 체질이 아니니까요. 저는 그저 제 눈으로 직접 본 것들만 압니다.

우리 농장은 북서부 주 경계 근처에 있는 무트라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밤마다 불타는 방갈로들 때문에 하늘이 온통 붉게 타올랐고, 낮이면 아그라로 향하는 유럽인 가족들이 우리 농장을 지나갔습니다. 아그라에는 가장 가까운 부대가 있었으니까요. 에이블 화이트 씨는 고집불통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번 사태가 과장된 것이며, 갑자기 일어난 일처럼 금방 가라앉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지요. 나라 전체가 불길에 휩싸여 가는데도 그는 베란다에 앉아 위스키를 마시고 시가만 피워댔습니다. 저와 도슨은 당연히 그를 따랐습니다. 도슨은 아내와 함께 장부 정리와 농장 관리를 맡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비극이 닥쳤습니다. 저는 멀리 떨어진 농장에 가 있었다가 저녁 무렵 천천히 말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가파른 계곡 아래에 무언가 뭉쳐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려 말을 타고 내려갔는데, 그것을 확인한 순간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도슨의 아내가 온몸이 갈기갈기 찢긴 채 자칼과 들개들에게 반쯤 뜯겨 있었거든요.

길을 조금 더 올라가니 도슨 본인이 엎드린 채 죽어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빈 권총이 들려 있었고, 그 앞에는 세포이 네 명이 서로 엉킨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말의 고삐를 당기며 망설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에이블 화이트의 방갈로에서 짙은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지붕을 뚫고 불길이 치솟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일에 끼어들어 봤자 고용주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제 목숨만 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제가 서 있던 곳에서는 붉은 군복을 입은 수백 명의 검은 악마들이 불타는 집 주위에서 춤을 추며 울부짖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중 몇몇이 저를 가리켰고, 총알 두 발이 제 머리 옆을 스치며 날아갔습니다. 저는 곧장 논밭을 가로질러 도망쳤고, 늦은 밤이 되어서야 겨우 아그라의 성벽 안으로 몸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곳 역시 그리 안전하지는 않았다. 온 나라가 벌떼처럼 들끓었다. 영국군은 소규모 부대로 모일 수 있는 곳마다 총기로 방어할 수 있는 지점을 사수했다. 그 외의 모든 곳에서 영국군은 속수무책으로 도망치는 신세였다. 수백만 명과 수백 명의 대결이었다. 가장 잔혹한 사실은 우리가 맞서 싸운 적들이 보병과 기병, 포병에 이르기까지 모두 우리가 직접 선발하여 가르치고 훈련시킨 정예병들이었다는 점이다. 그들은 우리의 무기를 다루었고, 우리의 나팔 소리에 맞춰 움직였다. 아그라에는 제3 벵골 퓨질리어 연대와 일부 시크교 부대, 기병 두 개 부대, 그리고 포병 한 개 포대가 있었다. 사무원과 상인들로 구성된 자원병 부대가 결성되었고, 나 역시 의족을 찬 채 그 대열에 합류했다. 우리는 7월 초 샤군지에 있는 반군을 격퇴하러 나갔다. 잠시 동안은 적을 몰아내는 듯했으나, 이내 탄약이 바닥나 결국 도시로 퇴각할 수밖에 없었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온통 최악뿐이었네. 하지만 놀라운 일도 아니지.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바로 그 사건의 한복판에 있었으니까 말이야. 러크노는 동쪽으로 백 마일쯤 떨어져 있고, 칸푸르는 남쪽으로 그만큼 떨어져 있네. 나침반이 가리키는 모든 방향에서 고문과 살인, 그리고 참혹한 만행만이 벌어지고 있었지."

"아그라라는 도시는 정말 대단한 곳입니다. 온갖 광신도와 사나운 악마 숭배자들이 들끓는 곳이지요. 우리 소수의 인원은 그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길 사이에서 길을 잃고 헤매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장은 강을 건너 아그라의 옛 요새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기 계신 신사분들 중 혹시 그 옛 요새에 대해 읽어보셨거나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군요. 그곳은 참으로 기묘한 곳입니다. 제가 그동안 꽤나 수상쩍은 구석들을 많이 다녀봤지만, 그곳만큼 기이한 곳은 없었습니다.

우선 규모부터가 엄청납니다. 성채 부지 전체가 수 에이커는 족히 될 겁니다. 현대식 구역도 있는데, 그곳은 우리 주둔군과 부인들, 아이들, 보급품 등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도 공간이 아주 넉넉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식 구역은 옛 구역의 규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옛 구역은 아무도 발을 들여놓지 않아 전갈과 지네들이 점령한 상태였으니까요. 그곳은 텅 빈 거대한 홀과 구불구불한 통로, 그리고 이리저리 뒤엉킨 긴 복도들로 가득 차 있어서, 누구나 쉽게 길을 잃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그곳에 거의 가지 않았습니다. 가끔 횃불을 든 무리가 탐험을 하러 가는 경우를 제외하면 말입니다."

"강물이 옛 요새의 정면을 따라 흐르며 요새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측면과 후면에는 문이 아주 많았지요. 당연히 우리 군이 실제로 점령한 구역뿐만 아니라 옛 구역의 문들도 모두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우리는 인력이 부족했습니다. 건물의 모퉁이마다 초소를 세우고 대포를 운용하기에도 벅찬 인원이었지요. 그러니 그 수많은 문마다 강력한 경비 병력을 배치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새 중앙에 중앙 초소를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각 문에는 백인 한 명과 현지인 두세 명을 배치해 관리하도록 했지요. 저는 밤 시간대 중 특정 시간에 건물의 남서쪽 측면에 있는, 외딴 작은 문을 지키는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 지휘 아래 시크교 기병 두 명이 배치되었고, 만약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즉시 머스킷 총을 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중앙 초소에서 곧바로 지원군이 올 것이라는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앙 초소는 무려 이백 걸음이나 떨어져 있었고, 그 사이 공간은 미로 같은 통로와 복도로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 공격이 발생했을 때 지원군이 제때 도착해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깊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풋내기 신병이었던 데다 다리까지 불편했기에, 이 작은 지휘권을 맡게 된 것이 꽤나 자랑스러웠습니다. 이틀 밤 동안 저는 펀자브 출신 병사들과 함께 경계 근무를 섰습니다. 마호메트 싱과 압둘라 칸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들은 키가 크고 험상궂게 생긴 사내들이었습니다. 둘 다 칠리안왈라 전투에서 우리와 맞서 싸웠던 노련한 전사들이었죠. 그들은 영어를 꽤 잘했지만, 제가 대화를 나누기에는 무리가 있

었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자기들끼리 붙어 서서 기묘한 시크교 방언으로 재잘거리는 편을 더 좋아했으니까요.

저는 보통 성문 밖에 서서 넓게 굽이쳐 흐르는 강과 대도시의 반짝이는 불빛들을 내려다보곤 했습니다. 북소리와 북소리의 울림, 그리고 아편과 뱅(bang)에 취해 울부짖는 반군들의 함성이 밤새도록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들은 강 건너편에 있는 위험한 이웃들이 누구인지 우리 모두에게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야간 당직 장교는 두 시간마다 모든 초소를 돌며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곤 했습니다."

내가 보초를 선 지 사흘째 되는 밤은 어둡고 칙칙했으며, 가랑비가 매섭게 몰아쳤다. 그런 날씨에 성문 입구에 서서 몇 시간이고 버티는 일은 참으로 지루했다. 나는 시크교도 병사들에게 말을 걸어보려 몇 번이나 시도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새벽 두 시가 되자 순찰대가 지나갔고, 그 소리가 밤의 피로를 잠시나마 씻어주었다. 동료들이 대화에 응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나는 파이프를 꺼내고 성냥을 긋기 위해 머스킷 총을 내려놓았다.

그 순간, 시크교도 두 명이 나에게 달려들었다. 한 명은 내 화승총을 낚아채 머리에 겨누었고, 다른 한 명은 커다란 칼을 내 목에 들이댔다. 그는 내가 한 발짝이라도 움직이면 그대로 칼을 찔러버리겠다고 이를 갈며 으름장을 놓았다.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 자들이 반란군과 결탁했으며, 이제 막 공격을 시작하려는 것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만약 우리 문이 세포이(Sepoys)의 손에 넘어간다면 이곳은 함락될 것이고, 여성과 아이들은

칸푸르에서 겪었던 것과 똑같은 일을 당하게 될 터였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그저 제 입장을 정당화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맹세컨대, 목에 칼날이 닿은 그 순간에도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령 그것이 마지막 비명일지라도, 본진의 경비병들을 깨우기 위해 소리를 지르려고 입을 벌렸습니다.

그런데 저를 붙잡은 남자는 제 생각을 읽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막 비명을 지르려던 찰나, 그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소리 내지 마라. 요새는 충분히 안전하다. 강 이편에는 반란군 개자식들이 없다.' 그 말에는 진실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목소리를 높이는 순간 죽은 목숨이 되리라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그 남자의 갈색 눈동자를 보니 분명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이 제게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침묵하며 기다렸습니다."

"내 말을 잘 들어라, 사힙(Sahib)."

둘 중 키가 더 크고 험악하게 생긴 사내, 사람들에게 압둘라 칸이라 불리는 자가 말했다.

"지금 당장 우리와 함께하거나, 아니면 영원히 입을 다물어야 한다. 이 일은 우리가 망설일 수 없을 만큼 중대한 일이다. 기독교의 십자가를 걸고 맹세하건대, 너는 온 마음을 다해 우리 편에 서야 한다. 만약 거절한다면 오늘 밤 네 시체는 구덩이에 던져질 것이고, 우리는 반란군 형제들에게로 떠날 것이다. 중간이란 없다. 죽음인가, 삶인가? 선택할 시간은 딱 3분뿐이다. 시간이 흐르고 있다. 다음 초병이 순찰을 돌기 전에는 모든 일을 끝내야 하니까."

"내가 어떻게 결정할 수 있겠나?" 내가 말했다.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말도 안 해주지 않았나. 하지만 미리 말해두겠네. 만약 자네가 요구하는 것이 이 요새의 안전을 해치는 일이라면, 나는 결코 협조하지 않을 걸세. 그러니 차라리 칼을 들고 덤벼들게나."

"요새를 공격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가 말했다. "우리는 그저 당신네 나라 사람들이 이 땅에 온 목적을 이루어 달라는 것뿐입니다. 부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오늘 밤 우리와 뜻을 함께한다면, 우리는 맨칼을 걸고 맹세하겠습니다. 또한 그 어떤 시크교도도 어긴 적 없다는 세 겹의 서약을 걸고 약속하겠습니다. 당신에게도 전리품의 정당한 몫을 반드시 나누어 주겠다고 말입니다. 보물의 4분의 1은 당신의 것입니다. 이보다 더 공정한 제안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보물이 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물었다. "방법만 알려준다면, 나도 당신만큼이나 부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맹세하게." 그가 말했다. "지금 당장은 물론이고 나중에도, 우리에게 손을 대거나 한마디 말도 보태지 않겠다고 말일세. 돌아가신 아버님의 유골과 어머니의 명예, 그리고 그대가 믿는 신앙의 십자가를 걸고 맹세하게나."

"요새가 위험에 처하지만 않는다면, 기꺼이 맹세하겠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나와 내 동료는 맹세하겠네. 우리 네 사람이 똑같이 나누어 가질 그 보물의 4분의 1을 자네에게 주겠다고 말이야."

"세 명뿐입니다." 내가 말했다.

"아닙니다. 도스트 아크바르도 마땅히 몫을 챙겨야지요. 그들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마호메트 싱, 당신은 문 앞을 지키며 그들이 오는지 살피시오. 사히브, 상황은 이렇습니다. 제가 당신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외국인에게는 맹세가 구속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며, 당신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거짓을 일삼는 힌두교도였다면, 가짜 신들이 모셔진 사원의 모든 신을 걸고 맹세했다 한들, 당신의 피는 칼날 위에 뿌려졌을 것이고 시신은 물속에 던져졌을 겁니다. 하지만 시크교도는 영국인을 알고, 영국인 또한 시크교도를 압니다. 그러니 이제 제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북부 지방에 영토는 좁지만 막대한 부를 가진 라자(Rajah)가 한 명 있습니다. 그는 부친으로부터 많은 유산을 물려받았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재산을 더 불려 놓았습니다. 성격이 워낙 인색하여 돈을 쓰기보다는 쌓아두는 편이었거든요. 난리가 터지자 그는 사자와 호랑이 모두와 친구가 되려 했습니다. 즉, 세포이 반군과 동인도 회사의 통치 세력 양쪽 모두와 손을 잡으려 한 것이지요. 하지만 곧 백인들의 시대가 저물어간다는 사실을 깨달은 듯했습니다. 온 땅에서 백인들이 죽거나 몰락했다는 소식만 들려왔으니까요.

그럼에도 그는 치밀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최소한 재산의 절반은 지킬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지요. 금과 은은 궁전 지하 금고에 보관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귀한 보석과 최상급 진주들은

따로 철제 상자에 담았습니다. 그러고는 상인을 가장한 믿음직한 하인에게 맡겨 아그라 요새로 보냈습니다. 땅이 다시 평온해질 때까지 그곳에 보관하라는 명을 내린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반군이 승리하더라도 현금을 챙길 수 있고, 만약 동인도 회사가 승리하더라도 보석만큼은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을 이렇게 나누어 둔 뒤, 그는 국경 근처에서 세력이 강했던 세포이 반군 편에 가담했습니다. 사히브, 명심하십시오. 바로 이 점 때문에 그의 재산이 자신에게 충성한 이들의 몫이 된 것입니다."

"'아흐메트라는 가명을 쓰는 이 가짜 상인은 지금 아그라에 머물고 있으며, 요새 안으로 들어갈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의 수행원으로는 그의 비밀을 알고 있는 의붓형제 도스트 아크바르가 동행하고 있지요. 도스트 아크바르는 오늘 밤 그를 요새의 측문으로 안내하기로 약속했고, 그 목적으로 바로 이곳을 택했습니다. 그는 곧 이곳으로 올 것이며, 이곳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마호메트 싱과 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곳은 외진 곳이라 그가 온 사실을 아무도 모를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흐메트라는 상인을 다시는 보지 못하겠지만, 라자로부터 얻은 그 거대한 보물은 우리 몫으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사히브,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스터셔에서는 사람의 목숨이 매우 크고 신성한 것이지만, 사방에 불길과 피가 낭자하고 매 순간 죽음을 마주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전혀 달라진다. 상인 아흐메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내게 공기처럼 가벼운 문제였다. 하지만 보물 이야기가 나오자 내 마음은 그쪽으

로 기울었다. 고향으로 돌아가 그 돈으로 무엇을 할지, 그리고 늘 사고만 치던 내가 주머니 가득 금화인 모이도어를 채워 돌아왔을 때 가족들이 얼마나 놀랄지 상상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다. 하지만 압둘라 칸은 내가 망설이고 있다고 생각했는지, 더욱 집요하게 나를 몰아붙였다.

"사히브(Sahib), 생각해보십시오." 그가 말했다. "만약 지휘관에게 이 자가 붙잡힌다면, 그는 교수형에 처해지거나 총살당할 것입니다. 그러면 보석은 정부가 몰수하겠지요. 그렇게 되면 그 보석 때문에 이득을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를 붙잡는다면, 나머지 일도 우리가 처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보석을 동인도 회사의 금고에 두느니 차라리 우리 손에 두는 게 낫습니다. 우리 모두를 부유한 부자와 위대한 추장이 되게 하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양입니다. 이곳은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곳이니 아무도 이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히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적군으로 간주해야 합니까?"

"진심으로 당신을 돕겠습니다." 내가 말했다.

"그거 다행이군." 그가 내 총을 돌려주며 대답했다. "보다시피 우리는 자네를 믿네. 자네의 약속도 우리 것처럼 결코 깨질 수 없으니 말이야. 이제 내 형과 상인이 오기만을 기다리면 되네."

"그렇다면 당신의 형은 당신이 무엇을 하려는지 알고 있습니까?" 내가 물었다.

"계획은 그의 것입니다. 그가 직접 세운 것이지요. 우리는 정문으로 가서 마호메트 싱과 교대로 보초를 서면 됩니다."

비는 여전히 꾸준히 내리고 있었다. 이제 막 우기가 시작된 참이었기 때문이다. 갈색빛의 무거운 구름이 하늘을 가로질러 흘러갔고, 돌 하나를 던질 거리 너머로는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우리 집 문 앞에는 깊은 해자가 자리 잡고 있었으나, 곳곳에 물이 거의 말라 있어 쉽게 건너갈 수 있었다. 죽음을 향해 달려오는 남자를 기다리며, 저 거친 펀자브인 두 명과 함께 이곳에 서 있다는 사실이 내게는 무척이나 기이하게 느껴졌다.

그때 갑자기 해자 건너편에서 가려진 등불 하나가 번뜩이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등불은 흙더미 사이로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 우리 쪽을 향해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했다.

"여기 있군요!" 내가 외쳤다.

"사히브, 평소처럼 그에게 누구냐고 검문하십시오." 압둘라가 속삭였다. "그가 겁을 먹지 않게 해야 합니다. 저희를 그와 함께 안으로 들여보내 주시면, 사히브께서는 여기서 경계를 서시고 나머지는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다만, 그자가 정말 그 사람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등불 덮개를 바로 열 수 있게 준비해 주십시오."

빛이 깜빡이며 다가왔다 멀어지기를 반복하더니, 마침내 해자 건너편에 있는 두 검은 형체가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그들이 경사진 제방을 타고 내려와 진흙탕을 첨벙거리며 지나가고, 성문 중턱까지 기어 올

라올 때까지 가만히 지켜보았다. 그러고 나서야 나는 그들에게 멈추라고 소리쳤다.

“거기 누구십니까?” 내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친구들이오." 대답이 돌아왔다. 나는 랜턴의 덮개를 열어 그들을 향해 빛을 한꺼번에 쏟아부었다. 첫 번째 인물은 거구의 시크교도였다. 검은 수염은 허리띠 근처까지 길게 내려와 있었다. 구경거리로 연출된 무대가 아니라면, 그렇게 키가 큰 남자는 생전 처음 보았다. 다른 한 명은 작고 뚱뚱하며 둥글둥글한 체격의 사내였다. 그는 커다란 노란 터번을 쓰고 있었고, 손에는 솔로 감싼 보따리를 들고 있었다. 그는 겁에 질려 온몸을 떨고 있는 듯했다. 마치 말라리아에 걸린 사람처럼 손을 경련하듯 떨었고, 쥐가 구멍 밖으로 조심스레 고개를 내밀 때처럼 두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좌우로 끊임없이 돌려댔다. 그를 죽여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소름이 끼쳤지만, 보물을 떠올리자 마음이 부싯돌처럼 단단히 굳어졌다. 내 창백해진 얼굴을 본 그는 기쁨에 겨워 짧게 소리를 지르더니 내 쪽으로 달려왔다.

“사히브, 당신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불행한 상인 아흐메트를 보호해 주십시오. 아그라 요새의 은신처를 찾아가려고 라지푸타나를 가로질러 왔습니다. 동인도 회사의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강도를 당하고, 매를 맞고, 모욕까지 당했습니다. 다시 안전한 곳에 도착하니 참으로 축복받은 밤입니다. 저와 제 가련한 재산 모두 말입니다.”

“그 꾸러미 안에 든 게 뭡니까?” 내가 물었다.

“철제 상자라네.” 그가 대답했다. “그 안에는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가치도 없지만, 내가 잃어버리면 무척 아쉬울 만한 집안 물건이 한두 개 들어있지. 하지만 내가 구걸을 하려는 건 아니네. 젊은 사히브, 자네와 자네 주인에게도 보상을 하겠네. 만약 그분이 내가 요청한 대로 머물 곳을 내어준다면 말이야.”

“그 사람과 더는 대화를 나눌 자신이 없었습니다. 겁에 질린 채 뚱뚱한 얼굴을 보고 있자니, 우리가 그를 아무런 죄도 없이 냉혹하게 죽여야 한다는 사실이 더욱 견디기 힘들게 느껴졌거든요. 차라리 빨리 끝내는 게 최선이었습니다.”

"그를 본부로 데려가라." 내가 명령했다. 시크교도 두 사람이 그의 양옆을 바짝 에워쌌고, 거구의 사내는 그 뒤를 따랐다. 그렇게 그들은 어두운 성문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토록 빈틈없이 죽음에 둘러싸인 사람은 일찍이 본 적이 없었다. 나는 등불을 든 채 성문 앞에 남았다.

“적막한 복도를 따라 그들의 규칙적인 발소리가 울려 퍼지는 게 들렸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발소리가 멎더니, 사람들의 목소리와 몸싸움 소리, 그리고 무언가 타격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시 후, 공포에 질린 제 귀에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이쪽으로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랜턴을 비춰 길고 곧게 뻗은 복도를 비추었습니다. 그곳에는 얼굴에 피를 묻힌 채 바람처럼 달려오는 뚱뚱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호랑이처럼 달려드는 검은 수염의 거구 시크교도가 손에 칼을 번뜩이며 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작은 상인이 그렇게 빨리 달리는 모습은 생전 처음 보았습니다. 그는 시크교도를 따돌리려 필사

적으로 달리고 있었고, 만약 그가 저를 지나쳐 탁 트인 밖으로 나가기만 한다면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를 보니 마음이 약해졌지만, 그가 가진 보물을 생각하자 다시 마음이 차갑고 비정하게 굳어버렸습니다. 남자가 제 곁을 스쳐 지나갈 때, 저는 그의 다리 사이로 화승총을 던졌습니다. 남자는 총에 맞은 토끼처럼 두어 번 굴렀습니다. 그가 채 몸을 일으키기도 전에 시크교도가 덮쳐와 그의 옆구리에 칼을 두 번이나 꽂아 넣었습니다. 남자는 신음 한 번 내뱉지 못했고 근육 하나 움직이지 못한 채 쓰러진 자리에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 그는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진 것 같습니다. 신사 여러분, 보시다시피 저는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에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이 사건에서 일어난 일을 있는 그대로 전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는 말을 멈추더니, 홈즈가 타 준 위스키 희석액을 받으려고 수갑을 찬 두 손을 내밀었다. 나 역시 고백하건대, 그 남자가 끔찍하게 느껴졌다. 그가 연루된 이 냉혹한 사건 때문만이 아니었다. 사건을 이야기하는 태도가 지나치게 경박하고 무심했기 때문이었다. 그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지든, 나에게서 동정심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셜록 홈즈와 존스는 무릎 위에 손을 올린 채 이야기에 깊이 몰입해 있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똑같이 혐오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아마 그 표정을 눈치챘을 것이다. 이야기를 이어가는 그의 목소리와 태도에는 반항적인 기색이 역력했으니까.

"의심할 여지 없이 상황은 아주 나빴습니다." 그가 말했다. "하지만 제 처지였다면, 고생한 대가로 목이 잘릴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전리품을 거부했을 사람이 몇이나 될지 궁금하군요. 게다가 그가

요새에 들어간 이상, 제 목숨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만약 그가 탈출했다면 모든 사실이 드러났을 테고, 저는 군사 재판에 넘겨져 사형을 면치 못했을 겁니다. 당시 분위기로 보아 사람들은 결코 너그럽지 않았으니까요."

"이야기를 계속하게." 홈즈가 짧게 말했다.

"그렇습니다. 압둘라와 아크바르, 그리고 제가 그를 메고 들어갔습니다. 키는 작았지만 무게는 꽤 묵직하더군요. 마호메트 싱은 문을 지키라고 남겨두었습니다. 우리는 시크교도들이 미리 준비해 둔 곳으로 그를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꽤 떨어진 곳이었는데, 구불구불한 통로를 지나면 커다란 빈 홀이 나옵니다. 벽돌로 된 벽은 온통 부서져 내리고 있었지요. 흙바닥 한쪽이 움푹 꺼져 있어 마치 천연 무덤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인 아흐메트를 그곳에 묻어주기로 했습니다. 우선 헐거운 벽돌들로 시신을 덮어준 뒤에 말입니다. 일을 마친 우리는 모두 다시 보물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것은 처음 공격을 받았을 때 떨어뜨린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상자는 지금 당신의 탁자 위에 열려 있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 상자 윗부분의 조각된 손잡이에는 비단 끈에 매달린 열쇠 하나가 달려 있었다. 우리가 상자를 열자, 랜턴 불빛 아래로 보석들이 찬란하게 빛났다. 퍼쇼어에서 어린 시절을 보낼 때 책에서 읽고 상상만 했던 바로 그런 보석들이었다. 눈이 멀 정도로 눈부신 광경이었다. 우리는 한참 동안 그 보석들을 감상한 뒤, 전부 꺼내어 목록을 작성했다.

최상급 품질의 다이아몬드가 143개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그레이트 모굴'이라 불리며 현존하는 보석 중 두 번째로 큰 것이라고 알려진 것이었다. 또한 아주 질 좋은 에메랄드 97개와 루비 170개가 있었는데, 루비 중 일부는 크기가 작았다. 카벙클 40개, 사파이어 210개, 마노 61개가 있었고, 베릴, 오닉스, 캣츠아이, 터키석 등 그 외에도 수많은 보석이 있었다. 당시에는 이름조차 잘 몰랐지만, 그 후로 많이 익숙해진 것들이다. 이 외에도 아주 질 좋은 진주가 거의 300개나 있었는데, 그중 12개는 금제 왕관에 박혀 있었다. 참고로, 이 진주들은 상자에서 이미 꺼낸 상태였기에 내가 상자를 회수했을 때는 그곳에 없었다.

"보물을 다 센 뒤에 우리는 그것들을 다시 상자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마호메트 싱에게 보여주려고 상자를 들고 성문 앞까지 갔지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서로를 지켜주고 비밀을 지키겠노라고 엄숙하게 다시 한번 맹세했습니다. 우리는 나라가 다시 평온해질 때까지 약탈한 보물을 안전한 곳에 숨겨두기로 했습니다. 그 후에 보물을 똑같이 나누기로 약속했지요. 지금 당장 나누는 건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만약 우리 몸에서 그토록 값비싼 보석들이 나온다면 의심을 살 게 뻔했고, 요새 안에는 사적인 공간도, 보물을 보관할 만한 장소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상자를 들고 시체를 묻었던 바로 그 홀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상태가 온전한 벽면의 벽돌 몇 개를 골라 구멍을 파고 보물을 그 안에 넣었습니다. 우리는 그 위치를 꼼꼼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다음 날 나는 우리 네 사람을 위해 각각 한 장씩, 총 네 장의 도면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도면 하단에는 우리 네 사람의 표식을 남겼지요. 우리 중 누구도 다른 사람을 이용해 이득을 취하지 못

하도록, 우리 모두가 항상 모두를 위해 행동하겠다고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가 가슴에 손을 얹고 단언할 수 있는 맹세이며, 나는 단 한 번도 그 약속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께 인도 반란이 어떻게 끝났는지 구태여 설명해 드려 봤자 소용없겠군요. 윌슨이 델리를 탈환하고 콜린 경이 러크노를 구출해 내면서, 반란의 기세는 이미 꺾인 상태였습니다. 새로운 병력이 쉴 새 없이 밀려들었고, 나나 사힙은 국경 너머로 자취를 감춰버렸지요. 그 레히드 대령이 이끄는 기동대가 아그라로 진격해 파디(Pandies)들을 소탕했습니다. 나라에는 평화가 찾아오는 듯 보였고, 우리 네 사람은 각자 챙긴 전리품을 가지고 안전하게 떠날 날이 머지않았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순식간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아흐메트를 살해한 범인으로 체포되었으니까요."

"사건은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라자(Rajah)가 아흐메트에게 보석을 맡긴 건 그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동양 사람들은 의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라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더욱 믿을 만한 두 번째 하인을 두어 첫 번째 하인을 감시하게 했습니다. 그 두 번째 하인은 아흐메트를 한시도 눈앞에서 놓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고, 마치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날 밤, 하인은 아흐메트를 뒤쫓아 그가 성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연히 아흐메트가 요새 안으로 피신했다고 생각한 하인은 다음 날 직접 요새에 들어가려 했지만, 아흐메트의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나 이상했던 하인은 안내병 상사에

게 이 사실을 말했고, 그 이야기는 지휘관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곧바로 대대적인 수색이 벌어졌고, 결국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안전하다고 믿었던 순간, 우리 네 명은 살인 혐의로 체포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우리 중 세 명은 그날 밤 성문을 지켰다는 이유로, 나머지 한 명은 살해된 사람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에 기소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보석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라자가 폐위되어 인도에서 쫓겨난 상태였기에, 보석에 관심을 가질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살인 사실은 명백히 입증되었고, 우리 모두가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점도 확실시되었습니다. 시크교도 세 명은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저 역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행히 나중에 형량이 감형되어 다른 이들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처한 상황은 참으로 기묘했다. 우리 네 사람은 모두 다리가 묶인 채, 다시는 빠져나가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절망적인 처지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우리 각자는 그 비밀을 이용하기만 한다면 누구나 궁전에 살 수 있을 만큼 엄청난 가치를 지닌 비밀을 하나씩 품고 있었다. 눈앞에 그 화려한 보물이 손만 뻗으면 닿을 듯 기다리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먹을 쌀과 마실 물을 구걸하며 하찮은 관리들의 발길질과 매질을 견뎌야만 했다. 그런 상황은 사람을 미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나는 미쳐버릴 것만 같았지만, 워낙 고집이 센 편이라 그저 묵묵히 버티며 때를 기다릴 뿐이었다.

"마침내 그 순간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그라에서 마드라스로, 다시 그곳에서 안다만 제도의 블레어 섬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이 정착지에는 백인 죄수가 거의 없었는데, 제가 처음부터 행실이 좋았던 덕분에 곧 일종의 특권층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해릿 산 비탈에 있는 작은 마을인 호프 타운의 오두막 한 채를 배정받았고, 거의 혼자 지냈습니다. 그곳은 황량하고 열병이 창궐하는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일구어 놓은 작은 개간지 너머에는 식인종 부족이 득실거렸는데, 기회만 생기면 언제든 우리에게 독화살을 쏠 기세였습니다. 땅을 파고 도랑을 만들고 얌을 심는 등 해야 할 일이 열 가지도 넘게 산더미 같아서, 우리는 온종일 쉴 틈 없이 바빴습니다. 그나마 저녁이 되어서야 겨우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었지요. 저는 그곳에서 외과 의사의 약조제를 돕는 법을 배웠고, 의학 지식도 조금은 익혔습니다. 그러는 동안 저는 줄곧 탈출할 기회만을 엿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다른 육지에서 수백 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데다, 그 바다에는 바람조차 거의 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탈출하기란 정말이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외과 의사인 서머턴 박사는 성격이 급하고 활동적인 젊은이였습니다. 다른 젊은 장교들은 저녁마다 그의 방에 모여 카드 게임을 즐기곤 했지요. 제가 약을 조제하던 진료실은 그의 거실 바로 옆방이었는데, 두 방 사이에는 작은 창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끔 외로움이 느껴질 때면 저는 진료실의 등불을 끄고 그곳에 서 있곤 했습니다. 그러면 창 너머로 그들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고, 카드 게임을 하는 모습도 지켜볼 수 있었지요. 저 역시 카드 게임을 좋아했기에, 남들이 하는 것을 구경

하는 것만으로도 꽤 즐거웠습니다. 그 모임에는 솔토 소령과 모스턴 대위, 그리고 현지 부대를 지휘하는 브롬리 브라운 중위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서머턴 박사 본인과, 노련하고 영악하게 안전한 게임을 운영할 줄 아는 교활한 노련미를 갖춘 교도관 두세 명도 함께했지요. 참으로 아기자기하고 화기애애한 모임이었습니다."

"글쎄요, 곧바로 눈에 띄는 점이 하나 있었는데, 군인들은 늘 지고 민간인들은 늘 이긴다는 사실이었죠. 불공평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랬어요. 안다만 제도에 와 있던 시절부터 이 교도관들은 카드놀이 말고는 하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서로의 패를 훤히 꿰뚫고 있었죠. 반면 다른 사람들은 그저 시간을 때우려고 대충 패를 던지며 게임에 임했습니다. 밤마다 군인들은 점점 더 빈털터리가 되어갔고, 형편이 어려워질수록 게임에 더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솔토 소령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죠. 처음에는 지폐나 금으로 판돈을 냈지만, 곧 약속어음을 주고받으며 거액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가끔은 기운을 북돋아 주려고 몇 판 정도는 이기게 해주기도 했지만, 그러면 곧 이전보다 더 지독한 불운이 그를 덮쳤습니다. 소령은 하루 종일 벼락이라도 맞은 듯한 얼굴로 정처 없이 배회하곤 했고, 건강에 해로울 정도로 술에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평소보다 훨씬 더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제가 오두막에 앉아 있을 때였죠. 모스턴 대위와 그가 비틀거리며 숙소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막역한 사이라 늘 붙어 다녔거든요. 소령은 돈을 잃은 것에 대해 정신없이 불평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네, 모스턴."

그들이 내 오두막 앞을 지나갈 때,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서류를 제출해야겠어. 난 이제 파멸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이 사람아!" 다른 한 사람이 내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나도 꽤나 골치 아픈 일을 겪어봤지만, 그래도—" 그게 내가 들을 수 있는 전부였지만, 생각에 잠기기에는 충분한 말이었다.

며칠 뒤, 솔토 소령이 해변을 거니는 것을 보고 나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에게 말을 걸었다.

"소령님, 조언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내가 말했다.

"자, 스몰, 대체 무슨 일인가?"

그가 입술에 물고 있던 시가루를 떼어내며 물었다.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선생님." 내가 말했다. "숨겨진 보물을 누구에게 넘겨주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까? 저는 50만 파운드 가치의 보물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쓸 수도 없는 처지이니, 차라리 적절한 당국에 넘겨주는 게 최선일 것 같아서요. 그러면 아마 제 형량도 좀 줄여주지 않을까 싶어서 말입니다."

"50만 파운드라고, 스몰?" 그는 내가 진심인지 확인하려는 듯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숨을 헐떡였다.

"맞습니다, 선생님. 보석과 진주로 가득합니다. 누구든 가져갈 수 있게 그대로 놓여 있지요. 그런데 참 이상한 건, 진짜 주인은 법망을 피해 도망 중인 범죄자라 재산을 소유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발견하는 사람이 임자나 다름없지요."

"정부에게, 스몰!" 그가 말을 더듬으며 외쳤다. "정부에게 말이야!" 하지만 그는 말을 머뭇거렸고, 나는 직감적으로 그를 붙잡았다는 사실을 확신했다.

"그렇다면 제가 총독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내가 차분하게 물었다.

"자, 자, 경솔하게 행동해서 나중에 후회할 일은 만들지 말게나. 스몰, 자네가 겪은 일을 전부 들려주게. 사실관계부터 차근차근 말이야."

"그가 장소를 알아채지 못하도록 내용을 조금씩 바꾸어, 사건의 전말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치자 그는 아무 말 없이 멍하니 서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니, 그의 내면에서 격렬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네, 스몰."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이 일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도 한마디도 발설해서는 안 되네. 조만간 다시 보세."

이틀 뒤 한밤중, 그는 등불을 든 친구 모스턴 대위와 함께 내 오두막을 찾아왔다.

“스몰, 나는 그저 자네 입으로 직접 그 이야기를 모스턴 대위에게 들려주길 바랄 뿐이네.” 그가 말했다.

“전에도 말했던 대로 똑같이 다시 설명했습니다.”

"그럴듯하지, 안 그래?" 솔토 소령이 말했다. "이걸 토대로 움직여 볼 만한 가치가 있겠나?"

모스턴 대위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보게, 스몰.” 솔토 소령이 말했다. “나와 내 친구가 방금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네. 결론을 내리자면, 자네가 말하는 그 비밀은 결국 정부가 관여할 문제는 아닌 것 같더군. 자네 개인의 사적인 문제이니, 당연히 자네가 원하는 방식대로 처리할 권한도 있겠지. 이제 문제는 자네가 그 비밀의 대가로 얼마를 요구하느냐 하는 것이네. 조건만 맞으면 우리가 그 일을 맡아 검토해 볼 의향이 있네.”

소령은 냉정하고 무심한 척 말하려 애썼다. 하지만 그의 눈은 흥분과 탐욕으로 번뜩이고 있었다.

"그 점에 대해서라면, 신사 여러분, 저도 침착하려 애쓰고는 있지만 사실 그분만큼이나 흥분되는군요." 내가 대답했다. "제 처지에서 제안할 수 있는 거래는 단 하나뿐입니다. 여러분은 저를 자유롭게 해 주시고, 제 동료 세 사람도 자유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을 동업자로 받아들여, 5분의 1 몫을 두 분이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흠!" 그가 말했다. "5분의 1 지분이라니, 그리 매력적인 제안은 아니군."

"인당 5만 파운드씩 돌아가겠군요." 내가 말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당신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요구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스스로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소." 내가 대답했다. "나는 모든 세부 사항을 이미 완벽하게 검토해 두었소. 우리가 탈출하는 데 유일한 걸림돌은 항해에 적합한 배를 구할 수 없다는 것과, 그 긴 시간 동안 버틸 식량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뿐이오. 캘커타나 마드라스에는 우리 용도로 쓰기에 충분한 작은 요트나 야울선이 아주 많소. 당신이 배 한 척만 가져오면 되오. 우리는 밤을 틈타 그 배에 올라탈 것이니, 당신은 인도 해안 어느 곳이든 좋으니 우리를 내려주기만 하면 되오. 그러면 당신은 약속을 지키는 셈이오."

"단 하나뿐이라면 좋으련만." 그가 말했다.

"'아무것도 아니거나, 아니면 전부거나.' 내가 대답했다. '우리는 이미 맹세했네. 우리 네 사람은 언제나 함께 움직여야만 하네.'"

"보십시오, 모스턴 대위." 그가 말했다. "스몰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친구를 저버리는 일도 없지요. 그를 충분히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

"더러운 일이지." 상대방이 대답했다. "하지만 자네 말대로, 그 돈이면 우리 장교직을 넉넉히 지켜낼 수 있을 테지."

"자, 스몰," 솔토 소령이 말했다. "아무래도 자네를 만나봐야겠군. 물론 우선 자네가 하는 말이 사실인지 확인부터 해야겠지. 그 상자가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말하게. 그러면 내가 휴가를 내서, 매달 운행하는 교대선에 몸을 싣고 인도로 돌아가 이 사건을 조사해 보겠네."

"그렇게 서두르지 말게." 그가 흥분할수록 나는 오히려 차분해지며 말했다. "내 동료 세 명의 동의를 얻어야 하네. 우리에게는 네 명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해두지."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가 말을 끊으며 끼어들었다. "검은 피부를 가진 세 명의 사내와 우리의 약속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검은색이든 파란색이든 상관없어." 내가 말했다. "그들은 내 편이야. 우린 모두 함께 갈 거다."

"결국 두 번째 모임이 열리면서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마호메트 싱, 압둘라 칸, 도스트 아크바르가 모두 참석했지요. 우리는 그 문제를 다시 논의했고, 마침내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우선 두 장교에게 아그라 요새의 지도를 건네주고, 보물이 숨겨진 벽의 위치를 표시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다음 솔토 소령이 직접 인도로 가서 우리의 이야기가 사실인지 확인하기로 했지요. 만약 소령이 상자를 찾아낸다면, 상자는 그 자리에 그대로 두어야 했습니다. 대신 항해를 위한 식량을 갖춘 작은 요트를 한 척 보내기로 했고, 그 요트는 러틀랜드 섬 근처 바다에 대기

할 예정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으로 가서 보물을 챙긴 뒤, 소령은 다시 본래의 임무로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스턴 대위가 휴가를 신청해 아그라에서 우리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 보물을 최종적으로 나누기로 했는데, 모스턴 대위는 자신의 몫뿐만 아니라 소령의 몫까지 모두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정신이 떠올릴 수 있는 가장 엄숙한 맹세와 입술로 내뱉을 수 있는 가장 경건한 서약으로 이 모든 약속을 확정 지었습니다. 나는 밤을 꼬박 새우며 종이와 잉크를 붙들고 작업했습니다. 아침이 되었을 때, 나는 두 장의 지도를 모두 완성해 두었습니다. 그 지도에는 '네 사람의 서명', 즉 압둘라, 아크바르, 마호메트, 그리고 나의 서명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자, 신사 여러분. 제 긴 이야기 때문에 다들 지치셨을 겁니다. 제 친구 존스 씨가 저를 얼른 감옥에 처넣고 싶어 안달이 난 것도 잘 알고 있고요. 최대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악당 숄토는 인도로 떠난 뒤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모스턴 대위가 우편선 승객 명단에서 그의 이름을 발견했지요. 숄토는 삼촌으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은 뒤 군대도 그만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에게 했던 것처럼 다섯 명의 남자를 함부로 대하는 비열한 짓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모스턴 대위는 그 직후 아그라로 건너갔고, 예상했던 대로 보물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 파렴치한 놈이 우리가 비밀을 넘겨줄 때 약속했던 조건들을 단 하나도 지키지 않은 채 보물을 통째로 훔쳐 간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의 목적은 오직 복수뿐이었습니다. 낮에는 그 생각뿐이었고, 밤에는 그 원한을 키워 나갔습니다. 복수는 제 마음을 집어삼킨 거대한 열망이 되었습니다. 법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고,

교수형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탈옥해서 솔토를 추적하고, 그의 목을 움켜쥐는 것, 오직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아그라 보물조차 솔토를 죽이는 일보다 사소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글쎄요, 살면서 많은 일을 마음먹고 해왔지만, 결코 중도에 포기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차례가 오기까지는 지긋지긋한 세월이 흘러야 했지요. 제가 의술을 조금 배웠다고 말씀드렸지요. 어느 날 서머턴 박사님이 열병으로 누워 계실 때, 죄수 무리가 숲속에서 안다만 제도의 원주민 한 명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병이 깊어 죽기 직전이었고, 홀로 외딴곳에 가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저는 그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어린 뱀처럼 사납고 독이 오른 상태였지만, 두어 달을 정성껏 돌본 끝에 그를 다시 걷게 만들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저를 따르기 시작하더군요. 다시 숲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고 늘 제 오두막 근처를 서성였습니다. 저는 그에게서 그들의 언어를 조금 배웠는데, 그 덕분에 그는 저를 더욱 각별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통가—그게 그의 이름이었죠—는 솜씨 좋은 사공이었고, 본인 소유의 크고 넓은 카누도 한 척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저에게 충성심을 보이며 무엇이든 돕겠다고 나서자, 저는 탈출할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저는 그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경비가 전혀 없는 어느 낡은 부두로 정해진 밤에 배를 몰고 와서 저를 태워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을 담은 박 여러 개와 야무, 코코넛, 고구마를 넉넉히 챙겨오라고 일러두었습니다."

"통가는 충직하고 믿음직한 친구였습니다. 그보다 더 충실한 동료는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그날 밤, 그는 부두에 배를 대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운 나쁘게도 그곳에는 죄수들을 감시하는 간수 중 한 명이 있었습니다. 나를 모욕하고 해치려 기회만 엿보던 비열한 파탄인이었죠. 나는 늘 그에게 복수하겠다고 다짐해 왔고,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마치 운명이 내가 섬을 떠나기 전 그 빚을 갚을 수 있도록 그를 내 길목에 세워둔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등에 카빈총을 멘 채 나를 등지고 강둑에 서 있었습니다. 나는 그의 머리를 내리쳐 으깨버릴 돌멩이를 찾아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기묘한 생각이 떠올랐고, 어디서 무기를 구할 수 있을지 깨달았습니다. 나는 어둠 속에 앉아 의족의 끈을 풀었습니다. 그러고는 세 번 크게 도약하여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카빈총을 어깨에 올리려 했지만, 내가 정통으로 내리치는 바람에 그의 두개골 앞부분이 그대로 함몰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제가 그를 내리쳤던 곳의 나무가 갈라진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균형을 잡지 못해 우리 둘은 함께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났을 때 그는 여전히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나는 곧장 배로 향했고, 한 시간 뒤 우리는 바다 멀리 나아갔습니다. 통가는 자신의 모든 소지품, 즉 무기와 신상들을 챙겨 왔습니다. 다른 물건들도 있었지만, 특히 긴 대나무 창 하나와 안다만 제도의 코코넛 잎으로 짠 매트가 있었는데, 나는 그것으로 일종의 돛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열흘 동안 운에 맡긴 채 이리저리 떠돌았습니다. 그러다 열한째 날, 말레이 순례객들을 싣고 싱가포르에서 지다로 향하던 무역선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참 별난 사람들이었지만, 통가와 나는 곧 그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섞여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주 좋은 점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남에게 참견하지 않고 아무것도 묻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내 오랜 친구와 내가 겪은 모험을 전부 다 말해준다면, 당신은 고맙다는 말은커녕 오히려 원망할지도 모릅니다. 해가 뜰 때까지 이야기를 계속해야 할 테니까요. 우리는 세계 곳곳을 떠돌아다녔지만, 그때마다 런던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발을 붙잡는 일이 생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제 목적을 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밤마다 숄토의 모습이 꿈에 나타났거든요. 잠결에 그를 수백 번도 넘게 죽였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3, 4년 전쯤 영국에 도착했습니다. 숄토가 어디 사는지 찾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죠. 저는 그가 보물을 이미 다 써버렸는지, 아니면 여전히 가지고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과 친구가 되었는데, 다른 사람까지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으니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덕분에 그가 여전히 보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곧 알아낼 수 있었죠.

그다음부터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에게 접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꽤 교활했습니다. 아들들과 하인인 키트무트가르

(khitmutgar) 외에도, 항상 두 명의 권투 선수를 고용해 곁에서 경계하게 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그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가 제 손아귀에서 그렇게 빠져나가게 둘 수 없다는 생각에 미친 듯이 정원으로 달려갔지요. 창문 너머로 들여다보니, 그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양옆에는 아들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세 사람을 상대로 무슨 일이 벌어지든 상관없다는 각오로 방 안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그를 바라보던 바로 그 순간, 그의 턱이 툭 떨어지며 숨이 끊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지요.

그날 밤, 저는 그의 방에 들어가 우리 보물을 어디에 숨겼는지 기록이 있는지 서류들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단 한 줄의 기록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쓰라리고 격한 분노를 느끼며 그곳을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만약 내가 시크교 친구들을 다시 만나게 된다면, 우리가 그에게 품었던 증오의 흔적을 남겨두었다는 사실이 내게 위안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도에 그려져 있던 우리 네 사람의 표식을 휘갈겨 쓴 뒤, 그의 가슴 위에 핀으로 꽂아 두었습니다. 그가 자신을 속이고 강탈했던 이들의 증표 하나 남기지 못한 채 무덤으로 떠나게 두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일이었으니까요."

"그 무렵 우리는 불쌍한 통가를 검은 식인종이라 속여 축제나 여러 행사장 같은 곳에 내보이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통가는 생고기를 먹으며 전쟁 춤을 추곤 했지요. 덕분에 하루 일을 마치고 나면 항상 모자

가득 페니 동전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폰디체리 로지의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몇 년 동안은 그들이 보물을 찾고 있다는 소식 외에는 별다른 소식이 없었지요. 하지만 마침내 우리가 그토록 오래 기다려온 일이 일어났습니다. 보물을 찾아낸 것입니다. 보물은 저택 꼭대기 층에 있는 바살러뮤 숄토 씨의 화학 실험실에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그곳으로 달려가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의족을 찬 몸으로 어떻게 그곳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막막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천장에 있는 트랩도어와 숄토 씨의 저녁 식사 시간을 알게 되었습니다. 통가를 이용하면 충분히 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허리에 긴 밧줄을 감은 통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통가는 고양이처럼 잘 기어올랐고, 곧 천장을 통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바살러뮤 숄토 씨가 아직 방 안에 남아 있었고, 그는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통가는 자신이 아주 영리한 짓을 했다고 생각했는지, 제가 밧줄을 타고 올라갔을 때 공작처럼 위풍당당하게 거들먹거리고 있더군요. 제가 밧줄 끝을 휘두르며 피에 굶주린 꼬마 악마 같다고 욕설을 퍼붓자 통가는 무척 놀란 기색이었습니다. 저는 보물 상자를 챙겨 아래로 내려보낸 뒤, 먼저 테이블 위에 '네 사람의 서명'을 남겼습니다. 보석이 마땅히 돌아가야 할 주인들에게 마침내 돌아왔음을 알리기 위해서였지요. 그러고 나서 저도 줄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통가는 밧줄을 끌어올리고 창문을 닫은 뒤, 왔던 길을 따라 서둘러 떠났습니다."

"더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뱃사공이 스미스의 보트인 '오로라호'가 얼마나 빠른지 떠드는 걸 들은 적이 있어서, 도망칠 때 유용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노련한 스미스와 계약을 맺었고,

우리를 배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주면 거액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스미스도 분명 상황이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건 눈치챘겠지만, 우리의 비밀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입니다. 신사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여러분을 즐겁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이 저에게 그리 큰 도움을 준 것도 아니니까요.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 것이라 믿었기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숄토 소령이 저를 얼마나 비열하게 대했는지, 그리고 그의 아들이 죽은 일에 제가 얼마나 결백한지를 세상에 낱낱이 알리고 싶을 뿐입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군요." 셜록 홈즈가 말했다. "매우 흥미로운 사건을 마무리하기에 아주 적절한 결말입니다. 당신이 직접 밧줄을 가져왔다는 점을 제외하면, 이야기 뒷부분에서 제게 새로울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 사실은 저도 몰랐던군요. 아, 그러고 보니 통가가 독침을 모두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보트 위에 있던 우리를 향해 침 하나를 쏘아 맞히는 데는 성공했더군요."

"그는 그것들을 전부 잃어버렸습니다, 선생님. 다만 당시 불기(blow-pipe) 안에 들어있던 하나만은 제외하고 말입니다."

"아, 그렇군요." 홈즈가 말했다. "그 점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없으십니까?" 죄수가 상냥하게 물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동행인이 대답했다.

"자, 홈즈," 애설니 존스가 말했다. "당신은 참 비위를 맞춰주기 어려운 사람이야. 당신이 범죄 분야의 전문가라는 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의무는 의무지. 당신과 당신 친구가 부탁한 일을 들어주느라 나도 꽤 무리했네. 이제 이야기꾼을 여기 안전하게 가두어 두어야 내 마음이 좀 놓일 것 같군. 마차는 아직 밖에서 기다리고 있고, 아래층에는 경위 두 명이 대기 중이라네. 두 사람 모두 도와줘서 정말 고맙네. 물론 재판 때 증언을 해주러 와야 할 거야. 그럼, 이만 가보겠네."

"두 분 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조너선 스몰이 말했다.

"스몰, 자네부터 나가게." 경계심 가득한 눈초리의 존스가 방을 나서며 말했다. "안다만 제도에서 그 신사에게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의족으로 나를 때려눕히지 못하도록 각별히 주의하겠네."

"자, 이로써 우리의 작은 드라마도 막을 내리는군요." 한동안 침묵 속에 담배를 피우던 내가 말했다. "앞으로 당신의 수사 방식을 지켜볼 기회가 이번이 마지막일까 봐 걱정됩니다. 메리 모스턴 양이 저를 예비 남편으로 받아주는 영광을 허락해 주었거든요."

그는 아주 비통한 신음 소리를 내뱉었다. "그럴 줄 알았네." 그가 말했다. "정말 축하한다는 말을 건네기가 어렵군."

나는 조금 마음이 상했다. "내 선택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라도 있소?" 내가 물었다.

"전혀 그렇지 않네. 내가 만나본 젊은 여성 중 가장 매력적인 분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하네. 우리가 해온 일에서도 아주 유능한 조력자가 되었을지도 모르지. 그쪽으로는 확실히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거든. 아버지가 남긴 다른 서류들 사이에서 그 아그라 지도를 어떻게 따로 챙겨두었는지만 봐도 알 수 있지 않나. 하지만 사랑이란 감정의 문제라네. 감정이 개입되는 순간, 내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냉철하고 객관적인 이성과는 충돌할 수밖에 없지. 나는 내 판단이 흐려지는 게 싫어서 결코 결혼하지 않을 생각이라네."

"내 판단력이 이 시련을 견뎌낼 수 있기를 바랄 뿐이네."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런데 자네, 무척 피곤해 보이는군."

"그래, 벌써 반동이 밀려오고 있군. 일주일 동안은 걸레처럼 축 늘어져 있을 거야."

"이상하군요." 내가 말했다. "다른 사람이라면 게으름이라고 불렀을 법한 모습이 나타나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또 그렇게 눈부신 활력과 기운을 쏟아내시니 말입니다."

"그렇소." 그가 대답했다. "내 안에는 아주 유능한 한량의 기질과, 꽤나 활기 넘치는 사내의 기질이 공존하고 있지. 가끔 괴테가 남긴 그 구절들이 떠오르곤 한다네."

자연이 당신을 단 한 사람으로만 빚어낸 것이 참으로 안타깝군요. 당신이라는 재료는 품격 있는 신사가 될 수도, 혹은 영악한 악당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었으니 말입니다.

"그나저나, 이번 노우드 사건에 대해 덧붙이자면 말이야. 내 짐작대로 그 집에 공범이 있었더라고. 집사 랄 라오가 바로 그놈이었어. 덕분에 존스 경위는 그 거창한 검거 실적 중에서 고작 물고기 한 마리 잡은 영광을 누리게 된 셈이지."

"배분이 좀 불공평한 것 같군요." 내가 말했다. "이번 일은 당신이 전부 다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덕분에 아내를 얻고, 존스는 공을 가로채는데, 도대체 당신에게 남는 건 무엇입니까?"

"나에게는 아직 코카인 병이 남아 있군." 셜록 홈즈가 말했다. 그러고는 길고 하얀 손을 뻗어 병을 집어 들었다.